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詩經』助詞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任帥真

2011年 6月

『詩經』 助詞 研究

指導教授 安在哲

任 帥 眞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6月

任帥眞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安奇燮



審査委員

金中燮



審査委員

金恩柱



審査委員

趙以植



審査委員

安在哲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6月

A Study on Postpositions in *the Book of Songs*

Su-Jin 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h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s

2011.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Key-Seop Ahn

Jung-Seop Kim

Eun-Ju Kim

Sheong-Shik Cho

Thesis director, Jae-Cheol Ahn, Prof. of Literatur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緒論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기존의 研究 및 본고의 研究 方向	4
3. 助詞의 개념 정의 및 用語의 定立	12
II. 『詩經』 助詞의 語法	18
1. 構造助詞	22
1) 名詞句 構成	22
2) 修飾句 構成	23
2. 語氣助詞	24
1) 文末에 놓이는 경우	26
2) 文中에 놓이는 경우	34
3) 文頭に 놓이는 경우	45
3. 補音助詞	47
1) 文頭に 놓이는 경우	49
2) 文中에 놓이는 경우	53
3) 文末에 놓이는 경우	58
III. 『詩經』 助詞의 語音	61
1. 上古音 分析	64
1) 構造助詞	65
2) 語氣助詞	65
3) 補音助詞	68

2. 語音 特徵	70
1) 聲母에서의 特徵	71
2) 韻部에서의 特徵	72
3. 押韻 特徵	73
1) 助詞 앞의 글자가 押韻되는 경우	75
2) 助詞가 직접 押韻되는 경우	79
IV. 『詩經』 助詞의 發生	81
1. 引伸된 경우	84
1) 代詞에서 온 경우	86
2) 動詞에서 온 경우	89
3) 形容詞에서 온 경우	92
2. 假借된 경우	95
1) 雙聲이 되는 경우	96
2) 疊韻이 되는 경우	110
3) 기타	129
V. 結論	135
參考文獻	139

【국문초록】

『詩經』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으로 그 속에는 지금으로부터 2천 5백 여년에서 3천 년 전의 거의 500년 동안 중국에서 불리어진 민간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사대부들의 詩歌 및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부르던 頌歌들이 실려 있다.

『詩經』은 經典이기 이전에 詩歌이며, 민중의 노래이므로 허사의 어법의미를 통하여 시어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는 것은 실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詩經』의 조사를 크게 語法과 語音 및 조사의 發生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어법 부분에서는 용례를 통해 조사의 용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고, 어음 부분에서는 각 조사의 어음 간에 어떤 어음적 특징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詩經』 조사의 발생에 있어, 의미를 가진 실사에서 조사가 되기까지 어떠한 詞義 변화의 기제가 작용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어법부분에서 『詩經』의 조사를 살펴보면 각각 구조조사, 어기조사, 보음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조사는 그 글자가 다른 조사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들끼리는 어음적 공통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법 역할이 같은 구조조사끼리는 聲母나 韻部가 같거나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어기조사는 크게 두 가지 성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어와 관계된 경우와 전체 문장의 어기에 관계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단어의 어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文中이나 文頭에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들은 조사로 활용되기 이전의 실사 의미와 관계된 것들이 많으며, 다른 실사의 앞이나 뒤에 놓여 그 실사 의미를 강화하는데, 文頭보다 文中에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문장 전체의 어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文末에 놓이며 일정한 어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맥이나 어조를 통해 이미 주어진 어기를 강화하거나, 어기조사가 가지는 고유의 어기색채를 더하기도 한다.

보음조사는 다른 조사와 비하여 그 글자가 가장 많으며, 다른 조사에 비하여

入聲韻이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이러한 入聲韻이 있는 조사는 ‘亦’, ‘逝’, ‘適’, ‘式’, ‘越’, ‘抑’, ‘曰’과 같은 文頭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入聲이 문장의 가장 처음에 오게 되면 語音이 두드러지므로, 듣는 사람의 주목을 끄는 효과가 있다.

『詩經』 조사의 어음 방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聲母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聲母는 舌面音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牙音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助詞 語音의 61.1%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韻部면에서 韻部는 주요모음으로 /-a-/, /-ə-/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이는 전체의 79%에 해당한다. /-a-/는 구강의 앞쪽에서 혀의 위치는 낮게 발음되며, /-ə-/는 구강의 중간에 위치하는 모음으로 발음하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助詞의 주요모음이 /-a-/, /-ə-/에 집중되는 것은 결국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쉽게 발음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음성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陰陽入 三聲을 보면 음성운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모음으로 끝나는 開音節이기 때문에, 노래가사의 連音에 적합해서일 것이다.

시경 조사와 압운의 관계를 보면, 조사 자체가 압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사 앞의 글자가 압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음조사가 文末에 한 번 나타날 때는 모두 직접 압운자가 되고 있다.

『詩經』의 助詞의 發生과 관계 되는 것은 크게 소리와 의미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의미와 관계 되는 경우는 각각 代詞, 動詞, 形容詞에서 인신된 경우인데, 여기서의 인신은 조사에 어느 정도의 실사의미가 남아 있어서 앞이나 뒤의 다른 실사 어기를 강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조사로는 ‘其’, ‘斯’, ‘是’, ‘之’, ‘于’, ‘來’, ‘有’, ‘而’, ‘若’, ‘如’, ‘然’ 등 11개가 있다.

전체 71개 조사에서 이렇게 인신된 조사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60개 조사는 실사의미와 어떤 관련도 없이, 語音과 관계되어 假借된 조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詩經』 대부분의 조사가 語音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I. 緒論

1. 연구 동기 및 목적

과거의 훈고학자들은 고전에 쓰인 조사를 흔히 실사로 간주하여 虛詞 항목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래의 文意와 어긋나는 사례가 많았다. 王引之의 『經典釋辭』¹⁾는 이러한 난점을 가장 잘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는 『釋辭』에서 ‘終風且暴’을 예로 들며, 『毛傳』에서 ‘終風’을 ‘終日風爲終風(종일 부는 바람)’으로 해석한 것이라든가 심지어 『韓詩』에서 ‘終風, 西風也’로 주해한 것은 詞에 연연하여 억지로 훈석한 것으로, 결코 본뜻이 아니며 ‘終……且’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열거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²⁾ 이렇게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虛詞를 어휘적 의미를 가진 實詞로 파악한다면 문장의 주해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된다.

『詩經』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으로 그 속에는 지금으로부터 2천 5백 여 년에서 3천 년 전의 거의 500년 동안 중국에서 불리어진 민간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사대부들의 詩歌 및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부르던 頌歌들이 실려 있다. 『詩經』은 이렇게 옛 서민들의 생활로부터 궁중의 의식이나 제례까지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고대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민속, 자연 등 여러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문학적, 언어학적 접근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무수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詩經』 언어의 특색으로는 精練된 四言句와 聲律의 조화를 들 수 있는데 『詩經』에서는 이를 위해 同音의 중첩이나 쌍성, 첩운 등의 형식으로 중첩사와 연면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로 충분치 않을 경우 單音詞의 앞 뒤에 한 두 개의 助詞를 넣어 음절을 보충하였다.

국내에서의 『詩經』에 대해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보면 疊語, 聯綿詞, 復

1) 『經典釋辭』를 이하 『釋辭』로 약칭하겠다.

2) 「詩終風曰, 終風且暴, 毛傳曰, 終日風爲終風, 韓詩曰, 終風西風也, 此皆緣詞生訓, 非經文本義, 終猶既也, 言既風且暴也」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86쪽.

音節詞 등 語音, 文字 및 實詞 위주의 연구가 많다. 위와 같이 『詩經』의 첩어, 연면사, 복음절사 등에 대한 기존의 많은 언어학적 연구는 『詩經』의 언어 실체와 특징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드시 실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詩經』은 운문으로서 실사 못지않게 방대한 虛詞가 존재하며 매 시구마다 허사가 나타나지 않는 시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허사의 존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詩經』은 經典이기 이전에 詩歌이며, 민중의 노래이므로 허사의 어법의 의미를 통하여 시어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는 것은 실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詩經』의 實詞에만 주목한다면 이것은 『詩經』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實詞의 어휘의미 못지않게 虛詞의 어법의미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詩經』의 허사에는 介詞, 連詞, 助詞, 嘆詞 등이 있는데 허사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어법 역할이 더 강한 介詞, 連詞는 문장의 의미 파악에 더 중요하므로 여러 허사들 가운데서도 다른 허사보다 좀 더 중시되었다. 그러나 분명 그 출현빈도가 무수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법 역할이 약한 助詞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설사 그 존재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과 어법적 역할에 대해서 고대 학자들의 인식은 그다지 면밀하지 못하였다. 다음 『詩經』 助詞의 예를 보면

思皇多士 生此王國 훌륭한 많은 賢士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네³⁾ (大雅·文王)
 縞衣綦巾 聊樂我員 흰 옷에 파란 수건 쓴 여자만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네
 (鄭風·出其東門)
 言告師氏 言告言歸 보모님께 아뢰고 歸寧하려 할 제 (周南·葛覃)

위의 첫 문장의 ‘思’에 대하여 『詩集傳』에서는 ‘思, 語辭’라 하였고⁴⁾,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孔穎達은 ‘云, 員, 古今字, 助句辭也(云, 員은 古今字이며 문장을 돕는 語辭이다)’라 하였고⁵⁾ 朱熹는 ‘員, 與云同, 語詞也(員은 云과 같으며 語詞)’라 하였다.

3) 본고의 譯文은 金學主의 譯文과 『集傳』, 『毛傳』의 주석을 주로 참고하였다.

4) 이하 『集傳』으로 약칭하겠다.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05쪽.

이다)'라 하였다.⁶⁾ 역대의 주석서에서는 이러한 字들에 대하여 '辭', '語辭', '語助', '助句辭', '語詞', '語助辭', '發語辭'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글자들이 조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朱熹는 또한 '言告師氏, 言告言歸' (周南·葛覃)에서는 '言, 辭也'⁷⁾라고 하였는데 清代의 劉淇는 朱熹의 견해에 동의하며 『助字辨略』에서

모든 '言'자는 모두 語助이며,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諸言字, 並是語助, 不爲義也)⁸⁾

라고 하였고, 王引之도 『釋詞』에서

'言은 云이며 語詞이다. 말씀의 '言'을 '云'이라 하고 語詞의 '云' 역시 '言'을 이르는 것이다(言, 云也, 語詞也, 話言之言謂之云, 語詞之云亦謂之言)⁹⁾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文頭의 '言'과 文中의 '言'은 모두 같은 것인가? 같다면 위치에 상관이 없는 것인가? 다르다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言'은 반드시 字形 '言'으로만 나타내야 하는가? 각 조사의 字形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나 고대 주석서들의 辭, 語詞, 語助의 견해는 『詩經』 조사의 용법을 추상적으로 개념 지은 것으로 助詞의 구체적인 용법과 역할을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결국 이러한 '斯', '思', '言'과 같은 글자들이 助詞로서 어떤 구체적인 기능을 하는지 기존의 주석서로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詩經』에 나타나는 조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일차적인 의문을 가지게 하며 나아가 『詩經』 助詞 연구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詩經』에 적지 않게 나타나지만 고대의 학자들이 단순히 '語辭', 혹은 '語助'라 주석한 이러한 字들의 구체적인 실체와 기능을

5)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731쪽.

6)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64쪽.

7) 朱熹, 위의 책, 2007年, 4쪽.

8) 劉淇, 『助字辨略』, 中華書局, 1954年, 64쪽.

9)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47쪽.

연구하고 이로써 實詞에 치우쳐 있던 『詩經』의 언어 연구에 균형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詩經』 조사에 대한 어법적 고찰과 어음분석을 통해 助詞를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나아가 고대한어 조사 연구에 一助하고자 한다.

2. 기존의 研究 및 본고의 研究方向

고대 학자들의 ‘虛詞說’에서 벗어나 그 용법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대표적인 학자로 胡適을 들 수가 있다. 그는 1928年 「詩三百篇言字解」에서 『詩經』의 ‘言’을 세 가지 용법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而’와 비슷하다고 하였고 둘째, 부사 ‘乃’의 의미로 보았는데 ‘言告師氏’는 ‘乃告師氏’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言’은 어떤 경우 代詞 ‘之’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⁰⁾ 胡適의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모호한 虛詞說에서 벗어나 문장 내부에서 ‘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훈고학적 연구방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후 『詩經』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는 1959年 王顯의 『詩經中跟重言作用相当的有字式、其字式、斯字式、思字式』이다.¹¹⁾ 그는 有字式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有字式 등은 重言式¹²⁾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有’, ‘其’, ‘思’는 순수한 조사로서 형용사 앞에 놓이며, ‘其’, ‘斯’는 본래 지시대사인 것이 조사로 가차되어 형용사 앞이나 뒤에 놓인다고 하였다. 물론 有字式 등이 중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설은 이미 『毛傳』, 『鄭箋』에서 부터 있어 왔으며 그의 견해는 이러한 기존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 방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는 ‘有’ ‘其’ ‘思’ ‘斯’의 각각의 문장형식을 매우 세분하여 고찰하였는데 A는 명사, B는 동사나 형용사로 설정하여, ‘有’, ‘其’, ‘思’, ‘斯’가 나타난 모든 문형을 AA××, BB××, AB××, BA×× 등으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렇게 어법 관계에 기초한 전면적인 연구

10) 胡 適, 「詩三百篇言字解」, 『胡適文存』 卷二, 東亞圖書館, 1928年, 2-4쪽.

11) 王 顯, 「『詩經』中跟重言作用相当的有字式、其字式、斯字式、思字式」, 『言語研究』, 1959年, 第4期.

12) 重言은 중첩식을 이르는 것이다.

는 기존의 훈고학적 연구와는 매우 다른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錢小云은 1979년 「詩經助詞」에서 『詩經』 조사에 대하여 좀 더 폭넓은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본적으로 그의 연구방법은 王顯의 방법을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크게 형용사 앞, 뒤에 놓이는 조사 및 동사의 앞, 뒤에 놓이는 조사 두 부류로 구분하여 좀 더 많은 문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그는 또한 ‘灼灼其華’가 왜 ‘其字式’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王顯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아울러 『詩經』 조사의 지역성, 시대성 및 『詩經』 조사를 포함한 고대한어 전반의 조사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¹³⁾

그의 연구는 王顯에서 좀 더 나아가 『詩經』 조사 연구가 몇 개의 단음절 조사 연구에서 점차 더 많은 『詩經』 조사연구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문형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사의 語音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詩經』 조사에 대하여 어음방면에서 고찰한 대표적인 학자는 張仁明이다. 그는 1994년 「語音是助詞的核心」이라는 논문에서 『詩經』의 조사를 대표로 하는 고대한어조사와 현대한어조사의 形音義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또한 古今한어조사의 발생과 변화, 소멸 등에 있어 조사에서 어음의 작용이 매우 분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어음은 조사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고금 조사 대비라는 큰 틀 안에서 고대 한어 조사로서의 『詩經』 조사를 연구한 것이지만 그의 『詩經』 조사에 대한 연구방법은 이전의 연구방법과는 또 다른 점이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조사를 단지 동사, 형용사를 기준으로 문형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詩經』 조사를 56개로 귀납하고 조사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이를 다시 보음 조사, 구조조사, 어기조사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는 현대한어조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찰하였는데, 조사의 발생과 소멸 등에 대해 形音義를 중심으로 고금조사와 대비하며 분석하였다는 점이다.¹⁴⁾

그의 연구는 이전의 훈고학적 연구방법, 혹은 어법 문형 일변도의 연구를 벗어

13) 錢小云, 「詩經助詞」, 『南京師大學報』, 1979年, 第1期.

14) 張仁明, 「『詩經』中的補音助詞研究」, 『畢節師專學報』, 1995年, 第4期.

나 語音의 각도에서 새롭게 조사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고대 한어조사를 대표하는 『詩經』 조사와 현대한어 조사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서, 『詩經』 조사의 용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조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면이 있다.

이후의 『詩經』 조사에 대한 연구는 점차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넓게는 어법적 분류를 기준으로, 좁게는 『詩經』의 단음절 허사를 기준으로 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1999년 裘燮君은 「詩經足句語氣詞的語氣功能」에서 『詩經』의 어기조사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어기조사, 즉 휴지의 어기조사와 감탄의 어기조사를 중점 분석하고, 이러한 조사들이 휴지나 감탄의 기능 뿐 아니라 음절을 조절하고 문장을 채우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⁵⁾

한편 張仁立은 1999년 『詩經中的襯音助詞研究』에서 『詩經』은 대부분 4言句의 형식이며 어떤 句는 4음절이 부족하여 한 두 개의 조사를 넣어 4言句의 형식을 맞추었는데 그는 이러한 조사를 襯音助詞라 하였다. 이러한 조사들은 詩語를 더욱 정련되게 하고 운율의 조화를 꾀하는 조사로, 그는 전체 『詩經』에서 襯音助詞를 38개로 규정하고, 그 語音을 고찰하였는데 분석 결과 喉音과 舌頭音의 定母字가 가장 많으며 이는 전체 보음조사의 61%를 차지한다고 하였다.¹⁶⁾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의 『詩經』 조사에 대한 연구는 단음절 위주의 연구가 많은데 단음절사 위주의 연구란 비단 그 글자의 조사 용법뿐 아니라 『詩經』에 나타나는 모든 虛實詞 용법을 포함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詩經』 단음절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詩經』에 비중 있게 나타나거나 그 용법에 논의가 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다. 아래의 표를 통해 『詩經』 단음절사의 허실사 용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于’, ‘其’, ‘言’, ‘以’가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5) 裘燮君, 「詩經足句語氣詞的語氣功能」, 『語文研究』, 1999年, 第3期.

16) 張引立, 「『詩經』中的補音助詞研究」, 『語文研究』, 1999年, 第3期.

于	其	言	以	有	維	斯	而	所	之	是	止	兮	載	思	薄	乎	宜	式	在
姚群	钟应春	周崇謙	罗天云	马毛朋	柯西刚	杨文霞	王秀玲	周亮江 喻华	朱家平	陈湘	方有国	支菊生	易通	徐娜	李春艳	罗国强	薛新 雄花	方有国	胡晓晴
贾泽华 宋学农	骆锦栋 马贝加	褚良才 梁佳民	沈云桂	高其良	汪业全	付文琴	毛晓新	葛文杰	张月明	杨合鸣 李云贵	陈灿	李先耕	赵霖霞						
陈年高	郭爱平	姜晓	吕志	邹晓江	丁邦孙	方有国	董建池	郑剑平	姜诗琦	王霖云	汤斌		李云贵						
陈雪梅	陈柯	丁晓良	王景艳	徐慧琴	张银珠	龙建春	严丽明	雄瑞	李健	贾延利	舒志武		蓝瑜						
刘美娟	毛毓松	京七	王玉	裴雯君			方有国		蔺薇波	徐光烈	肖旭								
周崇謙	肖彬	夏永声	宋会鹤	李维琦			裴莹江					谢奉生							
陈建初	邓昌荣	翟宇君	薛凤生																
陈伊明	朱斌	陈梦韶	郭锡良																
白冰麟	李爱村	潘丽君	王冲寰																
梅建麟	葛根贵	强祥友																	
放平叔	胡晓丽	褚良才																	
郭锡彪																			
萧旭																			
段斌																			

그러면 ‘其’, ‘言’, ‘于’, ‘以’를 대표로 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기존의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詩經』 ‘其’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용법의 나열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葛根贵는 『詩經』의 ‘其’를 지시대사, 구조조사, 어기조사로 나누어 설명하였고¹⁷⁾ 毛毓松은 『詩經』의 ‘其’를 지시대사, 어법의의를 가진 허사, 무의미한 補音字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¹⁸⁾ 周崇謙은 『詩經』의 ‘其’를 대사, 개사, 부사, 조사, 어소(語素), 연사(連詞), 동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¹⁹⁾

여러 학자들마다 『詩經』의 ‘其’에 대하여 다르게 분류하고 있지만 ‘其’의 여러 품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毛毓松이 분류한 ‘무의미한 補音字’의 용법 역시 단지 용례에 대한 서술만이 있는데

17) 葛根贵, 「『詩經』의 ‘其」, 『江西師院學報』, 1982年, 第2期, 81쪽.
 18) 毛毓松, 「論『詩經』句中的‘其」, 『廣西師範大學學報』, 1994年, 第1期, 24쪽.
 19) 周崇謙, 「『詩經』‘其’字 類釋」, 『張家口大學學報』, 1995年, 第2, 3期, 46쪽.

정말 의미가 없는 補音字라면 다른 많은 보음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其’를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각 품사간의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詩經』에서 虛詞 ‘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부터 지금까지 의론이 분분하다.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 『詩經』의 虛詞 ‘言’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言’은 일인칭대사 ‘我’라는 견해로 이는 毛亨, 鄭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毛傳』에서는 『詩, 葛覃』 마지막 장의 ‘言告師氏, 言告言歸’를 예를 들며, ‘言, 我也’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오랜 시기동안 지배적인 견해였고 그 영향력은 매우 컸다. 그러나 ‘言’을 ‘我’로 해석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실제 『詩經』에서는 수많은 ‘言’이 다음과 같이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君子有酒 酌言嘗之²⁰⁾’처럼 文中에 나타나는 ‘言’을 1인칭 대사로 해석했을 때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둘째, ‘言’은 무의미한 虛詞라는 견해로서 朱熹는 『詩集傳』에서 ‘言告師氏, 言告言歸’를 풀이하면서 ‘言, 辭也²¹⁾’라고 하였다. 청대의 劉淇도 朱熹의 견해에 동의하며 ‘모든 ‘言’자는 모두 語助이며,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²²⁾’라고 하였다.

셋째, 종래의 ‘虛詞說’에서 벗어나 ‘言’의 용법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경우이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胡適의 견해를 들 수가 있다. 그는 『詩三百篇言字解』에서 『詩經』의 ‘言’을 세 가지 용법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連詞 용법으로서 이것은 ‘而’와 비슷하다고 하였고, 둘째 ‘乃’의 의미로 일종의 부사로 보았으며 부사 뒤에 동사가 이어질 때 ‘言告師氏’는 ‘乃告師氏’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言’은 어떤 경우 代詞 ‘之’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²³⁾ 胡適은 기존의 모호한 虛詞說에서 벗어나 문장 내부에서 ‘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20) 「君子에게 술이 있다면 술 따라 맛보게 하네」 『小雅·瓠葉』

21) 朱 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4쪽.

22) 劉 淇, 『助字辨略』, 中華書局, 1954年, 64쪽. 「諸言字, 竝是語助, 不爲義也」

23) 胡 適, 「詩三百篇言字解」, 『胡適文存』 卷二, 東亞圖書館, 1928年, 2-4쪽.

‘于’ 자는 『詩經』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된 글자로 하나의 字形으로서 그 기능과 용법이 문장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그 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于’가 『詩經』에서 어떠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개사, 동사, 동사 접두사, 조사 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詩經』 ‘于’의 개사 용법을 살펴보면 개사 용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陳雪梅²⁴⁾, 周崇謙²⁵⁾, 劉美娟²⁶⁾, 向熹²⁷⁾, 楊伯峻²⁸⁾ 등 많은 학자들이 異見이 없는 듯하다. 다만 개사의 분류와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周崇謙의 경우 목적어의 성질보다는 ‘于’를 중심으로 동사, 명사의 배치에 관심을 두고 있어 품사의 성질이 한 눈에 파악되는 장점이 있으나 개사 뒤 목적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동일한 詩句의 ‘于’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 개사로 보거나 혹은 조사로 보기도 한다.²⁹⁾

‘以’ 역시 ‘于’와 마찬가지로 甲骨文에서부터 나타난 글자로 『詩經』에 이르기까지 그 용법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詩經』 ‘以’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도 매우 다양한데 王珏은 ‘以’의 용법을 명사, 대사, 동사, 부사, 개사, 연사, 조사로 분류하였으며³⁰⁾ 宋會鵠은 동사, 명사, 개사, 연사, 의문대사, 보음사, 어기사, 부사 그리고 개사와 연사 둘 다 가능한 상황을 합쳐 모두 9가지 용법으로 나누었다.³¹⁾

24) 그는 개사 용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1.처소, 2.방위, 3.시간, 4.대상, 5.동작의 주체와 객체. 陳雪梅, 『詩經』中‘于’字的辨析,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01年, 第 30卷, 158쪽.

25) 그는 개사 용법을 10가지로 분류하였다. 각각 1.V于N, 2.V于NN, 3.VV于N, 4.VN于N, 5.aV于N, 6.NV于N, 7.于NVV, 8.于N之N, 9.于N于N, 10.于彼NN. 周崇謙, 『張家口大學學報』, 1997年, 第 3, 4期, 16-19쪽.

26) 그는 개사 용법을 8가지로 분류하였다. 1.장소 2.동작, 행위의 귀추(到, 至) 3.시간 4.동작의 기점(從) 5.동작의 대상(對) 6. 피동문에서 동작의 주체 7. 동작이 미치는 대상(給), 8. 방향. 劉美娟, 『詩經』虛詞‘于’和‘於’用法初探, 『麗水師範專科學校學報』, 2001年, 第4期, 45쪽.

27) 그는 ‘于’자 개사용법으로 동작의 처소, 시간, 대상, 비교, 동작의 주체를 이끈다고 하였다. 向熹,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年, 835쪽.

28) 楊伯峻, 何樂士는 ‘于’는 오래된 개사로서 甲骨文에 매우 많이 나타나며 『詩經』에서는 시간을 이끄는 개사로서 ‘自我不見, 于今三年(幽風·東山)’을 예문으로 들었다.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2001年, 382쪽.

29) ‘命于下國 封建厥福’ (頌·殷武)에 대하여 陳雪梅는 동작의 대상을 이끄는 개사로 보았고 錢小云은 助詞로 보았다. 陳雪梅, 위의 논문, 158쪽. 錢小云 『詩經』助詞, 『南京師大學報』, 1979年, 第1期, 73쪽.

30) 王 珏, 『詩經』中的‘以’字考察, 『語文知識』, 2008年, 第1期, 64쪽.

呂志는 ‘以’의 용법을 모두 동사, 개사, 연사로 나누었으며³²⁾, 向熹는 또한 『詩經詞典』에서 ‘以’를 의미분류에 따라 20개 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이를 품사 기준으로 보면 각각 동사, 명사, 의문대사, 개사, 연사로 구분된다.³³⁾

이렇듯 『詩經』의 ‘以’에 대하여 학자마다 최소 3종류에서 최대 9종류까지 분류 기준이 다르고 그 용례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르다. 동사 용법을 예를 들면, 宋會鵠은 세 차례만 나타난다고 한 반면, 王珣은 13차례를 들었으며 呂志는 25차례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또한 공통점도 있는데 용례의 차이는 있으나 동사, 개사, 연사에서 그 용법 분류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詩經』 조사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체로 『毛傳』, 『集傳』, 『傳疏』 등에서 조사를 통칭하여 ‘詞也’, ‘語辭也’, 혹은 ‘語助也’라고 주석한 이래 훈고학적 연구방법이 계속 이어지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 문형 구조분석 중심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70, 8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문형 구조를 기초로 하면서 이전보다 좀 더 문법적으로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90년대 이후로는 조사를 어음 방면에서도 접근하는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 어음 방면을 포함하는 조사 연구는 간간이 있었으나 앞선 연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詩經』 조사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단음절사 위주의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詩經』 조사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몇 개의 논문으로는 「先秦詩歌의 助詞 研究」³⁴⁾, 「先秦詩歌의 句中語氣助詞研究」³⁵⁾, 「詩經의 接詞 研究」³⁶⁾, 「兮字 研究」³⁷⁾ 등이 있다.

金銀珠의 「先秦詩歌의 助詞 研究」는 『詩經』과 『楚辭』에 나타난 조사 용법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이러한 특징 간의 통사적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는 두

31) 宋會鵠, 「『詩經』中以字用法分析」, 『韶關學院學報』, 2009年, 第2期, 108쪽.

32) 呂志, 「『詩經』介詞“以”考察」, 『三峽大學學報』, 2002年, 第2期, 51쪽.

33) 向熹,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年, 791-794쪽.

34) 김은주, 「先秦詩歌의 助詞 研究」, 全南大學教 博士學位論文, 1998年.

35) 김은주, 「先秦詩歌 句中語氣助詞 研究」, 『中國人文科學』, 1996年, 第15期.

36) 천기철, 「『詩經』의 接辭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年.

37) 김종배, 「‘兮’字研究」, 『淸州大學校論文輯』, 1980年, 第13期.

개의 운문작품에 나타난 몇 개의 대표적인 조사를 비교 연구한 통사적 방면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詩經』의 조사만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선진 시가로서 『詩經』과 『楚辭』에 사용된 주요조사를 비교 연구한 논문이기 때문에 『詩經』 조사 전체에 전면적인 연구나, 조사와 어음과의 관계, 조사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기철의 「詩經의 接詞 研究」는 『詩經』의 조사를 ‘接詞’로 보았고 그 연구 대상으로 『詩經』의 전체조사가 아니라, 주로 ‘有’, ‘思’, ‘其’, ‘斯’, ‘言’, ‘爰’, ‘于’ 등에 한정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글자가 명사나 동사, 부사 앞 뒤에 붙어 ‘接詞’로 사용되는 용례를 들며, ‘接詞’가 나타나는 문장 번역의 실태를 비교하고, 이러한 ‘接詞’가 있는 문장 번역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사의 성격이나 어음의 관계보다는 이러한 조사가 주로 어떤 품사의 앞 뒤에 나타나는지, 또한 이러한 조사가 있는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더 좋은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의 국내 연구로는 몇 개의 주요 조사를 중심으로 『詩經』과 『楚辭』에 나타난 조사를 비교 연구한 논문이 있다. 그 중 金鍾培의 「兮字 研究」는 『詩經』과 『楚辭』에 나타난 ‘兮’字的 출현횟수와 용법을 비교하였고, 金銀珠의 「先秦詩歌의 句中語氣助詞研究」는 조사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詩經』과 『楚辭』에 나타난 ‘以’, ‘而’, ‘之’, ‘其’ 등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詩經』 조사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詩經』에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몇 개의 주요 조사들을 통사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다. 그러나 『詩經』의 전체 조사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나, 조사를 어음과의 관련성에서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詩經』 조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동시에, 『詩經』의 조사를 語法과 語音 방면 및 조사의 발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어법 부분에서는 용례를 통해 조사의 용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조사를 분류하며, 어음 부분에서는 각 조사의 어음 간에 어떤 어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詩經』 조사의 어법과 어음 방면 모두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법 방면에서만 바라볼 때 풀지 못하는 문제를 어음 부분에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서로 보완이 되는 연구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詩經』 조사의 발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이는 조사가 실사의미에서부터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漢字는 그 발생에 있어 모두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가진 글자들이 어떻게 그 의미를 잃고 조사가 된 것일까? 의미를 가진 실사에서 조사가 되기까지 어떠한 詞義 변화의 기제가 작용한 것일까? 이는 어음과 관계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조사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허사이므로 詞義 방면에서의 접근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의 발생은 語音과 무관하지 않으며, 詞義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미를 가진 한자가 의미를 잃을 때, 어떤 기제가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詞義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의 I章에서는 우선 助詞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정립하여 논지를 이어나가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II章에서는 『詩經』의 조사를 구조조사, 어기 조사, 보음조사의 세 방면으로 분류하여 그 역할과 특징을 어법적인 방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III章에서는 『詩經』 조사의 語音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의 추정 상고음을 분석한 후, 각 조사 간 語音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詩歌 속에서 助詞는 押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V章에서는 『詩經』 助詞의 발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의 本義와 『詩經』에서 사용된 실사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어떻게 실제 의미를 잃고 『詩經』의 조사로 기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助詞의 개념정의 및 用語의 定立

중국어는 굴절어나 교착어에서의 형태표지에 의하지 않고 어휘와 어순에 따라 문장에서의 의미가 결정된다. 중국어는 이렇게 고립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품사분류는 『馬氏文通』 이후로 서구문법을 원용한 서구식 품사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를 갖는 절대 다수의 어휘에서 품사와 기능간에 대응관계

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서구식 문법체계를 원용한 중국어의 품사 분류는 매우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의 경계, 형용사와 부사의 경계, 부사와 연사 등의 경계 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형태가 없는 언어에서 서구식 품사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며 품사분류의 기준을 다르게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더 어렵다고 본다. 이에 품사 분류와 기능에 대한 것은 학자마다 異見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 결국 漢語의 품사 분류는 불완전한 기준에서 나온 것이므로 품사 분류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기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불완전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본고의 품사 분류 역시 완전한 것이 아니며, 본고의 품사 분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취하여 『詩經』에 적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조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단어나 구 및 문장과 결합하여 모종의 어법상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어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라 할 수 있다. 이들 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단독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며 늘 문장의 앞에 놓이거나 어느 특정 품사의 끝에 붙어서 쓰여진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모종의 語氣를 나타내며 어음을 조절하고 위치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또한 시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장 형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그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려 왔다.

훈고학 서적이거나 허사 지침서 등에서 주석가들이 사용한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學者名	用語	書名
許慎	詞	『說文解字』
毛亨	辭	『毛傳』
朱熹	辭, 語辭	『詩集傳』
盧以緯	助語辭	『助語辭集注』
馬建忠	助字	『馬氏文通』
王引之	語辭	『經傳釋詞』
劉淇	語助	『助字辨略』
王力	語氣詞	『古代漢語』
屈萬里	語助詞	『詩經詮釋』
黎錦熙	助詞	『新著國語文法』
向熹	助詞	『詩經詞典』
黃典誠	語助詞	『詩經通釋新詮』
周法高	附加語	『中國古代語法』
裘學海	虛字	『古書虛字集釋』
易孟淳	音節助詞	『先秦語法』
楊樹達	助詞	『詞詮』
楊伯峻	語氣詞	『古漢語虛詞』
周秉均	助詞, 語助詞	『古代漢語綱要』

위의 표를 보면 역대로 조사에 대한 용어가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黎錦熙는 최초로 ‘助詞’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조사에 대한 설명에서 원래 그 자체는 아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종의 부호에 불과한 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며 詞나 句를 도와 말할 때의 태도나 상황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³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품사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黎錦熙, 楊樹達, 周秉均의 용어를 따라 이러한 허사를 ‘助詞’라는 용어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

38)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1954年, 12쪽.

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구분된 조사의 개념에 관한 이들 어법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馬建忠은 『馬氏文通』에서

무릇 虛字³⁹⁾는 字와 句讀를 마무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助字라고 한다.
(凡虛字用以煞字與句讀者, 曰助字)

黃六平은 『漢語文言語法綱』에서

助詞는 말의 각종 語氣를 나타낸다. 助詞는 표음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사 가운데 해석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은 종류이다. (助詞는表示說話의各種語氣的, 因爲助詞是標音性質, 在各種詞類中是比較不容易解釋的一種。)⁴⁰⁾

廖振佑는 『古代漢語特殊語法』에서

助詞는 다른 단어나 구 또는 문장에 붙어서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어기 또는 음절을 나타내는 허사이다. (助詞는附着在別的詞, 詞組或句子上邊, 表示某種語法意義以及表示某種語氣或音節的虛詞。)⁴¹⁾

周秉鈞은 『古代漢語綱要』에서

助詞는 구를 만드는 보조 재료의 품사로서, 일종의 특수한 虛詞이다. 일반적인 어법서에는 단지 語氣와 語音을 표시하는 것을 助詞 혹은 語助詞라 부른다. (助詞是一種作爲造成詞句的補助材料的詞類, 它是一種特殊的虛詞。一般語法書只把表示語氣和語音的叫做助詞或語助詞。)⁴²⁾

39) 『馬氏文通』에서는 ‘詞’와 ‘字’의 개념을 모두 字로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夫言者, 心之聲也; 而字者, 所以記言也.(卷九 數字)에서 보이는 ‘字者’의 ‘字’는 바로 하나의 한자가 가지는 낱개의 뜻을 가리키는 ‘字’이고, 품사의 정의에서 각각 名字, 代字, 靜字, 및 動字 등과 쓰여진 字는 품사를 구별하는 단어(詞)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위 인용문의 虛字, 助字는 각각 虛詞, 助詞이며, 여기서의 字는 단어(詞)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0)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 華正書局, 1981年, 20쪽.

41) 廖振佑,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年, 184쪽.

42) 周秉鈞, 『古代漢語綱要』, 湖南教育出版社, 1981年, 394쪽.

楊伯峻과 何樂土는 『古漢語語法及其發展』에서

助詞는 단어, 구, 문장에 대하여 각종 표지의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助詞는 가장 독립적이지 못하고, 가장 비실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문장의 앞이나, 단어의 앞뒤 혹은 구의 가운데 사용된다.(助詞是對詞、短語或句子起各種標志作用的詞類。助詞是獨立性最差，意義最不實在，常用於句首，詞的首尾，或短語之中。)⁴³⁾

라고 하였다.

위에 든 각자의 정의를 오늘날 고대한어 어법서에서 공통으로 들고 있는 助詞의 용례를 가지고 본다면, 廖振佑의 경우만 비록 간단하기는 하나 조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의 설명은 다른 허사와의 경계 면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조사의 기능 면에서도 시원스런 설명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굳이 이들 설명을 종합한다면, 助詞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다른 실사 또는 실사가 구성하는 어구의 존재가 우선하는 가운데, 이들에 부가되어 모종의 어법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詞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실사와는 달리 어법 구조를 갖추게 하거나 일정한 어기를 표현하거나 어음을 조절하는 詞를 말한다.

助詞의 분류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양하다. 黃六平은 그 위치에 기준하여 ‘文頭助詞’, ‘文中助詞’, ‘文末助詞’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고⁴⁴⁾, 廖振佑는 조사를 ‘結構助詞’, ‘語氣助詞’, ‘語音助詞’로 분류하고 ‘語音助詞’를 다시 ‘句首’, ‘句中’, ‘句末’로 구분하였다.⁴⁵⁾ 周秉鈞은 또한 조사의 기능에 따라 ‘語氣助詞’, ‘襯音助詞’, ‘結構助詞’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襯音助詞를 다시 ‘語首’, ‘語中’, ‘語末’로 구분하였다.⁴⁶⁾

한편 楊伯峻과 何樂土는 조사를 ‘語助詞’, ‘重言助詞’, ‘結構助詞’, ‘語綴助詞’로 분류하여 ‘語綴’을 조사에 포함시켰고⁴⁷⁾, 王力도 ‘句首句中語氣詞’라 하고, ‘詞頭’,

43) 楊伯峻·何樂土,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2001年, 470쪽.

44) 黃六平, 洪淳孝·韓學重 譯, 『漢文文法綱要』, 미리내, 1994年.

45) 廖振佑, 『古代漢語特殊語法』,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年, 184쪽.

46) 周秉鈞, 『古代漢語綱要』, 湖南教育出版社, 1981年, 395-405쪽.

47) 楊伯峻·何樂土, 위의 책, 2001年.

‘詞尾’를 각각 조사에 포함시켰다.⁴⁸⁾ 그러나 이들의 설명은 詞와 形態素(詞素)의 경계에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취할 것이 못 된다. 즉, 이들이 말한 ‘語綴’과 ‘詞頭’ 등의 개념은 단어를 구성하는 성분이자, 파생어의 구성 요소로서 어법단위상의 형태소이다.

黃六平, 廖振佑, 周秉鈞 등의 분류를 살펴보면, 그들의 분류는 기능면과 위치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기능에 의한 분류를 취하고, 그 아래에서 위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살피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하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구분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詩經』의 助詞를 먼저 구조조사와 어기조사, 보음조사⁴⁹⁾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文頭, 文中, 文末 등의 위치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48) 王 力, 『古代漢語』, 中華書局, 1962年, 467쪽.

49) 본고에서는 周秉鈞의 ‘襯音助詞’를 보음조사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 용어가 語音을 조절하고 보충해준다는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II. 『詩經』 助詞의 語法

『詩經』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 총집으로, 민간의 가요를 바탕으로 당시의 생활상과 언어문자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고대의 한어는 단음절어이지만 점차 쌍음절화 되어갔으며 『詩經』에는 오랜 시기에 걸쳐서 형성된 다양한 문장이 실려 있으나 시의 형식 면에서는 4言句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詩經』의 시구는 4言句를 맞추기 위해 同音의 중첩이나 쌍성, 첩운 등의 형식으로 중첩사와 연면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로 충분치 않을 경우 單音詞의 앞 뒤에 한 두 개의 助詞를 넣어 음절을 보충하였다.

易孟淳은 『詩經』의 ‘爰居爰處 爰笑爰語 (함께 살면서, 웃으며 이야기 나눈다네)’ (小雅 斯干)와 ‘乃生男子 載寢之牀 載衣之裳 載弄之璋 (아들을 낳아 침대에다 뉘어 놓고 좋은 옷을 입혀 주고 구슬을 가지고 놀게 하니)’ (小雅 斯干)에서 ‘爰’과 ‘載’는 없어도 글의 전체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대로는 4言句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의 앞에 ‘爰’과 ‘載’를 붙여 음절의 수를 채운 것이며, 『詩經』에서 음절의 수를 맞추기 위해 뜻이 없는 음절 조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⁵⁰⁾

그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詩經』의 시구 속에는 4言句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음조를 고르는 역할을 하는 助詞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崔琴玉 또한 『詩經』의 4言句는 다시 上下의 2言句로 나누어지는데 적절한 造句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흔히 뚜렷한 의미 기능 없이 사용되는 虛詞를 사용하는데 이 글자들은 다만 음절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 쓰인 것⁵¹⁾이라고 하였다.

필자 역시 崔琴玉의 견해에 一面 동의하지만 助詞는 실사 의미가 없을 뿐이지 분명히 다양한 어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단지 4言句를 채우기 위해서만 助詞를 보충했다는 것으로는 『詩經』 助詞의 존재이유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助詞를 넣음으로써 5言句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50) 易孟淳, 『先秦語法』, 湖北教育出版社, 1989年, 382-383쪽.

51) 崔琴玉, 「現代樂賦詩의 句法研究」, 『中語中文學研究』, 學古房, 1990年, 25쪽.

- (1) 無非無儀 唯酒食是議 無父母詒罹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없이, 오직 술과 음식 잘 만들 생각만 하니, 부모 걱정 끼치는 일 하지 않겠네. (小雅·斯干)
- (2) 哀哉不能言 匪舌是出 維躬是瘁 슬프다 말못함이어! 혀로 다 말하지 못하니 몸만이 병이 드네. (小雅·雨無正)
- (3) 維邇言是聽 維邇言是爭 오직 경박한 말만 듣고 경박한 말을 다투고 있네 (小雅·小旻)

위의 예문 (1)의 ‘唯酒食是議’에서 목적어는 ‘酒食’, 술어는 ‘議’인데, 따라서 ‘唯酒食是議’는 즉 ‘唯議酒食’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是’는 따로 번역되지는 않지만, ‘是’는 『詩經』에서 술어의 앞에 자주 놓이고 있다.⁵²⁾ 이는 代詞의 ‘是’가 조사로引伸되어 뒤의 동사 술어를 ‘議’를 강조하고 있는 형식이며⁵³⁾ 이러한 격식은 현대 중국어의 成語 ‘唯你是問’, ‘唯利是圖’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詩經』의 助詞는 단순히 4言句를 채우기 위한 음절 조절의 기능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며, 語氣와 관계있는 역할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자는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를 음성으로 방출하여, 타인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나아가 이를 문자로 부호화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자를 읽을 때에는 위의 과정과는 달리 먼저 문자의 형태를 본 뒤에야 그 음을 讀出하여 비로소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語音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듯이 字形 역시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字義를 이해함에 있어 字形을 뛰어넘어 항상 語音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또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각 지방의 구어를 반영하고 있는 노래인 『詩經』에서는 그 語音 형식이 더욱 중요하다.

『詩經』은 운문으로 기본적으로 감정의 표출을 중시하고 음절의 조화를 중시하므로 음절을 채우고 어기를 표현할 수 있는 助詞가 매우 발달하였다. 『詩經』이 지어진 연대를 보면 서주초기에서 춘추중엽까지 전후 500여년에 이르는 시대성을 가지고 있고 삼백 편 중 특히 15國風은 대부분 지방의 민간 가요라는 지역성을 가지면서 『詩經』의 초기 형태는 지방의 口語를 반영하고 있었다.

52) 예를 들어 다음의 예문에서도 그러하다.

秉國之均 四方是維 나라를 고루 다스렸다면 온 세상을 잘 유지하였을 텐데 (小雅·節彼南山)
申伯之功 召伯是營 신백의 일을 소백이 맡아 보셨네 (大雅·崧高)

53) 이는 Ⅲ章. 어기조사 및 Ⅳ章. 조사의 발생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러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詩經』에 나타난 助詞는 매우 많고 고대하여 助詞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조사에는 어떤 글자들이 있는가? 『詩經』 조사에는 다양한 글자들이 나타나는데 張仁明⁵⁴⁾, 牟玉華⁵⁵⁾의 『詩經』 조사연구와 向熹의 『詩經詞典』을 참고하여 살펴본 『詩經』에 사용된 助詞의 글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助詞	風	雅	頌	全文
1	侯	0	12	6	18
2	抑	4	0	0	4
3	無	0	2	0	2
4	云	12	8	0	20
5	伊	8	0	11	19
6	式	4	37	2	43
7	誕	0	9	0	9
8	載	24	46	7	77
9	亦	21	23	4	48
10	聿	3	8	0	11
11	通	0	4	0	4
12	逝	3	1	0	4
13	爰	1	8	0	9
14	有	34	62	20	116
15	薄	3	3	3	9
16	言	28	28	3	59
17	乎	0	2	0	2
18	則	3	6	0	9
19	居	5	3	0	8
20	諸	5	0	0	5
21	不	0	9	1	10
22	或	0	1	0	1
23	斯	10	24	1	35
24	其	74	19	4	97
25	之	225	230	40	495
26	生	0	2	1	3

54) 張仁明, 「『詩經』中的補音助詞研究」, 『畢節師專學報』, 1995年, 第4期, 43쪽.

55) 牟玉華, 「『詩經』補字研究」, 『樂山師範學院學報』, 2004年, 第6期, 48-49쪽.

27	而	9	0	0	9
28	只	8	16	0	24
29	且	7	1	0	8
30	思	7	18	13	38
31	止	20	52	13	85
32	忌	8	0	0	8
33	也	77	11	2	90
34	焉	13	8	0	21
35	兮	310	40	3	353
36	攸	0	24	1	25
37	于	10	10	5	25
38	胥	0	3	0	3
39	維	28	174	29	231
40	與	0	0	3	3
41	所	111	22	3	36
42	矣	73	133	4	210
43	以	11	0	0	11
44	者	11	21	0	32
45	越	1	0	0	1
46	哉	29	18	3	50
47	猗	2	0	0	2
48	若	2	4	0	6
49	茲	0	1	0	1
50	期	0	1	0	1
51	夷	0	2	0	2
52	曰	6	24	2	32
53	是	1	21	10	32
54	員	1	0	0	1
55	來	1	15	4	20
56	爾	0	0	1	1
57	旃	6	0	0	6
58	噫	2	0	0	2
59	如	2	0	0	2
60	然	1	4	0	5
총계		1,124	1,170	199	2,493

위의 표는 『詩經』의 風, 雅, 頌에 각각 나타난 조사와 그 출현횟수이다. 1번부

터 36번까지는 張仁明, 牟玉華가 공통으로 분류한 부분이며, 37번부터 54번까지는 張仁明이 분류하였으며, 55번부터 60번까지는 필자가 첨가한 부분이다. 출현횟수는 向熹 『詩經詞典』의 風, 雅, 頌에 나타난 출현횟수를 참고하였다.

위의 표에 따르면 전체 조사 개수는 60字이며 총 2,493차례 나타난다. 그 國風에 나타난 조사는 46개이며 1,124번 사용되었고, 雅에 나타난 조사 역시 46개이며 1,170번 출현하였다. 頌에는 27개 조사가 나타났고 모두 199번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詩經』의 대부분의 조사는 國風과 雅에 집중되어 있고 頌에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詩經』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조사는 ‘之’로 495번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兮’가 353번 사용되었으며 ‘或’, ‘越’, ‘茲’, ‘期’, ‘員’, ‘爾’는 각각 1번씩 사용되었다.

그러면 앞 章에서의 조사 분류를 토대로 위의 『詩經』 조사를 각각 구조조사, 어기조사, 보음조사로 구분하여 각 조사의 어법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構造 助詞

구조조사는 문장이나 구, 단어의 범위 안에서 작용하며, 어순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단어 또는 구의 뒤에 붙어서 일정한 부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之’, ‘者’, ‘所’ 등이 있는데, 구조조사 ‘之’는 수식구조를 이루며 ‘者’와 ‘所’는 반드시 다른 단어나 구의 뒤나 앞에 붙어 명사구를 이루어 ‘~하는 사람’, ‘~하는 물건’, ‘~하는 일’ 등의 뜻을 가지며 者字句, 所字句라고도 불린다.

『詩經』에서 구조조사가 句를 구성하는 경우는 명사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수식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1) 名詞句 構成

구조조사가 명사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단어의 앞이나 뒤에 놓인다. 『詩經』에서 명사구를 구성하는 助詞는 ‘所’, ‘者’, ‘彼’가 있다.

- ① 維此惠君 民人所瞻 도리를 따르는 임금은 백성들이 우러러 보네 (大雅·桑柔)
- ② 勿翦勿敗 召伯所憩 자르지도 꺾지도 말라 소백님이 쉬신 곳이니 (小雅·采芣)
- ③ 知我者 謂我心憂 나를 아는 이는 내 마음에 시름 있다 하네 (王風·黍離)
- ④ 彼譖人者 亦已大甚 저 남을 참해한 자여! 너무 심하게 하였네 (小雅·巷伯)
- ⑤ 風雨攸除 鳥鼠攸去 비바람이 막아지는 곳, 새와 쥐가 멀리 가는 곳이니 (小雅·斯干)
- ⑥ 豈弟君子 民之攸歸 화락하신 군자님은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시네 (大雅·洞酌)

‘所’와 ‘者’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명사구를 이루는데 ‘~하는 사람’, ‘~하는 것’, ‘~하는 곳’ 등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고대한어의 所字句, 者字句와 같으며 ‘所’는 주로 다른 단어의 앞에 놓이고 ‘者’는 뒤에 놓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詩經』 시기부터 사용되었음은 이러한 구조의 쓰임이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攸’는 대개 동사 앞에 놓여 명사구를 구성하는데 ‘攸’의 용법은 ‘所’와 비슷하며 대부분 동사 앞에 놓여 명사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⁵⁶⁾

2) 修飾句 構成

관형어와 그것이 수식하는 중심사 사이에 놓이며 수식구조를 이루는 관형어의 표지로 쓰인다. 관형어와 중심사의 관계는 현대 한어의 ‘的’에 해당한다.

『詩經』에 수식구를 구성하는 조사는 之, 斯, 者 등이 있다.

- ① 心之憂矣 涕既隕之 마음의 시름이여! 눈물만이 떨어지네 (小雅·小弁)
- ② 五月斯螽動股 六月莎雞振羽 오월의 여치는 다리를 비비며 울고, 유월의 베짚이는 날개를 비비며 우는데 (邠風·七月)
- ③ 彼姝者子 何以畀之 저 어진 양반은 무엇으로 답례를 할 건가? (鄘風·干旄)

위의 예문의 之, 者, 斯는 모두 수식구를 이루는 구조조사의 역할을 하는 助詞들이다. 『通釋』에서는 『論衡』에서 『詩經』의 구절 ‘彼姝者子 何以畀之’를 인용하여 ‘彼姝之子 何以與之라 하였다’고 하며 ‘之猶者也(之는 者와 같다)’라고 하였다.⁵⁷⁾ 구조조사 ‘斯’의 용법은 『詩經』에 14번 나타나는데 ‘五月斯螽’의 ‘斯’는 ‘之’

56) 何樂土, 『古代漢語虛詞詞典』, 語文出版社, 2006年, 526쪽.

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古漢語語法及其發展』에서도 ‘者’는 간혹 ‘之’로 쓰이기도 한다고 했는데 『太平廣記』 卷一을 인용하여 ‘去者處士第几? 往何處?’ (떠나는 處士가 몇 번째인가? 어디로 가는가?)라 하였다.⁵⁸⁾ 한편 ‘之’와 ‘者’는 聲母가 모두 照母로서 雙聲이 되고 있다.

2. 語氣助詞

語氣助詞는 문장의 어기를 나타내는 助詞이다. 그러면 어기란 무엇인가? 어법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語氣는 영어의 ‘mood’가 뜻하는 바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王力은 어기는 비록 어법상의 의미(예를 들어 결정, 의문, 반문, 과장 등)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영어로 번역한다면 emotional moods이며, 어기조사는 emotional particles로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⁹⁾

何容 역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기는 바로 영어의 moods인데, moods는 동사의 형태에서 찾아내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 변화가 나타내는 것은 그 말에 대한 화자의 심리태도⁶⁰⁾라고 하였다.

高名凱는 이것을 ‘式’이라고 하였으며 그는 ‘式’의 어법범주는 동작이나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용어는 라틴어의 ‘modus’에서 온 것으로 그 의미는 ‘方式’⁶¹⁾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어기는 화자의 심리태도,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기란 바로 현실관계에 대해 가지는 화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에는 사상에 대한 인식, 의지, 염원 등이 있으며, 감정적인 방면에서

57) 馬瑞辰, 『毛詩傳箋通釋』, 中華書局, 1989年, 190쪽.

58)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2001年, 485쪽.

59) 王力, 『中國語法理論』, 山東教育出版社, 1985年, 216쪽.

60) 何容, 『中國文法論』, 商務印書館, 1985年, 150쪽.

61) 高名凱 『語法理論』, 商務印書館, 1960年, 134쪽.

는 진술, 의문, 긍정, 부정, 가정, 추측, 명령, 감탄, 놀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간의 사상적 인식과 심리적 태도는 이렇듯 복잡다변하며 문장의 어기 범주 역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그 명칭, 정의, 종류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주장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黎錦熙는 어기 조사의 종류를 크게 5종류로 나누었고⁶²⁾ 王力은 12종류로 구분하였다.⁶³⁾

또한 廖振佑는 어기조사를 ‘語氣詞’라 칭하고 이는 문장의 어감을 표시하는 품사로서 어떤 책에서는 이를 ‘語末助詞’라고 부른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그는 현대한어에서는 문장의 어감을 ‘語氣詞’나 표점부호로 표현하고 있지만 고대한어에서는 각기 다른 어기조사로 이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고대한어의 어기조사는 바로 문장 속에서 표점부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는 또한 어기조사를 진술, 휴지, 의문, 반문, 추측, 기사, 감탄 등의 어기 조사로 구분하였다.⁶⁴⁾

郭錫良은 또한 어기조사는 문장의 성분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문장 성분 간의 관계도 표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 기능은 감탄, 의문 등 여러 가지 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의 위치에 따라 句首, 句中, 句末語氣詞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한어에서는 句首, 句中語氣詞는 존재하지 않으며 句末語氣詞는 지금까지 커다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한결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⁶⁵⁾

이렇듯 어기조사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데, 『詩經』의 어기조사를 살펴보면, 크게 단어와 문장의 어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앞 뒤 단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文頭와 文中에 나타나며, 문장 전체의 어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文末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기조사의 기능과 특징에 따라 그 위치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위치에 따른 분류는 기존의 어기의미 중심의 분류보다 어기조사의 성격과 특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술하였듯이 文頭, 文中에 나타나는 어기조사는 文末의 어기조사와는 다르게

62) 黎錦熙,는 어기 조사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1. 결정, 2. 논의, 3. 의문, 4. 경탄, 4. 기사(祈使). 黎錦熙, 商務印書館, 新著國語文法 1957年, 306쪽.

63) 王力은 어기 조사를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분류하였다. 1. 결정, 2. 표명, 3. 과장, 4. 의문, 5. 반문, 6. 가정, 7. 추측, 8. 기사, 9. 독촉, 10. 인내, 11. 불평, 12. 논리. 王力, 위의 책, 216쪽.

64) 廖振佑,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年, 205쪽.

65) 郭錫良, 『古代漢語』, 北京出版社, 1981年, 343쪽.

앞 뒤의 단어의 어기를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기조사를 각각 文頭, 文中, 文末에 놓이는 경우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어기조사는 文末에 놓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어기조사가 많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어기조사의 경우는 文末, 文中, 文頭の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文末에 놓이는 경우

보통 文末에 나타나는 어기조사는 그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다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의 어기 조사가 여러 어기를 가질 수 있다.

楊樹達에 따르면 ‘也’는 8개, ‘矣’는 7개, ‘焉’은 6개, ‘乎’는 5개, ‘與’는 3개, ‘哉’는 3개, ‘邪’는 5개의 어기 조사 용법을 가지고 있다. 즉 한 어기 조사는 여러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동일한 語氣가 여러 다양한 어기 조사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의문어기는 ‘乎’, ‘與’, ‘邪’를 사용할 수도 있고 ‘哉’, ‘夫’, ‘也’, ‘矣’, ‘焉’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판단어기에 ‘也’를 사용하거나 혹은 ‘矣’ ‘焉’ ‘耳’ ‘邪’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진술어기에 ‘矣’ 혹은 ‘也’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⁶⁶⁾ 그에 따르면 하나의 어기 조사가 여러 문형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동일한 어기에 여러 어기 조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기조사는 여러 문형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의 어기가 이렇게 다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기조사 ‘也’는 화자의 판단을 강조하는 조사로서, ‘也’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구에 사용될 경우라도 여전히 화자의 판단을 강조하는 어기조사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어기를 나타내는 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그것은 단지 어기조사만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어기란 문맥이나 어조, 혹은 문장 형식 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술의 어기는 문장의 형식 자체에서 결정된 것이며 따라서 ‘矣’를 없앤다고 해서 진술의 어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文末에 ‘矣’가 나타나면 진술의 어기가 더 강화되는 것이며, 만약 ‘也’가 온다면 진술의 어기에

66) 楊樹達, 『高等國文法』, 上海古籍出版社, 2007年, 368-406쪽.

다시 판단과 긍정의 어기가 더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기라는 것은 고유의 어기를 가진 조사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문맥이나 어조, 문장형식 등 다른 요소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⁶⁷⁾

『詩經』의 文末 어기조사는 진술, 의문(반문), 휴지, 추측, 염원, 금지, 감탄 등의 문장에서 본래의 어기를 더 강화하거나, 혹은 어기조사 고유의 어기를 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文末에 나타난 어기조사에 대해 문형을 중심으로 하여 각 문형에 어떠한 어기조사들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陳述

진술문에 나타나는 어기조사는 ‘矣’, ‘止’, ‘也’, ‘爾’ 등이 있으며 의견을 설명하고 사실을 서술하거나 상황을 묘사하는데 쓰인다.

- ① 鷄既鳴矣 朝既盈矣 닭이 우네요, 조정엔 대신들이 모였네요 (齊風·鷄鳴)
- ② 齊子歸止 其從如雲 제나라 임금딸이 시집을 가니, 따라가는 이 구름같네 (齊風·敝笱)
- ③ 爾還而入 我心易也 그대가 돌아들어오면 내 마음 가벼워지련만 (小雅·何人斯)
- ④ 噫嘻成王 既昭假爾 아아, 성왕님이어, 신이 밝게 강림하셨네 (頌·噫嘻)

裴學海는 『古書虛字集釋』에서 ‘止猶矣也’라 하였는데⁶⁸⁾ 본래 ‘止’는 足趾의 初文으로 사람의 발자국을 본뜬 형상이며 『古代漢語字典』을 보면 첫 번째 동사의 미로 止步, 停止의 의미가 있는데⁶⁹⁾ 이는 ‘止’의 인신의라 할 수 있다.

『說文』에 ‘矣, 語已詞也(그치는 것을 말하는 詞이다)’라 하였는데 ‘矣’는 이미 일어난 상황을 표시하는 글자이며 따라서 ‘止’와 ‘矣’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詩經』의 古注에 ‘止’를 ‘矣’로 주석한 예가 많은데 大雅·民勞篇의 ‘民亦勞止’를 『鄭箋』에는 今周民罷勞矣(이제 주나라의 백성들이 노역을 끝내니)라 주석하였고⁷⁰⁾ 小雅·楚茨篇에 ‘神具醉止’를 孔穎達은 神皆醉飽矣(신들이 모두

67) 郭錫良, 「先秦語氣詞新探(一)」, 『古漢語研究』, 1988年, 第1期, 53-54쪽.

68) 裴學海, 『古書虛字集釋』, 中華書局, 1982年, 778쪽.

69) 程孟輝, 『古代漢語字典』, 常務印書館, 2005年, 1053쪽.

취하고 배불렀으니)라 하였다.⁷¹⁾ 이는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어기로 ‘止’와 ‘矣’를 비슷하게 보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爾’는 ‘語氣詞’로 긍정을 표시하며 『詩經詞典』에 ‘矣’에 해당한다⁷²⁾고 하였는데, 『古漢語虛詞』에서는 ‘爾’는 어떤 경우에 ‘也’ 혹은 ‘矣’로 사용된다고 하였다.⁷³⁾

(2) 疑問, 反問

의문과 반문에 나타나는 어기조사에는 ‘焉’, ‘斯’, ‘哉’, ‘矣’, ‘止’ 등이 있는데 의문문은 화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심이 있어 묻는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비나 선택, 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나뉜다.

반어문은 화자가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 순수한 의문의 의미는 없고, 잘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물어보는 것으로 의문과 달리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의문의 방식으로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한 부정 또는 긍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약 반어의 문장 속에 부정의 말이 없으면 그 문장의 의미는 부정을 나타내고, 그 문장 속에 부정의 말이 있으면 그 문장의 의미는 긍정을 나타낸다. 자신의 뜻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반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 어기를 가중시켜 더 강하게 말하기 위한 것이다.

- ① 有苑者柳 不尙息焉 무성한 버드나무 밑에서 쉬기 바라지 않는가? (小雅·菀柳)
- ② 旣曰告之 曷又鞠止 이미 고하고 데려간 것을 어째서 또 괴롭히는가? (齊風·南山)
- ③ 彼何人斯 居河之麋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황하 물가에 살며 (小雅·巧言)
- ④ 天實爲之 謂之何哉 하늘이 하시는 일이니 일러 무엇하리 (邶風·北門)
- ⑤ 侯誰在矣 張仲孝友 벗 중에는 누가 있노? 효도와 우애에 뛰어난 장중이 있네. (小雅·六月)

70)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1180쪽.

71) 孔穎達, 위의 책, 1008쪽.

72) 向 熹,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年, 135쪽.

73)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年, 34쪽.

위의 어기조사 ‘焉’, ‘斯’, ‘哉’, ‘矣’, ‘止’는 모두 의문이나 반어문에 나타나는데 의문문을 만드는 것은 위의 어기조사 때문이 아니라 의문대사 ‘曷’, ‘何’, ‘誰’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의 문장에서 어기조사를 모두 없애도 의문문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어기조사들은 반어문이나 의문문에서 각자 고유의 어기색채를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休止

휴지에 나타나는 어기 조사에는 ‘也’, ‘者’, ‘焉’, ‘矣’, ‘兮’ 등이 있으며 문장의 중간에 쓰여 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잠시 쉴 때 나타나는 조사이다. 이러한 조사들은 문장의 주어나 부사어 뒤, 혹은 복문 중의 앞 절에 놓인다.

- ① 士也罔極 二三其德 남자란 믿을 수 없는 것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네 (衛風·氓)
- ② 始者不如今 云不我可 처음에는 지금 같지 않았는데 나를 좋다고 하지 않네 (小雅·何人斯)
- ③ 所謂伊人 於焉逍遙 바로 저 사람이 이곳에서 노닐도록 하리라 (小雅·白駒)
- ④ 漢之廣矣 不可泳思 한수는 넓어서 헤엄쳐 갈수 없고 (國風·漢廣)
- ⑤ 父兮母兮 畜我不卒 아버님! 어머님! 그이는 끝내 나를 좋아하지 않네요 (邶風·日月)

休止에 흔히 나타나는 어기조사중 대표적인 것으로 ‘者’와 ‘也’가 있다.

廖振佑에 따르면 이 두 어기 조사의 작용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者’는 주어 뒤에 놓여 주어를 제시하고 잠시 쉬는 것으로, 다시 말해 주어를 제시한 뒤에 휴지를 나타내는 데, 독자나 청자가 뒤에 가한 해석 또는 설명에 주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也’는 보통 주어 뒤에 쓰여 잠시 쉬고 지연시키는 것을 나타내는데, 느린 어조로 지연시키기 위한 휴지로서 어구의 감정 색채를 더 보태는데 쓰여진다고 하였다. 그는 이 외에도 焉, 矣, 兮, 邪 등도 휴지에 나타나는 어기조사로 잠시 쉬고 지연시키는 것을 나타내는데 소리를 늦추어 끌고, 어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기 조사들은 ‘也’에 해당하며 ‘兮’는 비교적 특수한 어기조사로 매우 깊은 방언 색채를 띤다고 하였다.⁷⁴⁾

그러나 廖振佑의 설명처럼 ‘者’와 ‘也’에 처음부터 그러한 어기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者’와 ‘也’가 휴지의 어기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시 문장에서의 위치(예를 들어, 주어 뒤에 놓이는 것) 때문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면서 그러한 休止의 역할을 하는 전용 어기조사처럼 보이는 것이다. 즉 ‘者’와 ‘也’는 文中에 있든, 文末에 있든 그 고유의 어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命令, 禁止

命令, 禁止의 문장에 쓰이는 어기 조사는 ‘焉’, ‘哉’, ‘兮’, ‘也’, ‘矣’ 등이 있다.

- ① 振振君子 歸哉歸哉 느름한 우리님이여 어서 돌아오소서 (召南·殷其雷)
- ② 上帝甚蹈 無者曠焉 하나님은 매우 엄하시니 스스로 나쁜 짓하지 말게. (小雅·菀柳)
- ③ 無我惡兮 不寔故也 나를 싫어 마시고 옛정을 버리지 마세요. (鄭風·遵大路)
- ④ 無易由言 無曰苟矣 가벼이 말하지 말고 함부로 지껄이지 말기를 (大雅·抑)

예문 (1)의 歸哉歸哉에서 ‘哉’는 청유의 어기에 나타나며 나머지 예문 (2)~(4)는 금지의 어기에 나타나고 있다. 廖振佑는 ‘也’는 현대 중국어의 ‘吧’로 옮길 수 있으며 ‘矣’는 현대 중국어의 ‘啦’로 옮길 수 있다고 하였다.⁷⁵⁾

위의 예문에서 청유, 명령 등의 문장의 어기는 문맥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焉’, ‘哉’, ‘兮’, ‘也’, ‘矣’는 문맥에서 결정된 어기를 강화하거나, 혹은 청유문과 명령문에 나름의 어기 색채를 더하고 있다.

(5) 感歎

감탄문에 나타나는 어기 조사에는 ‘哉’, ‘兮’, ‘乎’, ‘居’, ‘諸’, ‘猗’, ‘與’, ‘只’, ‘旃’, ‘且’ 등이 있으며 連用된 조사에는 ‘也哉’, ‘焉哉’, ‘也且’, ‘只且’, ‘乎而’ 등이

74) 廖振佑,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年, 210-213쪽.

75) 廖振佑, 위의 책, 218쪽.

있다. 이러한 어기 조사는 화자가 어떤 일에 감탄하거나 개탄하는 문장에 나타나는데,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詩歌의 특성상 『詩經』에는 감탄문에 나타나는 어기 조사가 많은 편이며 다른 어기조사와 달리 조사가 連用되어 강렬한 감정 색채를 더 강화하기도 한다.

- ① 於乎悠哉 朕未有艾 아아, 그 길은 아득하기만 하여 나는 이르지 못하고 있네
(頌 · 訪落)
- ② 于嗟關兮 不我活兮 아아 그런데 이별하여 우리 함께 못살게 되었나니!
(邶風 · 擊鼓)
- ③ 于嗟乎 不承權輿 아아! 처음과는 달라지셨구나
(秦風 · 權輿)
- ④ 日居月諸 胡迭而微 해야! 달아! 어째서 번갈아 이지러지느냐
(邶風 · 柏舟)
- ⑤ 河水清且直猶 황하물만 맑고 평평히 흐르네!
(魏風 · 伐檀)
- ⑥ 母也天只 不諒人只 어머니은 하늘 같으신 분 저를 몰라 주시나이까!
(鄘風 · 柏舟)
- ⑦ 舍旒舍旒 苟亦無然 남의 말은 내버려 두소! 또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唐風 · 采芣)
- ⑧ 猗與 那與 置我鞀鼓 굉장하기도 해라, 자루 달린 북 큰 북 벌여놓고
(頌 · 那)
- ⑨ 顏如渥丹 其君也哉 얼굴은 붉은 물 들인듯하니 정말 우리 임금일세
(秦風 · 終南)
- ⑩ 反是不思 亦已焉哉 바뀔 줄은 생각도 않았는데 이제는 끝장이 났는가!
(衛風 · 氓)
- ⑪ 不見子都 乃見狂且 만나기 전에는 미남이라더니 만나 보니 미친 못난 녀석이네.
(鄭風 · 山有扶蘇)
- ⑫ 豈無他士 狂童之狂也且 세상에 남자가 그대뿐일까? 미친 놈, 미친 것만 하는구나!
(鄭風 · 褰裳)
- ⑬ 其虛其邪 既亟只且 어이 우물쭈물하라! 빨리 떠나야지
(邶風 · 北風)
- ⑭ 俟我於著乎而 充耳以素 나를 문간에서 기다리셨는데 귀막이는 흰 실끈이네
(齊風 · 著)

예문 ④의 ‘日居月諸’는 『毛傳』에서 ‘日乎月乎’라 하였는데 이를 두고 『孔疏』에서는 ‘不言居諸也(居와 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禮記』檀弓篇과 『左傳』을 인용하며 ‘居諸皆不爲義也(居와 諸는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다.⁷⁶⁾

76)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625쪽.

예문 ⑤에서 朱熹는 ‘猗，與兮同，語詞也(猗는兮와 같으니語詞이다)’라 하였다.⁷⁷⁾ 向熹는 또한 ‘母也天只不諒人只’의 ‘只’는 현대한어의 ‘啊’와 같다고 하였다.⁷⁸⁾

예문 ⑦의 ‘旃’은 『詩經詞典』에 ‘之焉’의 습聲으로 風에 6차례 나타나고 있다.⁷⁹⁾ 『古漢語虛詞』에 따르면 ‘旃’은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사로 ‘之’와 같으며 다른 하나는 일종의 兼詞로 ‘之焉’의 습音字라 하였다. 즉 ‘之’는 代詞이고 ‘焉’은 어기조사이다. 그는 鄭玄의 설을 따라 ‘舍旃舍旃’을 ‘舍之焉 舍之焉’이라 하였는데 이는 현대한어로 해석하면 ‘不管他罷，不管他罷’이다. ‘之’와 ‘旃’은 고대에 聲紐가 같고 ‘焉’과 ‘旃’은 고대에 韻部가 같다고 하였다.⁸⁰⁾

칼그렌은 또한 '乃見狂且'에서 ‘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 毛傳: 且(tsjo/tsjwo/tsü), 辭也. 이와 같이 볼 경우, 전체 구절은 “나는 미친 (이름) 보았네(我看见狂(人))”라 해석할 수 있다.

B. 馬瑞辰은 ‘狂且’는 다음 단락의 ‘狡童’과 비슷한 경우로, ‘且’가 語助詞로 쓰였을 리 없으며, 분명히 ‘且’(ts'jo/ts'jwo/ts'ü)의 가차자라고 여겼고, ‘且’는 說文에서 ‘拙’로 훈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체 문장은 “나는 이 미치고 둔한 (이름) 보았네(我看见这个狂而拙(的人))”라 해석할 수 있다.

‘且’자가 문장 끝에 助詞로 쓰이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따라서 A의 견해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褰裳篇에 유사한 구절 “狂童之狂也且”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也’자는 ‘且’앞에 쓰이고 있으며, ‘也且’ 또한 전체 문장의 끝에 쓰이고 있으니, ‘且’는 그저 어기조사임을 알 수 있다.⁸¹⁾

그에 따르면 ‘且’는 문장 끝에서 어기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且’는 ‘且’의 가차자가 아니라 어기조사라고 하였으며 『毛傳』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 결국 『詩經』에서 문장 끝의 ‘且’는 어기조사로 문맥에서 감탄의 어기를 더 강화하고 있다.

77) 朱熹, 『詩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07年, 76쪽.

78) 向熹, 『詩經言語研究』, 四川人民出版社, 1987年, 904쪽.

79) 向熹,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年, 877쪽.

80)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年, 333쪽.

81) 董同龢 譯, 『高本漢詩經注釋』, 中華叢書, 1960年, 233-234쪽.

한편 고대 한어의 어기조사는 종종 두세 개가 연이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廖振佑는 이러한 경우 각각의 ‘語氣詞’는 서로 다른 어기를 나타내며, 다만 어기의 중점은 가장 뒤의 어기에 있다고 하였다.⁸²⁾

예를 들어 ‘豈非計久長，有子孫相繼爲王也哉?’(어찌 멀리 보고 계획한 것은 아닐진대, 자손 대대로 서로 이어가며 (연나라의) 왕이 되겠는가?)(『戰國策·趙策』)에서 ‘也哉’의 ‘也’는 긍정의 진술문에 많이 나타나며 ‘哉’는 의문, 반어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어기의 중점은 ‘哉’에 있다.

세 개의 어기조사가 연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聖人治國也，審壹而已矣’(성인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하나로 통일시킬 것을 살필 따름이다)(『商君書·賞刑』)에서 ‘而已’는 서술의 어기조사로 제한을 나타내는 문장에 나타나며 ‘矣’도 진술 어기조사로 긍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보이는데 어기의 중점은 ‘矣’에 있다.

黃六平 역시 조사가 연용된 경우 그 중점은 마지막 글자에 있다고 하였는데 馬建忠의 말을 인용하여 助字가 한 문장에서 중첩 사용된 경우는 각각 그 本義가 서로 더해지는 것일 뿐 두 세 글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⁸³⁾ 馬建忠이 말한 助字는 바로 어기조사를 이르는 것이며 그가 말한 本義는 문자학에서 말하는 本義가 아니라 어기조사가 나타내는 각각의 어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乎而’의 조사 연용은 『詩經』에서 유일하게 齊風의 著篇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출가한 여자가 시집을 때의 일을 되새기며 신랑이 親迎의 禮를 따라 신부를 기다린 상황을 회상한 것이다. ‘乎而’에 대해 向熹는 『漢書·韋賢傳』 顏師古注를 인용하여 ‘而字，絕句之詞’(‘而’는 문장을 끊어주는 단어이다)라 하였다.⁸⁴⁾

따라서 어기조사의 연용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때, 『詩經』에 연용된 어기조사 ‘也哉’, ‘焉哉’, ‘也且’, ‘只且’, ‘乎而’는 각각의 어기 색채가 모여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며, 그 감정 색채가 서로 더해지는 것으로, 그 어기의 중점은 마지막 글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2) 廖振佑,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年, 333-336쪽.

83)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華正書局, 1981年, 281쪽.

84) 向熹,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年, 237쪽.

2) 文中에 놓이는 경우

周秉均은 다른 학자들에 비해, 조사에 대한 많은 예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詩經』 뿐 아니라 『史記』, 『孟子』, 『戰國策』, 『左傳』 등 많은 전적들에 나타나는 조사를 자세히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른 어떤 어법서보다 『詩經』의 예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詩經』에서 사용된 조사로 ‘其’, ‘焉’, ‘而’, ‘若’, ‘有’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사를 구조조사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은 구조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실사의 앞 뒤에 놓여 그 실사의 어기를 더 강화해주는 측면이 더 많다.

『詩經』에서 이러한 어기조사들은 대부분 문장의 중간이나 앞에 나타나는데, 본래 실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허사로 활용되었지만 그 의미정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앞 뒤 실사의 어기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조사와 실사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詩經』의 조사가 실사에서 어떻게 조사로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文中의 어기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데, 어기조사 ‘其’의 용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사들 가운데 특히 ‘其’는 『詩經』에서의 용례가 풍부하여 다른 실사, 허사⁸⁵⁾와의 어법적 관계를 설명하기가

85) 그러나 허실사의 경계구분은 매우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진충은 《馬氏文通》「正名」篇에 무릇 풀이가 가능한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實詞라 하고, 풀이할 수 없으며 단지 實詞의 상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虛詞라고 하는데, 實詞는 다섯 종류가 있고 虛詞는 네 종류가 있다. (凡字有事理可解者, 曰實字, 無解而惟助實字之情態者, 曰虛字. 實字之類五, 虛字之類四)고 정의 내렸다.

그는 실사, 허사를 각각 實字, 虛字라고 칭하며, 實詞를 名字, 代字, 靜字, 動字, 狀字 등 5개 품사와, 허사를 介字, 連字, 助字, 歎字 등 4개의 품사로 나누고, 해석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실사라 하고, 해석할 수 없으며 단지 실사의 상태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허사라 하였다. 黃六平은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詞를 실사라 하고 어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詞를 허사라 하였으며 周秉均은 일반적으로 실제적 의미가 있는 품사를 실사라 하고 실제적 의미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실사의 의미를 돕거나 어법관계를 표시하는 품사를 허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실사는 실제적이고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허사는 실제적, 어휘적 의미 없이 실사의 의미를 돕거나 어법관계를 표시하는 詞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실제적, 어휘적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그 명칭과 구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마진충은 부사를 狀字라고 하면서 실사에 넣어 다루었으나, 黎錦熙, 朱德熙 등은 허사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陳望道, 黃伯營 등은 실사에 귀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중요한 의거는 부사는 문장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5년 왕력이 《中國現代語法》에서 부사는 “단지 정도와 범위, 시간, 가능성 및 부정을 표시할

쉽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詩經』의 실사 ‘其’는 대부분 지시대사로 사용되며 대부분 遠指를 나타낸다. 지시대사의 ‘其’는 文頭나 文中에 쓰여 뒤의 명사를 수식하고 관형어가 된다. 다음은 ‘其’가 지시대사로서 文頭, 文中에 쓰인 경우이다.

- ① 桑之未落 其葉沃若 뽕나무잎이 떨어지기 전엔 그 잎새가 싱싱하였네 (衛風 · 氓)
- ② 鴉鳩在桑 其子七兮 뽕나무에 앉았는데 그 새끼도 일곱 마리 (曹風 · 鴉鳩)
- ③ 仲氏任只 其心塞淵 중씨 부인은 믿음직하며 그 마음이 진실하고 깊고 (國風 · 燕燕)
- ④ 升彼大阜 從其羣醜 큰 언덕에 올라 그 짐승들을 뒤쫓네 (小雅 · 吉日)
- ⑤ 維鷦在梁 不濡其翼 어살에 있는 사다새는 그 날개를 적시지 않네 (曹風 · 候人)
- ⑥ 百歲之後 歸于其居 백년 뒤 그의 무덤에라도 함께 묻히리 (唐風 · 葛生)

위의 예문 중 ①~③까지는 文頭に 사용된 경우이다. ①에서 ‘其’는 桑을, ②에서 ‘其’는 鴉鳩를, ③에서는 其는 仲氏를 대신하고 있다.

④~⑥까지는 文中에 사용된 경우이다. ④에서 ‘其’는 禽獸를 가리키고 있으며, 예문 ⑤에서 ‘其’는 물새의 한 종류인 ‘鷦’를 가리키고, 예문 ⑥에서 ‘其居’는 그 앞 문장에서 ‘予美’의 墳墓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代詞의 ‘其’는 관형어로서 항상 명사나 명사구 앞에 오지만, 어떤 경우 형용사의 앞에 놓여 ‘其+ 형용사’ 형식을 이룬다.

여기에서 王引之는 『釋詞』에서 ‘其’는 사물을 형용하는 단어이며 먼저 사물을 말하고 나중에 그 모양을 말한다(其, 狀事之詞也, 有先言事而後言其狀者)⁸⁶⁾라고 하였다. 이는 문장에서 술어가 되며, 형용사는 대체로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뿐 단독으로는 실제 사물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순수한 實詞도 虛詞도 아닌 半實半虛에 속하며 문장 속에서는 단독으로 주어나 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부사의 허실귀속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는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미기준보다는 기능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는데 실사는 문장성분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반면에 虛詞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문장성분 또한 될 수 없으며 실사와 함께 쓰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문법적 의미에 그 기능이 있다고 하겠다.

86)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50쪽.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① 碩人其頎 衣錦褰衣 높으신 님은 흰칠하니 문채나는 홉옷을 입으셨네 (衛風·碩人)
- ② 北風其涼 雨雪其雱 북풍은 쌀쌀한데 눈이 펄펄 내린다 (邶風·北風)
- ③ 靜女其姝 俟我於城隅 아리따운 암전한 아가씨가 나를 성 모퉁이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네 (邶風·靜女)

이상의 예에서 ‘其’ 앞의 ‘人’, ‘風’, ‘女’는 명사 혹은 명사구로 주어이며 ‘其’ 다음의 ‘頎’, ‘涼’, ‘姝’는 단음절사로 모두 술어이다. 이러한 경우 ‘其’는 술어 앞에 놓여 ‘頎’, ‘涼’, ‘姝’의 의미를 더 강화해 주고 있다. 왕인지가 ‘其, 狀事之詞也’라 하였으나, ‘其’가 항상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만 놓이는 것은 아니며,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의 앞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其’는 술어 앞에 놓여 그 술어의 의미를 강화한다고 본다. ‘其’가 代詞에서 허화되었음을 볼 때 ‘其’가 강조하는 것은 ‘其’의 뒤에 나타나며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其’ 뿐 아니라 ‘斯’, ‘是’, ‘之’ 등도 마찬가지이다.

王引之는 또한 『釋詞』에서 ‘其’에 대해 또한 ‘먼저 그 모양을 말하고 나중에 그 사물을 말한다(有先言其狀而後言其事者)⁸⁷⁾’라고 하였다. 그가 예로 들었던 다음의 문장을 보자.

- ① 絺兮綌兮 淒其以風 (모시옷 베옷이라니 쌀쌀하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邶風·綠衣)
- ② 宛其死矣 他人是愉 (그대가 생기 없이 이렇게 죽어 버리면 다른 사람만 좋아할 것이네)
(唐風·山有樞)
- ③ 溱與洧 瀏其清矣 (진수와 유수는 깊고 이다지도 맑은데)
(鄭風·溱洧)

‘其’의 지시대사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는 다른 단어의 뒤가 아니라, 다른 단어의 앞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 ①~③에서 ‘其’는 각각 뒤의 ‘風’, ‘死’, ‘清’을 강조해주고 있다.

위의 예와 같이 『詩經』에서 다른 실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 어기를 강화하는

87)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50쪽.

조사로는 ‘其’, ‘斯’, ‘是’, ‘之’, ‘則’, ‘于’, ‘來’, ‘有’, ‘而’, ‘若’, ‘如’, ‘然’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들은 文末에 나타나지 않으며, 조사로 활용되기 이전의 실사의 의미와 관계된 조사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실사의 앞이나 뒤에 오며 그 실사의 의미를 강화하는데, 실사의 위치에 따라 이러한 어기조사들은 文頭나 文中에 나타날 수 있는데, 文頭보다 文中에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예문은 文中에 나타나는 어기조사의 경우이며 똑같이 文中에 나타나더라도 앞 뒤 실사를 강조하는 위치가 다르다. ‘其’, ‘斯’, ‘是’, ‘之’, ‘則’, ‘于’, ‘有’, ‘來’ 등은 다른 단어의 앞에서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으며, ‘而’, ‘若’, ‘如’, ‘然’ 등은 다른 단어의 뒤에서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1) 다른 단어의 앞에서 강조하는 경우

【有】

- ① 天監有周 昭假于下 하늘은 주나라를 둘러보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시어 (蕩·蒸民)
- ② 摽有梅 其實七兮 매실을 따니 그 열매 일곱 개이네 (召南·摽有梅)
- ③ 不我以歸 憂心有忡 우리를 둘러보내지 않으니 마음의 걱정 하염없어라 (國風·擊鼓)
- ④ 彤管有煒 說懌女美 빨간 피리 고운 것은 아가씨 아름다움을 좋아하기 때문이네 (邶風·靜女)

『毛傳』에서는 예문 ①에서 ‘有周, 周也’⁸⁸⁾라 하였는데, ‘有’를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허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有’는 대개 국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앞에 사용되나, 예문 ②처럼 보통 명사의 앞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有’ 뒤의 단어는 모두 단음절이다.

예문 ③의 ‘有忡’을 『毛傳』에서 ‘憂心忡忡然’⁸⁹⁾이라 하였고 이는 小雅 出車의 ‘憂心忡忡’과 그 형식이 비슷하다. 『毛傳』뿐 아니라 『鄭箋』, 『孔疏』에서도 자주 重言의 방식으로 주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重言의 표현은 上, 下文의 의미로 불

88)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1083쪽.

89) 孔穎達, 위의 책, 631쪽.

때 단순히 모습만을 형용한 것은 아니며 이것은 정도의 강함과 무거움을 같이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朱熹는 예문 ④ ‘彤管有煒’의 ‘有煒’를 ‘赤貌’⁹⁰⁾라고 주석하였는데 王力에 따르면 ‘貌’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이며 ‘貌’를 사용하여 주석되는 단어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貌’는 대략 현대한어의 ‘……的樣子’와 같다고 하였다.⁹¹⁾

따라서 ‘有’에 대한 여러 주석서들을 종합해 볼 때 重言의 형식이든 ‘~然’, ‘~貌’이든 모두 사물을 형용하는 의미이며 그 성질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어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古漢語語法及其發展』에서도 위와 같은 助詞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助詞들은 모두 『詩經』에 나타난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형용사 앞에 쓰여, 형용사를 重言하는 표지가 된다. 그들은 단음절 형용사와 결합한 후, 형용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며, 단음절 형용사를 重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문장에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술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助詞들에는 “思, 斯, 有, 其”가 있다. 그들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공식은 “助詞+ 형용사(단음절)”이며, 이는 “형용사+ 형용사”와 비슷하다. (這類助詞都出現在『詩經』中。它們一般都用于形容詞前，作為該形容詞重言的標志。也就是說，它與單音節形容詞結合之後，起着加強形容的作用，使單音節形容詞跟重言相當。這些形容詞有在句中作定語的，也有作謂語的。這類助詞有思、斯、有、其。它們與形容詞結合的公式如下：助詞+形(單音節)相當于形形。) ⁹²⁾

楊伯峻과 何樂士는 이러한 조사를 ‘重言助詞’라 하고 있는데⁹³⁾ 그러나 ‘重言’이라는 말 자체가 실사의 어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때, 이는 어기조사로 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들 조사 중 ‘思’⁹⁴⁾를 제외하고 ‘有’, ‘其’, ‘斯’를 文中에 나타나는 어기조사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90)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31쪽.

91) 王力, 『古代漢語』, 中華書局, 1962年, 616-167쪽.

9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2001年, 481쪽.

93) 단, 이러한 조사가 있는 단어는 대부분 문장에서 부사어나 술어가 되며, 관형어가 되지는 않는다.

94) ‘思’의 본래 실사의미에서 출발하여, 조사로서 어떻게 뒤의 술어를 강조하는지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어음과 관련한 보음조사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 其 】

- ① 擊鼓其鏜 踊躍用兵 북소리 등등등 울리면 무기 들고 뛰어 일어나니 (邶風·擊鼓)
- ② 我來自東 零雨其濛 동쪽에서 돌아올 때엔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렸었지 (邠風·東山)
- ③ 兄弟不知 咥其笑矣 형제들은 알지도 못하고 나를 보고 허허 그렇게 웃기만 했지 (衛風·氓)
- ④ 坎其擊鼓 宛丘之下 덩덩 그렇게 북을 치며宛丘 밑에서 놀고 있는데 (陳風·宛丘)

예문 ①의 ‘擊鼓其鏜’은 『毛傳』에 ‘鏜然，擊鼓聲也(등등거리며 북치는 소리이다)’⁹⁵⁾라 하였다.

錢小云은 ‘其’는 본래 지시대사이지만 助詞로 빌려 썼으며 그러나 그것의 지시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는 예문 ②의 ‘零雨其濛’은 ‘零雨那樣濛濛(보슬비가 그렇게 보슬보슬 내리네)’의 의미와 같다⁹⁶⁾고 하였다.

『鄭箋』에 “道遇雨，濛濛然”이라 하였는데⁹⁷⁾ ‘其’는 虛化되어 ‘其’를 따로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중첩하여 주석한 것으로 보아, 이는 뒤의 실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其’의 지시 용법이 조사로 활용된 것이며 뒤의 술어와 결합한 후, 그 의미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문 ③에서 ‘咥’은 웃는 모양이며 『毛傳』에서는 ‘咥咥然笑(허허 웃는다)’⁹⁸⁾라고 역시 중첩하여 주석하였으나 ‘其’는 ‘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며, 뒤의 ‘笑’를 강조하고 있다.

【 斯 】

- ① 朱芾斯皇 有瑋葱珩 주황색 앞가리개 밝게 빛나며, 파란 패옥은 잘랑거리네 (小雅·采芣)
- ② 婉兮變兮 季女斯飢 어리고 예쁜 소녀들이야 이렇게 굶주리는 수밖에 (國風·候人)
- ③ 王赫斯怒 爰整其旅 임금은 분연히 성내시고 군사들을 동원하였네 (大雅·皇矣)
- ④ 篤公劉 于京斯依 공류께서 京땅에 편히 기거하시며 (大雅·公劉)

95)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630쪽.

96) 錢小云, 『『詩經』助詞』,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79年, 第1期, 64쪽.

97) 孔穎達, 위의 책, 845쪽.

98) 孔穎達, 위의 책, 686쪽.

예문 ①의 ‘朱芾斯皇’은 『毛傳』에서 ‘皇, 猶煌煌也(빛나는 것이다)’⁹⁹⁾라 하였다. 王顯은 이러한 助詞들이 ‘重言의 기능을 한다’¹⁰⁰⁾고 하였는데 『毛傳』에서 ‘皇, 猶煌煌也’라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維號斯言(이러한 말을 부르짖다)’(小雅·節彼南山)처럼 ‘斯’는 명사 앞에 놓여 관형어를 이루는 지시 대사의 역할을 하였으나 위의 예문에서처럼 점차 지시대사의 역할이 미약해지며 문장에서 허사로 전화되어 갔다. 즉 ‘斯’의 지시대사의 성격이 虛化되어 일종의 습관적 용법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위의 예문을 보면 ‘斯’는 지시성이 약화되었지만 實詞로서의 의미 정보를 어느 정도 보존하며 뒤의 실사 의미를 강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于】

- ① 之子于歸, 宜其室家 아가씨 시집가서 그 집안을 화락하게 하네 (周南·桃夭)
- ② 維葉萋萋 黃鳥于飛 잎새는 무성하고 곤줄매기 날아다니다가 (周南·葛覃)
- ③ 之子于征 有聞無聲 우리 님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 행군이 조용하기만 하네 (小雅·車攻)
- ④ 叔于田 乘乘馬 숙이 사냥을 가는데 네 필 말이 끄는 수레를 탔네 (鄭風·叔于田)

위의 예문에서 助詞 ‘于’는 모두 술어의 앞에 붙어, 어떠한 실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단지 술어의 어기를 강화해 주고 있다.

『詩經』에서 이러한 ‘于+술어’ 용례를 살펴보면 모두 63차례가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于’ 뒤에 나타나는 술어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동의 의미가 강한 동사가 48차례나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의 ‘于’의 의미에 대하여 『毛傳』에서는 이를 ‘于, 往也’¹⁰¹⁾라 한 바 있다.

- 之子于歸, 宜其室家 아가씨 시집가서 그 집안을 화락하게 하네. (周南·桃夭)
- 維曰于仕 孔棘且殆 나도 벼슬을 하려 가지만 매우 위급한 처지이네 (小雅·雨無正)

99)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911쪽.

100) 王顯, 『詩經』中跟重言作用相当的有字式、其字式、斯字式、思字式, 『言語研究』, 1959年, 第4期.

101) 孔穎達, 위의 책, 587쪽.
孔穎達, 위의 책, 961쪽.

『毛傳』에서 ‘于’를 ‘往’의 의미로 본 것은 아마도 이러한 ‘于’ 뒤의 동사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于’ 뒤의 ‘歸’, ‘飛’, ‘征’, ‘田’ 등은 모두 이동의 의미가 강한 동작성 동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于’를 완전한 ‘往’의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실사 의미가 약화되면서 조사로 활용되어, 뒤에 오는 술어에 趨向의 의미를 강화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詩의 화자가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지 않다면 ‘于’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詩經』의 ‘之子歸’¹⁰²⁾ 구문이 그것인데 이 구문은 『國風·江有汜』에 3차례 나타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집을 가면서 나를 찾지 않으니 나에게 시집 오지 않으면 후회하리’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之子于歸’ 구문 대부분이 시집가는 모습을 전송하거나 축복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강조의 어기에 따라 얼마든지 ‘于’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是 】

- ① 匪先民是程 匪大猶是經 옛 분들을 본뜨는 것도 아니며, 위대한 도를 법으로 삼는 것도 아니요 (小雅·小旻)
- ② 謔浪笑敖 中心是悼 그이 함부로 농담하고 장난치니 내마음 슬퍼지네 (邶風·終風)
- ③ 宛其死矣 他人是愉 만약 그대가 죽어 버리면 딱 사람만 좋아하겠네 (唐風·山有樞)
- ④ 周公東征 四國是皇 주공의 동쪽 정벌은 온 세상 바로잡으셨으니 (豳風·破斧)

위의 예문에서 ‘是’는 술어의 앞에 놓여 있으며 ‘是’를 목적어 도치의 구조조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是’ 앞의 명사가 주체이든, 객체이든 관계없이 ‘是’는 ‘其’, ‘斯’, ‘之’처럼 모두 代詞에서 허화된 것으로 뒤의 술어 앞에 놓여 그 술어의

102) 江有汜 之子歸 不我以 不我以 其後也悔 (강수는 갈라져 흐르고 아가씨는 시집을 가는데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네) (國風·江有汜)
 江有渚 之子歸 不我與 不我與 其後也處 (강수 옆에 늪이 있고 아가씨는 시집을 가는데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네) (國風·江有汜)
 江有沔 之子歸 不我過 不我過 其嘯也歌 (강수는 굽이쳐 흐르고 아가씨는 시집가는데 내게 들리지도 않네) (國風·江有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목적어가 前置된 것이며, ‘是’를 목적어 도치의 구조조사로 볼 수 없다.

예문 ④의 ‘是皇’의 ‘皇’은 『毛傳』에 ‘皇, 匡也’라 하였다. 해석하면 ‘사방 제후의 나라들을 바로잡았네’의 뜻이다. 이는 『爾雅』의 ‘皇匡, 正也’에 근거한 것이다.

【來】

- ① 征伐玁狁 蠻荊來威 험윤 오랑캐도 정벌하시더니 형 땅의 오랑캐도 굴복시키셨네 (小雅·采芣)
- ② 是用作歌 將母來諗 이에 노래를 지어 어머니를 그리네 (小雅·四牡)
- ③ 公尸燕飲 福祿來爲 임금의 시동이 잔치하여 마시니 복록이 이루어지네 (大雅·鳧鷖)
- ④ 公尸燕飲 福祿來下 임금의 시동이 잔치하여 마시니 복록이 내려오네 (上同)
- ⑤ 彼交匪敖 萬福來求 그 사귀이 겸손하니, 萬福을 구하네 (小雅·桑扈)

위에서 ‘來’가 나타나는 문형을 보면 모두 ‘명사+來+동사’ 구문을 이루고 있다. 周秉均은 ‘來’를 ‘목적어+동사’의 도치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사로 보았다.¹⁰³⁾ 그러나 앞의 명사가 항상 목적어인 것만은 아니며 예문 ④처럼 명사가 주동자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來’를 ‘목적어+동사’의 도치구조를 만드는 전용 구조조사로 볼 수는 없으며 ‘來’는 ‘于’처럼 실사 의미로부터 조사로 허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趨向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조사이며, 이는 술어 앞에서 趨向의 어기를 더 강화해 주는 경우가 많다.

【之】

- ① 日之夕矣 羊牛下來 날이 저물어 소와 양도 돌아왔는데 (王風·君子于役)
- ② 桑之落矣 其黃而隕 뽕나무 잎이 시들어서 누렇게 떨어졌네 (衛風·氓)
- ③ 鶉之奔奔 鵲之疆疆 메추리도 쌍쌍이 날고 까치도 짝지어 노는데 (鄘風·鶉之奔奔)
- ④ 匪女之爲美 美人之貽 띠풀이 예쁜 것이 아니라 고운 님의 선물이라 예쁜 거지 (邶風·靜女)

위의 예문에서 ‘之’ 역시 술어 앞에 놓여 술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03) 周秉鈞, 『古代漢語綱要』, 湖南教育出版社, 1981年, 404쪽.

楊伯峻은 이러한 경우에 ‘之’가 주어와 술어 사이에 놓여 하나의 절을 이루고 있으며,¹⁰⁴⁾ 혹은 예문 ④처럼 ‘女之爲美’는 본래 ‘女爲美’로서 이미 문장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주어와 술어 사이에 ‘之’를 넣음으로서, 동시에 ‘匪’의 목적어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주술구로 만드는 구조조사라 하였다. 고대 학자들 역시 이러한 조사들을 비슷하게 주석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① 乃及王季 維德之行 왕계님과 함께 덕을 행하셨네 (大雅·大明)
- ② 赫赫南仲 玁狁于襄 혁혁하신 남중은 험운 오랑캐들을 쳐 없앨 걸세 (小雅·出車)
- ③ 日居月諸 下土是冒 해와 달이여! 땅을 덮어 주고 있네 (邶風·日月)
- ④ 彼交匪敖 萬福來求 사귄데 교만하지 않으시니 만복이 모여드네 (小雅·桑扈)

王引之는 ‘玁狁于襄’에서 ‘于, 猶是也’라 하였는데¹⁰⁵⁾ 그는 ‘是’로서 ‘于’를 주석하였다. 이는 ‘于’를 ‘是’와 같은 도치의 구조조사로 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楊樹達은 『詞詮』 ‘來’字條에서 ‘賓語倒置時用之’(목적어를 도치할 때 이 글자를 사용한다)라 하였는데¹⁰⁶⁾ 馬瑞辰 역시 『通釋』에 ‘來, 詞之是也(‘之’, ‘是’와 같은 詞이다)’라 하였다.

어법 구조로 보면 이 조사들은 술어 앞에 놓이고, 목적어를 전치시키며 어떤 구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之’가 술어 앞에 놓이고, 앞의 명사는 주체이므로 주술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之’는 주술구를 만드는 구조조사가 아니다.

‘于’, ‘來’, ‘之’, ‘是’는 모두 술어의 앞에 놓여 술어의 어기를 강화하는 어기조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목적어가 前置될 수 있는 것이며, ‘于’, ‘來’, ‘之’, ‘是’ 등을 목적어를 도치시키는 전용조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기조사 ‘之’의 역할은 ‘于’, ‘是’, ‘其’, ‘斯’, ‘來’ 등과 함께 그 실사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이는 IV章에서 조사의 發生과 관련하여 다시 살펴볼 것이다.

10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年, 349쪽.

105)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15쪽.

106) 楊樹達, 『詞詮』,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69쪽.

【 則 】

- ① 匪鷄則鳴 蒼蠅之聲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쉬파리 소리가 아니요? (齊風·鷄鳴)
- ② 曰予不戕 禮則然矣 자기가 해친 것이 아니라 예가 그렇게 만들었다네
(小雅·十月之交)
- ③ 俾立室家 其繩則直 집을 세우게 하니 그 먹줄은 곧고 (大雅·綿)
- ④ 亦既覯止 我心則降 만나게만 된다면 이마음 놓이련만 (召南·草蟲)

向熹는 『詩經詞典』에서 ‘匪鷄則鳴’의 ‘則’ 역시 ‘之’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⁰⁷⁾ ‘則’과 ‘之’의 語音을 살펴보면 韻部가 職部, 之部인데, 주요모음이 /-ə-/로서 서로 어음적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則’은 ‘之’와 가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之’처럼 술어 앞에 놓여 술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다른 단어의 뒤에서 강조하는 경우

- ① 桑之未落 其葉沃若 뽕나무잎이 시들기 전엔 그 잎새가 싱싱하였느니 (國風·氓)
- ② 舒而脫脫兮 無感我帨兮 가만가만 천천히 내 행주치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國風·野有死麕)
- ③ 南有嘉魚 烝然罩罩 남녘엔 좋은 고기들이 득실득실 팔딱이네 (小雅·南有嘉魚)
- ④ 叔兮伯兮 褻如充耳 위나라 대부들은 웃으면서 귀를 막고 있는가! (國風·旄丘)

陳奐의 『傳疏』에서 ‘舒而猶舒如, 舒然. 而, 如, 然一語之轉(‘舒而’는 ‘舒如’, ‘舒然’와 같다. 而, 如, 然是 같은 말을 돌아가며 쓰는 것이다)’이라고 하였다.¹⁰⁸⁾

錢小云은 또한 ‘而’, ‘若’, ‘如’, ‘然’은 대부분 부사어나 술어로 쓰이며 관형어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네 글자는 서로 음이 가깝고 뜻이 통하니 分명 來源이 같다고 하였다.¹⁰⁹⁾

위의 예문에서 ‘若’, ‘而’, ‘然’, ‘如’는 모두 앞의 단어 ‘沃’, ‘舒’, ‘烝’, ‘褻’의 뒤에서 술어나 부사어가 되고 있다. ‘然’은 현대 한어에도 ‘突然’, ‘自然’, ‘果然’ 등으로 그 쓰임이 남아 있다.

107) 向 熹,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年, 872쪽.

108) 陳 奐, 『詩毛氏傳疏』, 山東友誼書社, 1992年, 140쪽.

109) 錢小云, 『詩經助詞』, 『南京師大學報』, 1979年, 第1期, 68쪽.

『釋詞』에서 ‘焉’은 또한 ‘然’과 의미가 같다고 하였는데 이 두 글자는 소리를 살펴보면 韻部가 ‘元部’로 서로 같으며 나머지 글자들 ‘而’, ‘若’, ‘如’, ‘然’은 聲母가 모두 ‘日母’로 일치되고 있다. 결국 이 글자들은 서로 음이 가까우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글자들임을 알 수 있다.

3) 文頭에 놓이는 경우

어기조사가 文頭에 놓이는 경우는 보음조사처럼 발어사의 개념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는 강조되는 실사의 위치에 따라 文頭에 놓이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실사가 4言句의 두 번째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위치로 인하여 어기조사가 문두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어기조사가 文頭나 文中에 나타날 경우는 文頭의 보음조사처럼 음절의 조절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 앞이나 뒤의 실사의미와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有】

- ① 有倬其道 韓侯受命 도에 밝으시니 한나라 제후명을 받으셨네 (大雅·韓奕)
- ② 有苑者柳 不尚息焉 무성한 버드나무 밑에서 쉬기 바라지 않는가? (小雅·苑柳)
- ③ 赫赫業業 有嚴天子 삼엄하고 어마어마한 군사들에 위엄있는 천자님이실세 (大雅·常武)
- ④ 有實其積 萬億及秭 풍부하게 곡식 거두니 커다란 노적가리가 한없이 많은데 (頌·載芟)

‘有’는 강조되는 실사의 위치에 따라 文中 뿐 아니라 文頭에도 나타난다. ‘有’가 文頭에 놓이는 경우 ‘有+ 형용사+ 其+ 단음절명사’ 형식이 많은데 ‘其’ 대신에 ‘之’, ‘者’ 등이 오거나 혹은 예문 ③처럼 ‘有+ 형용사+ 이음절 명사’ 형식도 나타난다. ‘有’는 예문 ④처럼 명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의 ‘有’의 기능은 문중에 나타날 때와 같다.

【 其 】

- ① 其崇如墉 其比如櫺 높기가 성벽 같고 빗날처럼 줄지어 서서 (頌·良耜)
- ② 集于灌木 其鳴啾啾 떨기나무 위에 모여앉아 짹짹 지저귄다 (周南·葛覃)
- ③ 誰謂荼苦 其甘如濟 누가 쓴바귀를 쓰다 했나요 나에겐 냉이처럼 달아요 (邶風·谷風)

‘其’는 강조되는 실사의 위치에 따라 文頭에도 나타난다. ‘其’가 명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는 代詞로 보아야 하며, 위의 예문처럼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술어 앞에 놓이는 경우는 지칭하는 바가 특별히 없다. 이는 조사로 허화된 것이며 술어 앞에서 술어의 어기를 강화해 주고 있다.

【 是 】

- ① 彌月不遲 是生后稷 열 달이 차자 어김없이 후식을 낳으시고 (頌·閟宮)
- ② 是究是圖 亶其然乎 그렇게 되도록 궁리하고 피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네. (小雅·常棣)
- ③ 是任是負 以歸肇祀 메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제사 지내셨네 (大雅·生民)

‘是’가 文頭에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역시 술어 앞에 놓이고 있으며, 文頭에 놓이는 경우는 특히 예문 ②, ③과 같이 ‘是×是×’의 형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之 】

- ① 之疆之紀 燕及朋友 바르고 옳게 다스리어 여러 신하들까지도 즐겁게 하네 (大雅·假樂)
- ② 之屏之翰 百辟爲憲 울타리 되시고 담기둥 되시니 모든 제후들 본받으시네 (小雅·桑扈)

‘之’가 조사로서 文頭에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文頭에 놓이는 경우는 위의 예문과 같이 ‘之×之×’의 형식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시 대사 ‘之’에서 조사로 허화된 것이며, 술어 앞에서 뒤의 술어의 어기를 강화해 주고 있다.

3. 補音助詞

앞서 살펴보았듯이 『詩經』의 전체 助詞를 살펴볼 때 분명히 문법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助詞가 있는가 하면, 말의 어기와 관련된 조사도 존재한다. 한편 이 두 가지 이외의 역할을 하는 조사들도 존재하는데 바로 음절을 보충하고 운율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조사들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조사들이 보음조사이며 보음조사란 그 자체의 특별한 뜻은 없고 단지 문장의 첫머리나 중간 및 말미에 관계 없이 놓이면서 음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보음조사를 어기조사, 구조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는 보조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며 그 附着性은 비교적 강한 반면 독립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차이점으로, 보음조사의 보조역할은 語音의 형식으로 단어나 문장에 붙어 음절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반면, 어기 조사의 보조역할은 문장에서 각종의 어기를 표현하고, 구조조사의 보조역할은 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나 어순에 관계되는 것이다.

周秉鈞은 보음조사를 襯音助詞라 하고 ‘表語音(어음을 표시한다)’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였는데 이를 각각 語首, 語中, 語末로 나누어 대부분 『詩經』에 나온 예문을 들고 있다.¹¹⁰⁾

廖振佑 역시 보음조사의 예로 『詩經』의 예문을 많이 들고 있으며 각각 句首, 句中, 句末로 구분하고 보음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助詞는 어떤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단지 글자 수를 조정하고 음절을 채워넣기 위한 것일 뿐이다. 현대 한어에는 그것에 대응하여 옮길 단어가 없다. 이는 보통 고전의 韻文 특히 『詩經』 가운데 나타나며 산문에서는 극히 드물게 보인다. (這種助詞並沒有什麼實際意義, 只是爲了調整字數, 湊足一個音節罷了。現代漢語也沒有跟它相當的詞可譯。它一般出現在古典韻文特別是『詩經』當中, 散文極其少見。) ¹¹¹⁾

그에 따르면 보음조사란 글자수를 조정하고 음절을 채우는 기능으로 주로 운문에 나타나는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楊伯峻·何樂士는 助詞를 語助詞, 重

110) 周秉鈞, 『古代漢語綱要』, 湖南教育出版社, 1981年, 399-400쪽.

111) 廖振佑, 『古代漢語特殊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年, 202쪽.

言 助詞, 結構 助詞, 語綴 助詞로 나누고 보음조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陽 樹達도 보음조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語首, 語中, 語末 助詞로만 구분 하였다.¹¹²⁾

이렇듯 보음조사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의 조사로 구분한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으며 또한 보음조사를 인식한다 해도 그 에 대한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다. 『詩經』의 보음조사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음조사가 문장의 처음, 가운데, 끝에 나타나는 경우로 살펴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왜냐하면 보음조사는 구조조사처럼 구나 어순의 변화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文末에 놓이는 어기조사처럼 문장의 끝에 나타나 서 문장 전체의 어기를 강조하거나, 文中이나 文頭에 놓이는 어기조사처럼 실사 의 앞 뒤에 붙어 그 실사어기를 강화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음조사는 그야말로 詩歌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조사라 할 수 있는데 음절 을 보충하고 운율을 살리기 위해 문장의 처음이나 중간, 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조사이다. 특히 보음조사가 문장의 처음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말을 시 작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일정한 語音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러한 특징을 보더라도 보음조사를 文頭, 文中, 文末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사들은 다른 종류의 조사에 비해 그 형식이 자유롭게 나타나기 때문 에 이를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詩經』에 대량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사 들을 제외하고 『詩經』의 조사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보음조사에 대한 설명은 어음과 관련하여 고대 문헌의 주석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주로 王引之의 『釋詞』, 朱熹의 『詩集傳』¹¹³⁾, 向熹의 『詩經詞典』, 馬 瑞辰의 『毛詩傳箋通釋』¹¹⁴⁾, 陳奐의 『詩毛氏傳疏』¹¹⁵⁾, 칼그렌 譯本 『高本漢詩經 注釋』, 程孟輝의 『古代漢語字典』, 楊伯峻의 『古漢語虛詞』 등을 참고한다.

11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2001年, 470-471쪽.

113) 이하 『集傳』이라 약칭한다.

114) 이하 『通釋』이라 약칭한다.

115) 이하 『傳疏』라 약칭한다.

1) 文頭に 놓이는 경우

『詩經』의 보음조사 중 文頭助詞에는 ‘亦’, ‘誕’, ‘于’, ‘逝’, ‘云’, ‘無’, ‘爰’, ‘不’, ‘維’, ‘侯’, ‘伊’, ‘適’, ‘式’, ‘越’, ‘載’, ‘薄’, ‘抑’, ‘曰’, ‘思’, ‘噬’, ‘以’, ‘焉’, ‘言’, ‘聿’ 등이 있다.

이렇게 文頭に 사용되는 보음조사들을 고대인들은 發語詞 또는 發聲詞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말을 시작하는 처음에 놓여 開始, 發語의 기능을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詩經』의 文頭助詞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乃如之人兮 逝不古處 우리집 님은 옛날처럼 위해 주지 않네요 (邶風·日月)
- (2) 亦既見止 亦既覯止 뵈게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이 마음 놓이려만 (召南·草蟲)
- (3) 誕彌厥月 先生如達 아기나으실 달이 차자 첫 아기를 양처럼 쉽게 나오셨으니 (大雅·生民)
- (4) 醉言舞 于胥樂兮 취하여 춤을 추니 모두가 즐거워하네 (頌·有駟)
- (5) 如彼泉流 無淪胥以亡 저 흐르는 샘물처럼 모두 함께 망하는 것인가 (大雅·抑)
- (6) 我僕痲矣 云何吁矣내 하인조차 발병났으니 어떻게 하면 그대를 바라볼까나 (周南·卷耳)
- (7) 爰及姜女 聿來胥宇 강씨 여인과 더불어 집지을 터를 살피러 오셨네 (大雅·緜)
- (8) 王事多難 維其棘矣 나라일 다난하여 급히 서둘러 온 걸세 (小雅·出車)
- (9) 我視謀猶 伊于胡底 계획함을 보건댄 어떻게 되려는 건지 모르겠네 (小雅·小旻)
- (10) 文王有聲 遘駿有聲 문왕 기리는 소리 있으니 그 소리 크기도 하네 (大雅·下武)
- (11) 思無邪 思馬斯徂 다른 생각 없이 말은 달려가고만 있네 (頌·駟)
- (12) 抑磬控忌 抑縱送忌 말을 달렸다 멈췄다 활을 쏘다 새를 쫓았다 하시네 (鄭風·大叔于田)
- (13) 式月斯生 俾民不寧 나날이 더 늘어나 백성들을 편히 살지 못하게 하였네 (小雅·節彼南山)
- (14) 無念爾祖 聿修厥德 그대들의 조상을 생각 않는가? 그분 같은 덕을 닦아야 하네 (大雅·文王)
- (15) 赫赫南仲 薄伐西戎 혁혁하신 남중은 서쪽 오랑캐들 쳐부수리라 (小雅·出車)

朱熹는 『集傳』에서 ‘逝不古處’의 ‘逝’는 發語辭¹¹⁶⁾라고 하였으며 王引之의 『釋

116)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1쪽.

詞』에서도 역시 ‘逝, 發聲也 字或作噬(‘逝’는 발성사이다. ‘噬’라고 쓰기도 한다)’¹¹⁷⁾라고 하였다.

王引之는 또한 예문 (2)의 ‘亦既觀止’에서 ‘亦, 有不承上文而但爲語助者(‘亦’은 위의 문장과 연결되지 않으며 助詞일 뿐이다)’라고 하였다.¹¹⁸⁾ 그는 또한 예문 (5)에서 ‘無, 發聲, 無淪胥以亡, 淪胥以亡也(‘無’는 發聲辭이다. ‘無淪胥以亡’은 ‘淪胥以亡也’이다)’라고 하였다.¹¹⁹⁾

陳奐은 예문 (4)의 ‘于胥樂兮’에서 ‘于, 發聲’이라 하였으며 ‘胥, 皆也’, ‘言君臣皆樂也¹²⁰⁾(임금과 신하가 모두 즐거워하네)’라고 하였다. ‘于’ 역시 음절을 보충하는 보음조사로 실제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예문 (6) ‘云何吁矣’에서 ‘云’은 向熹의 『詩經詞典』에 句首, 句中助詞라 하였으며¹²¹⁾ 陳奐 역시 ‘云爲語詞, 凡全詩云字 或在句首, 或在句中, 句末 多用爲語詞 無實義’(‘云’은 助詞이다. 무릇 『詩經』 전체에서 ‘云’은 문장의 처음에 놓이기도 하며 중간이나 마지막에 놓이기도 한다. 대부분 語詞가 되며 실제의 의미는 없다)’라 하였다.¹²²⁾ 예문 (10)에서 朱熹는 ‘通駿有聲’에 대하여 ‘通, 義未詳, 疑與聿同, 發語辭(‘通’은 그 뜻이 未詳인데, 聿과 같은 듯하며 發語辭이다)’¹²³⁾라고 하였다.

예문 (11)에서 ‘思無邪 思馬斯徂’에서는 ‘思’가 두 번 보이는데 두 번째의 밑줄 친 ‘思’는 『古代漢語字典』에서는 이를 助詞로 보고 無義라 하였다.¹²⁴⁾ 이러한 ‘思×斯×’ 구문은 『詩經』에서 네 차례 보이는데¹²⁵⁾ 실제 ‘思’와 ‘斯’는 아무 의미 없는 助詞이며 ‘思’는 문두에 놓여 ‘發語’의 역할을 하는 보음조사이고 ‘斯’는 형용사 앞에 놓여 뒤의 실사 의미를 강화해주는 어기조사이다.

그러면, 앞의 ‘思’는 실사인가? 일찍이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공

117)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95쪽.

118) 王引之, 위의 책, 36쪽.

119) 王引之, 위의 책, 102쪽.

120) 陳 奐, 『詩毛氏傳疏』, 山東友誼書社, 1992年, 1711쪽.

121) 向 熹,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年, 862쪽.

122) 陳 奐, 위의 책, 53쪽.

123) 朱 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20쪽.

124) 程孟輝, 『古代漢語字典』, 商務印書館, 2005年, 746쪽.

125) 思無疆 思馬斯臧, 思無期 思馬斯才, 思無斃 思馬斯作, 思無邪 思馬斯徂 (頌·駉)

자가 말하기를 『詩經』에 있는 시가 대략 삼백편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특한 생각이 없는 글이다'라 하였으며, '思'는 실사 의미로 해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의 '思'가 '생각하다'의 의미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뒤 구의 '思'는 조사인데, 바로 앞 구에서는 실사의 '思'로 사용했다는 점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째, 이 시는 귀인을 태우고 가는 수레의 살찌고 튼튼한 명마들을 찬미한 詩이다. 공자가 말한 실사 의미에 따르면 '思'의 주체는 귀인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말(馬)인 것이다. 말(馬)이란 것이 '생각함에 (가장) 사악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겠으나, 이러한 비슷한 문장은 頌·駟 편에 '思無疆', '思無期', '思無斁'으로 세 번 더 나타난다. 朱熹에 따르면 '無疆'은 '無期'와 같은 의미로 끝이 없다는 의미이다. 또 '斁'은 '厭也(싫어하다)'라 하였다.¹²⁶⁾ '思'를 실사로 보아 번역한다면 '思無疆', '思無期'은 생각함에 끝이 없는 것이고, '思無斁'은 즉,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즉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의 세 문장은 모두 말이 힘차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며, 생각에 끝이 없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의미는 詩意에 맞지 않는다. 만약 '思'를 조사로 본다면 '思無疆', '思無期'는 말이 쉬지 않고 끝없이 달린다는 뜻이며 '思無斁'은 아무리 달려도 싫증내지 않고 계속 달린다는 의미이다. 또한 陳奐은 『傳疏』에서

'無疆'와 '無期'는 칭송하는 단어이며, '無斁'과 '無邪'는 또 勸戒하는 의미이다…… '思'는 모두 語調이며……이로서 말의 훌륭함을 이룬 것이다. '思慮'의 '思'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無疆, 無期頌禱之詞, 無斁無邪又有勸戒之義, 思皆爲語調……以言馬之善也……爲思慮之思失之)¹²⁷⁾

따라서 이 구의 '思'는 모두 음절을 조절하고 주의 환기를 위해 문두에 놓인 보음조사이며, 이는 語音과 관계가 있다. 보음조사와 語音의 관계는 IV章. 『詩經』 助詞의 語音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문 (12)의 '抑磬控忌'에서 칼그렌은 '抑'과 '忌'는 모두 '어조사'¹²⁸⁾ 라고 하였

126)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78쪽.

127) 陳奐, 『詩毛氏傳疏』, 山東友誼書社, 1992年, 1705쪽.

128) 董同龢 譯, 『高本漢詩經注釋』, 中華叢書, 1960年, 217쪽.

으며 向熹 역시 ‘抑’은 文頭에 놓이는 助詞로 ‘無實義’라 하였다.¹²⁹⁾ 고대 학자들의 주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發聲’, ‘發語辭’, ‘語詞’, ‘無實義’ 등으로 주석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문두에 놓이는 보음조사로서 문장의 처음에 놓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공통된 역할은 역시 음절을 보충하고 시어의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문 (14)를 보면, 向熹는 『詩經詞典』에 嚴粲의 『詩緝』을 인용하여 我征聿至의 ‘聿’을 ‘將遂之辭, 實未至也(‘장차’, ‘마침내’라는 말이다. 실제로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를 『詩經』에 모두 적용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古代漢語字典』에는 ‘聿’은 문장 처음이나 중간에 쓰이며 실제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¹³⁰⁾

한편 『集傳』에는 ‘文王有聲, 遯駿有聲, 遯求厥寧, 遯觀厥成’ (大雅·文王有聲)에서 ‘遯’義 未詳, 疑與聿同, 發語辭(‘遯’의 뜻은 미상이다. 의심컨대 ‘聿’과 같은 듯 하니 發語辭이다)’라고 하였다.¹³¹⁾

楊樹達은 班固의 『幽通賦』에서 ‘聿’이 助詞로 사용된 예를 들고 『詩經』에서는 ‘聿’이 助詞로 쓰인 예와 ‘聿’이 ‘遯’로도 쓰이는 예를 들고 있다.¹³²⁾

즉, 楊樹達 역시 朱熹처럼 『詩經』에서 ‘聿’과 ‘遯’을 같은 助詞로 보았고 ‘詞, 無義’라 하였다. ‘聿’과 ‘遯’이 字形이 전혀 다른데 상고음이 物部, 定母로 완전히 서로 同音이다. 따라서 같은 기능의 조사인 경우에는 그 語音이 같거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예문 (15)에서 ‘薄’은 ‘言采其蕨’과 마찬가지로 ‘薄’도 ‘薄+동사+其(之, 爾)×’ 형식이 많은데, 이로 보아 ‘薄’도 ‘言’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薄言’의 형식이 『詩經』에 많이 나타난다. 이는 음절수를 채우기 위한 연용의 형식으로 음절을 조절하며 4言句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薄’에 대하여 주석가들의 설명을 보면 이를 실사로 본 학자도 있으나 몇몇 문장에서만 뜻이 통하고 나머지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129) 向熹,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年, 799쪽.

130) 周斌, 『古代漢語字典』, 商務印書館, 2005年, 994쪽.

131)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20쪽.

132) 聿中齋爲庶幾兮(班固幽通賦)/ 聿懷多福(『詩經』大雅·大明)/ 匪棘其欲 遯追來孝(大雅·文王有聲), 楊樹達, 『高等國文法』, 上海古籍出版社, 2007年, 451-452쪽.

한편 王引之는 『釋詞』에 ‘薄, 發聲也’¹³³⁾라 했으며 劉淇의 『助字辨略』에서도 『毛傳』을 인용하며 역시 ‘薄, 辭也’¹³⁴⁾라 하였다. ‘薄’에 대한 학자들의 명칭은 각기 다르나 실사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조사로 사용될 때 항상 文頭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語音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薄’은 鐸部 入聲韻으로서 문장의 처음에 놓여 좀 더 두드러지는 어음으로 주목을 끄는 소리가 되고 있다.

2) 文中에 놓이는 경우

『詩經』의 文中 語音助詞에는 ‘亦’, ‘爰’, ‘曰’, ‘載’, ‘式’, ‘不’, ‘云’, ‘侯’, ‘伊’, ‘夷’, ‘或’, ‘思’, ‘乎’, ‘攸’, ‘只’, ‘焉’, ‘言’, ‘哉’, ‘茲’, ‘居’, ‘聿’, ‘與’, ‘其’ 등이 있다. 단지 음절의 형식으로 어휘 의미가 없고 文中에 놓여 음절을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

- (1) 小大近喪 人尙乎由行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모두 거의 망해가고 있거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행동하여 (小雅·隰桑)
- (2) 旣曰歸止 曷又懷止 이미 시집가 버린 것을 어째서 또 사모하는가! (國風·南山)
- (3) 道之云遠 曷云能來 길이 먼데 언제면 돌아올까? (邶風·雄雉)
- (4) 誰俯予美 心焉忉忉 누가 나의 님을 속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陳風·防有鵲巢)
- (5) 其帶伊絲 其弁伊騏 흰 실 띠를 띠었으니 관 술기엔 구슬 달았으리 (曹風·鳴鳩)
- (6) 兕觥其觶 旨酒思柔 뿔잔은 곱어 있고, 맛있는 술은 부드럽네 (小雅·桑扈)
- (7) 樂只君子 福履綏之 즐겁다 우리님이여 복록에 편안하네 (周南·樛木)
- (8) 昭茲來許 繩其祖武 앞으로 밝히시어 조상들의 발자취 이으시면 (大雅·下武)
- (9) 擇有車馬 以居徂向 수레와 말 있는 자들을 골라 향 땅으로 갔네 (小雅·十月之交)
- (10) 蝱賊蝱疾 靡有夷屆 해충이 곡식을 해치듯 끊임없으며 (大雅·瞻卬)
- (11)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 소나무 잣나무가 무성하듯이 당신의 일은 끊임없이 이어지네 (小雅·天保)
- (12) 睠言顧之 潸焉出涕 돌이켜 생각해보니 눈물이 줄줄 흐르네 (小雅·大東)
- (13) 彼其之子 不與我戍申 그대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는 신(申) 땅에 수자리 사네 (王風·揚之水)

133)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97쪽.

134) 劉淇, 『助字辨略』, 中華書局, 1954年, 269쪽.

예문 (1)에서 칼그렌은 ‘朱熹는 ‘尙乎’를 ‘尙’으로 보았다’고 하고, ‘乎’는 부사에 붙거나 혹은 개사 뒤에 아무 의미 없이 쓰는 예가 많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於是乎’는 ‘於是’이며 ‘庶幾乎’는 ‘庶幾’라고 하였는데, ‘乎’는 여기에서 결코 ‘於’에 상당하는 개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乎’는 문장의 중간에 나타나는 보음조사라 할 수 있다.

예문 (2)에서 칼그렌은 齊風·南山篇의 ‘既曰歸止’의 ‘曰’과 小雅·楚茨篇 ‘神保聿歸’의 ‘聿’은 同義라고 하였다.¹³⁵⁾ 즉 여기에서 ‘曰’과 ‘聿’이 同義라는 것은 그 어법적 기능이 같다는 의미로 음절을 조절하는 보음조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문 (6)에서 楊樹達은 ‘思’를 ‘無義’라 하였다.¹³⁶⁾ 朱熹 또한 『集傳』에서 ‘思’를 ‘語辭’라 하였다.¹³⁷⁾

예문 (8)에서 ‘茲’는 『集傳』에 ‘茲, 哉聲相近, 古皆通用也(‘茲’와 ‘哉’는 소리가 서로 비슷한데, 옛날에는 아마 通用된 것으로 보인다)’라 하였다.¹³⁸⁾ 王先謙 또한 『集疏』에 ‘三家, 茲作哉(三家는 ‘茲’를 ‘哉’라 하였다)’고 하였다.¹³⁹⁾

예문 (9)에서 ‘居’는 『傳疏』에서 ‘居, 語助’라 하였으며 ‘言擇有車馬以往向也(수레와 말을 골라 向땅으로 가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¹⁴⁰⁾ 여기에서 ‘居’는 실제 의미가 없으며 4言句를 살리기 위한 보음조사이다.

예문 (12)을 살펴보면, ‘言’은 ‘焉’과 앞 뒤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어음을 살펴보면 ‘言’은 疑母, 元部이며 ‘焉’은 影母, 元部으로 同韻이다. 따라서 言, 焉이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 어음의 유사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荀子·有坐篇』에도 『詩經』을 인용하였는데 모두 ‘焉’을 사용하여 ‘眷焉顧之 澗焉出涕(돌이켜 생각해보니 눈물이 줄줄 흐르네)’라고 하였다.

칼그렌 또한 『高本漢詩經注釋』에서 ‘鄭氏가 여기에서 ‘言’을 ‘我’라고 혼석한 것

135) 董同龢 譯, 『高本漢『詩經』注釋』, 中華叢書, 1960年, 997쪽.

136) 楊樹達, 『詞詮』,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287쪽.

137) 朱 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13쪽.

138) 朱 熹, 위의 책, 219쪽.

139) 王先謙, 『詩三家義集疏』, 中華書局, 1987年, 868쪽.

140) 陳 奐, 『詩毛氏傳疏』, 山東友誼書社, 1992年, 987쪽.

은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言’은 분명히 ‘焉’과 같은 語助詞이다¹⁴¹⁾라고 하였다. 따라서 ‘言’은 ‘焉’과 語音이 비슷하며 같은 보음조사의 용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예문 (13)를 살펴보면 ‘其’는 지시대사 ‘彼’의 뒤에 나타나는데, 이는 지시대사의 첩용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經典의 다른 표현으로부터 이러한 용법의 ‘其’는 실제 의미와 관계가 없는 하나의 음절을 조절하는 글자임을 단정할 수가 있다. 즉, 『禮記』에서는 ‘其’를 ‘彼記之子’¹⁴²⁾라 하였고, 『左傳』에서는 ‘彼己之子’¹⁴³⁾로 쓰기도 하였고, 칼그렌 또한 助詞 ‘忌’를 설명하면서 ‘忌’(kiəg)와 小雅 出車 ‘彼其之子’의 ‘其’(kiəg)는 같으며 ‘彼其之子’는 또한 ‘彼記之子’ 또는 ‘彼己之子’라고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¹⁴⁴⁾ 다시 말해 ‘其’는 ‘彼’라는 代詞 뒤에 놓이는 助詞로서 다른 문헌에서는 다른 글자로 가차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其’는 지시대사 뿐 아니라, 의문대사 ‘曷’, ‘誰’, ‘何’와도 함께 連用되어 사용되는 예가 많다.¹⁴⁵⁾ 『詩經』의 ‘其’는 대사로서 文頭나 文中에 쓰여 뒤의 명사를 수식하고 관형어의 역할을 했는데 이와 같이 다른 대사의 뒤에 놓여 음절을 조절하는 현상은 대사 ‘其’가 허사로 활용되어가는 변화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詩經』에서는 또한 助詞가 文中과 文末에 동시에 놓여 시의 리듬감을 살리고 병렬의 형식으로 자주 나타난다. 여기조사 ‘是’, ‘之’도 이러한 병렬의 형태로 文頭와 文中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보음조사는 이러한 형식이 더 많이 나타난다. 다

141) 鄭氏訓‘言’爲‘我’是完全說不通的，因爲‘弋—言加之’不成節律，‘言’分明和焉一樣是個語助詞。董同龢，『高本漢『詩經』注釋』，中華叢書，1960年，231쪽.

142) 詩云 維鷓在梁 不濡其翼 彼記之子 不稱其服 (詩에 이르기를 ‘사다새가 어살에서 날개도 적시지 않네. 저 소인들은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그 직분에 맞지 않는 것’이라 했다) 『禮記 第三十二』

143) 詩曰 彼己之子 不稱其服 子臧之服 不稱也夫 (詩에 이르기를 ‘저 사람이여 그 옷이 걸맞지 않도다! 子臧의 옷이 자신의 직분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 『左傳 僖公二十四年』

144) 董同龢，『高本漢『詩經』注釋』，中華叢書，1960年，217쪽.

145) 悠悠蒼天 曷其有所 (아득한 푸른 하늘이여 언제면 한곳에 안착할까) (唐風·鴛羽)
 誰其尸之 有齊季女 (누가 이것을 주관하나 제나라 임금 막내딸이지) (召南·采蘋)
 彼其之子 舍命不渝 (우리 님은 명을 받음에 변함이 없네) (鄭風·羔裘)
 物其多矣 維其嘉矣 (음식이 풍성하니 정말로 좋구나) (小雅·魚麗)
 濟濟檻泉 維其深矣 (솟아오르는 샘물은 정말 깊기도 하구나) (大雅·瞻卬)
 漸漸之石 維其高矣 (뽀뽀썩썩 솟은 바위 정말로 높구나) (小雅·漸漸之石)

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 | | |
|---------------|--------------------------|---------|
| (1) 爰居爰處 爰笑爰語 | 여기에 살며 웃고 얘기하네 | (小雅·斯干) |
| (2) 曰歸曰歸 歲亦莫止 | 돌아가세, 돌아가세 이 해도 다 저물어 가네 | (小雅·采薇) |
| (3) 載馳載驅 歸唁衛侯 | 달리고 달리어 위(衛)나라 임금을 위문하고저 | (鄘風·載馳) |
| (4) 式微式微 胡不歸 | 쇠미하고 쇠미해졌거늘 돌아가시지 않나이까? | (邶風·式微) |
| (5) 不戢不難 受福不那 | 화목하고 공경하니 받으시는 복도 많으시네 | (小雅·桑扈) |

위의 예문에서 ‘曰×曰×’ ‘爰×爰×’형식 등은 『詩經』 시기 民歌에서 상용되던 격식으로 ‘載’, ‘式’, ‘不’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글자만 다를 뿐 이들은 모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載’에 대한 楊伯峻·何樂士의 설명을 살펴보면, 병렬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載~載~’ 대다수가 병렬 술어 앞에 쓰여, 앞 문장과 순접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동작이나 상태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又~又~’, ‘邊~邊~’, ‘就~就~’ 등의 의미를 가지며 병렬의 동사 술어 앞, 병렬의 형용사 술어 앞에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¹⁴⁶⁾

朱熹는 ‘式’은 發語辭라 하였으며, ‘微’는 衰함과 같으니 두 번 말한 것은 衰함의 심함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⁴⁷⁾ 칼그렌은 『毛傳』의 ‘式, 用也’라는 주석은 모호하여 많은 이들에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데 ‘式’의 조사 용법은 『詩經』에 자주 보이며 때로는 아주 명확하게 조사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경우에 ‘式’은 ‘而’의 용법과 같이 사용되었으며 그렇게 본다면 여기의 ‘式微式微’는 ‘微小! 微小(매우 쇠미하구나!)’의 의미라 하였다.¹⁴⁸⁾

馬瑞辰의 『通釋』에 ‘不戢不難’, ‘兩不字皆語詞(두 개의 ‘不’는 모두 語詞이다)’라고 하였으며¹⁴⁹⁾ 陳奐은 또한 清廟篇의 ‘不顯不承’에서 ‘不顯, 顯也, 不承, 承也 不或作丕’라 하며¹⁵⁰⁾ ‘不’를 해석하지 않고 助詞로 보았다. ‘不’와 ‘丕’는 고대에 모두 같은 之部에 속하는데 楊樹達의 『詞詮』을 보면 『書經』, 『左傳』 등의 예를 들

146)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2001年, 475쪽.

147)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7쪽.

148) 董同龢 譯, 『高本漢『詩經』注釋』, 中華叢書, 1960年, 97쪽.

149) 馬瑞辰, 『毛詩傳箋通釋』, 北京, 中華書局, 1989年, 732쪽.

150) 陳奐, 『詩毛氏傳疏』, 山東友誼書社, 1992年, 1587쪽.

면서 ‘丕’를 語首 혹은 語中 助詞로 보았다.¹⁵¹⁾

『毛傳』에서도 ‘不戢, 戢也, 不難, 難也’라 하였으며¹⁵²⁾ 王引之 등도 『玉篇』을 인용하여 ‘不, 詞也’¹⁵³⁾라 하였는데 역시 ‘不’를 조사로 본 것이다. 조사의 ‘不’는 『詩經』의 雅頌에 많이 나타나는데 雅頌은 대개 공덕을 기리며 제사를 올리는 노래로 國風의 민가와 비교해서 더욱 음절의 조화가 요구된다.

王重陽은 이러한 음절의 필요성으로 인해 助詞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앞 뒤 글자의 語音과 가까운 조사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卷阿篇의 ‘矢詩不多’에서 ‘詩’는 之部에 속하며 ‘不’와 같은 聲部에 속한다. 生民篇의 ‘上帝不寧’에서도 ‘帝’는 支部에 속하며 桑扈篇의 ‘不戢不難 受福不那’에서도 ‘戢’은 緝部인데 ‘福’은 職部에 속하며 緝部, 職部와 之部の 語音은 매우 가깝다고 하였다.¹⁵⁴⁾

그의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다고 본다. 역대 주석가들은 ‘不’를 조사로 보았지만 그에 대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不’를 조사로 본다면 이를 語音과의 관계에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詩經』에 대한 현대 국내외의 해석본은 ‘不’를 부정사로 간주하거나 혹은 助詞로 간주한 번역서가 섞여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金學主는 ‘矢詩不多’를 ‘옳은 시 많지는 않으나’로 번역하였고 華鐸의 『詩經詮譯』에서는 ‘不, 語助詞, 無義’라 하고 ‘賢臣獻詩眞不少(賢臣이 바친 시가 정말 많네)’¹⁵⁵⁾라고 번역하였다. ‘不’는 물론 『詩經』에서 부정사로 사용된 예가 거의 600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不’가 부정의 의미가 아닌 단순히 어음을 조절하는 조사로 사용된 예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字形보다는 語音과 관계 되는 만큼 『詩經』 ‘不’의 해석은 많은 고증과 자료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151) 楊樹達, 『詞詮』,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14-15쪽.

152)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1031쪽.

153)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96쪽.

154) 王重陽, 『詩經』‘不’字的語詞用法, 『池州師專學報』, 1995年, 第3期, 23쪽.

155) 華 鐸, 『詩經詮譯』, 大象出版社, 1997年, 529-530쪽.

3) 文末에 놓이는 경우

『詩經』의 文末 助詞에는 ‘忌’, ‘思’, ‘斯’, ‘員’, ‘生’, ‘胥’, ‘期’ 등이 있으며 文頭, 文中助詞에 비해 종류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 이유는 文末은 대개 어기조사가 많이 놓이는 위치이며 이로서 문장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文末의 보음조사는 단지 음절의 형식으로 어휘 의미가 없고 文末에 놓여 음절을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

- (1) 抑釋搆忌 抑鬯弓忌 화살통 뚜껑을 풀고 활을 활집에 넣으시네 (國風·大叔于田)
- (2) 恩斯勤斯 鬻子之閔斯 사랑을 기울여 부지런히 가꾸었으니 어린 애가 가엾단다 (邶風·鸛鳴)
- (3) 敬之敬之 天維顯思 공경하고 공경하라 하늘은 밝으시고 (頌·敬之)
- (4) 縞衣綦巾 聊樂我員 흰 옷에 파란 수건 쓴 여자만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네 (鄭風·出其東門)
- (5) 有頰者弁 實維何期 점잖은 관은 무엇하러 썼는가? (小雅·頰弁)
- (6) 矧伊人矣 不求友生 하물며 사람이 친구를 찾지 않겠는가? (小雅·伐木)
- (7) 籩豆有且 侯氏燕胥 음식 그릇 많이 벌였으니 제후께서 즐기시네 (大雅·韓奕)

위의 文末에 오는 보음조사들은 어기조사처럼 어떤 어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조사들은 4言句를 맞추기 위해 사용된 조사들이며 예문 (1)의 ‘抑釋搆忌’만 보더라도 실사는 ‘釋搆’ 뿐이며 ‘抑’은 文頭에 오는 보음조사이고, ‘忌’는 文末에 놓이는 助詞이다. ‘員’이 助詞로 사용된 예는 『詩經』에 단 한 차례 나타난다.

예문 (4)에서 朱熹는 『集傳』에서 ‘員, 與云同, 語詞也(員은 云과 같으니 語辭이다)’¹⁵⁶⁾라고 하였다. 『孔疏』에서도 ‘云, 員古今字, 助句辭也’라 하였다.¹⁵⁷⁾ 다시 말해 고대 주석가들은 ‘員’과 ‘云’을 같은 기능의 조사로 본 것이며 이들의 상고음은 文部, 匣母로 같다. 즉 字形만 다를 뿐 어음이 같은 조사로 가차된 경우라 할 수 있다.

156)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64쪽.

157)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731쪽.

예문 (5)의 ‘期’는 『詩經』에 한 차례 보이는데 向熹는 陸德明의 釋文을 인용하여 ‘期, 本亦作其(‘期’는 본래 ‘其’이다)’라고 하였다.¹⁵⁸⁾ ‘期’와 ‘其’는 모두 之部, 群母로서 同音인데 역시 가차되어 음절 조절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期’는 뒤 구의 ‘爾殽既時 豈伊異人 兄弟具來’에서 ‘時’, ‘來’와 같은 之部로 압운을 위해 쓰여진 허사이다.

예문 (6)의 ‘生’의 용법은 雅頌에만 단 세 차례 나타나는데¹⁵⁹⁾ 이미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허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小雅·伐木중 ‘相彼鳥矣 猶求友聲 矧伊人矣 不求友生’에서 ‘友生’과 앞 구의 ‘友聲’ 같으며 친구를 가리킨다. 밑줄 친 ‘聲’과 ‘生’은 같은 耕部로 압운자에 속하며, ‘矣’는 모두 助詞이다.

‘生’은 『詩經』 뿐 아니라 『楚辭·九辯』에도 나타나는데 ‘廓落兮羈旅而無友生, 惆悵愴兮而私自憐(쓸쓸하구나, 벗 없는 나그네 신세여. 서글픈 마음, 스스로 달래보누나)’라고 하였다. 『楚辭注釋』에 ‘友生, 古代稱知心的朋友爲友生(‘友生’이란 고대에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말한다)’이라고 하였는데¹⁶⁰⁾ 이는 ‘生’을 하나의 접미사로 본 것이다. 그러나 ‘友生’을 하나의 단어로 보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馬瑞辰도 『通釋』에 ‘生, 語詞也 唐人詩 太瘦生 及凡詩 ‘何似生’, ‘作麻生’, ‘可憐生’之類 皆以生爲語助詞, 實此詩及伐木詩友生倡之也(生은 어조사이다. 唐人 詩에 ‘너무 여위었구나’, ‘무엇인가’, ‘어떠한가’, ‘가련하구나’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生’을 어조사로 본 것이다. 이 詩 伐木에서의 友生도 어조사이다)’¹⁶¹⁾라고 하였다.

이로보아 ‘生’은 접미사의 개념보다는 문장 전체에 관련되는 조사의 성질이 더 강하며 문장 끝에 놓여 음절을 조절하므로 본고에서는 ‘生’을 문미에 놓이는 보음조사에 두고자 한다.

‘生’은 漢語의 口語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詩經』은 대량의 민간의 가요를 포함하고 있고 당시에 실제 사용한 언어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楚辭』역시

158) 向 熹, 『詩經言語研究』, 四川人民出版社, 1987年, 482쪽.

159) 雖有兄弟 不如友生 형제가 있다 해도 벗만 못하게 되는 거지 (小雅·常棣)

壽考且寧 以保我後生 오래도록 장수하시고 안녕하시어 우리 백성을 보호하시네 (頌·殷武)

160) 茂 元, 『楚辭注釋』, 臺灣文津出版社, 1985年, 253쪽.

161) 馬瑞辰, 『毛詩傳箋通釋』, 北京, 中華書局, 1989年, 505쪽.

초나라의 민가형식을 이용해 만든 詩歌로 초나라 당시의 구어에 매우 근접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들 文末 보음조사들은 특히 다른 조사들보다 어음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고음을 살펴보면 ‘思’는 之部, 心母이며, ‘胥’는 魚部, 心母, ‘斯’는 之部, 心母, ‘忌’는 之部, 群母이다. 즉, 韻部에는 주로 之部가, 聲母에는 주로 心母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1), (2)의 ‘斯’, ‘忌’처럼 文末의 보음조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앞의 글자가 압운이 되지만, 예문 (3)~(7)처럼 보음조사가 文末에 한 번 나타날 때는 모두 압운자가 되고 있다. 위 예문의 ‘生’, ‘期’, ‘胥’, ‘思’, ‘員’은 각각 耕部, 之部, 魚部, 之部, 文部로 모두 압운자에 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의 語音과 관련하여서는 Ⅲ章 『詩經』 助詞의 語音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詩經』 助詞의 語音

『詩經』에 쓰인 조사는 60개에 이르고 있으며 각 조사들은 각각의 어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앞 章에서는 이러한 어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수한 조사들의 기능과 역할은 어음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만약 관계가 있다면 조사 간 語音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본 章에서는 『詩經』 조사의 語音을 중심으로 조사를 분석하여 조사와 語音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詩經』은 중국 선진시대의 중요한 전적으로 그 어음은 周代 어음의 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학자들은 顧炎武에서 黃侃에 이르기까지 주로 『詩經』의 用韻에 근거하여 상고한어의 韻部¹⁶²⁾체계를 세웠다. 上古音은 일반적으로 西周初年부터 漢末까지 1200여년 간의 漢語의 語音체계를 말한다. 이는 隋唐시기의 中古音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중고음을 연구하는 자료는 주로 韻書와 韻圖이지만 상고음은 이같은 자료들이 없다. 상고음 연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는 『詩經』¹⁶³⁾, 『楚辭』, 『易經』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詩經』이 상고 韻部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詩經』 305편의 작품 중 가장 이른 것은 周初시기이며 가장 늦은 것은 춘추 중기까지 이른다. 그 시기는 약 500여년에 이르며, 분포지역은 周南의 경우는 주로 周公이 통치하던 남방지역으로, 대체로 북으로는 汝水와 남으로는 양자강 북쪽 연안의 漢水와 양자강이 합쳐지는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불려지던 것이다. 召南의 경우는 召公이 통치하던 남방지역이며, 대체로 武漢 이상의 양자강 북쪽

162) 한어의 상고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주로 형성자의 성부와 편방을 자료로 삼아 古音을 추정하고 상고음의 단위를 귀납하였는데 이를 흔히 韻部라고 칭한다. 예를 들면

顧炎武(1613~1682) 古韻 10部

段玉裁(1735~1815) 古韻 17部

戴震(1723~1777) 古韻 25部

黃侃(1886~1935) 古韻 28部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韻部라는 것도 결국 운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상고운의 단위를 논할 때만 한정된 것이어서 중고운의 단위명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돈주, 『漢字學總論』, 博英社, 1979年, 542-543쪽.

163) 주로 『詩經』의 韻脚과 한자의 諧聲(偏旁(聲符))을 통해서이다.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 불려지던 작품들이다. 그 밖의 15국풍은 황하 유역의 제후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¹⁶⁴⁾

당시의 언어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禮記·王制』篇에 ‘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다섯지방의 백성들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고 풍속이 달랐다)’는 기록¹⁶⁵⁾이 있다. 그 다섯 지방이 확실하게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써 당시에 분명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다른 언어나 방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詩經』 305篇 작품의 언어에는 어떤 뚜렷한 방언의 특색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詩經』의 시는 각 지역의 민간시가로서 처음에는 당연히 누대에 걸쳐 지역 방언으로 불리어지던 것이었으나 후에 편집되면서 정리와 가공을 거쳤을 것이다. 그 단계에서는 공통어인 중원지역의 雅言을 사용했을 것이므로 방언의 흔적은 매우 미미하다. 왜냐하면 『詩經』의 언어 풍격이 내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작품들의 韻部체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⁶⁾ 따라서 상고음 연구는 지금까지도 『詩經』의 압운 체계와 문자의 諧聲체계를 주요자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상고 聲母체계의 연구자료는 주로 『說文解字』나 先秦, 兩漢 시기 고적들에 수록된 異體字, 聲訓, 注音, 重文¹⁶⁷⁾, 通假字, 聯綿詞 등이라 할 수 있다. 그 일반적인 연구방법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中古에 있는 어떤 聲母들이 상고에도 존재하였는가를 살펴보고, 또 중고시기에 없는 聲母는 상고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인가를 살펴보고, 그 나머지는 바로 상고시기의 聲母로 귀납해내는 방법이다. 상고음의 어음체계에 대해서는 일치되고 공인된 결론은 없으며, 상고음의 聲母, 韻部체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의 異說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할 분야이다.

본 章에서는 『詩經』의 조사와 관련하여 각 조사 간의 어음특징 및 압운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는데 『詩經』 조사의 韻部와 聲母체계는 주로 王力

164) 周振鶴·游汝杰, 「方言與中國文化」, 南天書局, 1979年, 81쪽.

165) 이는 언어의 지리적 차이에 대한 기록으로서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166) 周振鶴·游汝杰, 위의 책, 80-81쪽.

167) 重文은 古籍 중에 重複해서 나타나는 古今 이체자라 할 수 있다. 『說文解字』에는 9,353개의 小篆字 이외에 異體의 籀文, 古文 등이 소전자 아래에 수록돼 있다.

의 『詩經韻讀』¹⁶⁸⁾과 『同源字典』¹⁶⁹⁾을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王力이 제시한 상고음 韻部 29개와 聲母 33개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¹⁷⁰⁾

<二十九 韻部表>

陰 聲	入 聲	陽 聲
1. 之 部 ə	10. 職 部 ək	21. 蒸 部 əng
2. 幽 部 u	11. 覺 部 uk	
3. 宵 部 ɔ ¹⁷¹⁾	12. 沃 部 ɔk	
4. 侯 部 o	13. 屋 部 ok	22. 東 部 ong
5. 魚 部 a	14. 鐸 部 ak	23. 陽 部 ang
6. 支 部 e	15. 錫 部 ek	24. 耕 部 eng
7. 脂 部 ei	16. 質 部 et	25. 眞 部 en
8. 微 部 əi	17. 物 部 ət	26. 文 部 ən
9. 歌 部 ai	18. 月 部 at	27. 元 部 an
	19. 緝 部 əp	28. 侵 部 əm
	20. 盍 部 ap	29. 談 部 am

168) 『詩經韻讀』(王力文集 第6卷), 上海古籍出版社, 1980年, 13쪽.

169) 王 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2年, 12-20쪽.

170) 최근 상고음 방면의 연구가 鄭張尙芳 등 후대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상고음 체계에 대한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왕력의 상고음 체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고의 상고음 분석결과는 왕력의 추정 상고음을 가정적인 기준으로 얻은 결과로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고음체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171) 그는 /ɔ/는 閉口의 /o/이며, 국제음표로는 /o/라고 하였고, 아래 侯屋東三部의 /o/는 開口이며, 국제음표로는 /ɔ/라 하였다. 王力, 『王力文集』 제6권, 上海古籍出版社, 1980年, 13쪽.

<三十三 聲母表>172)

喉音	牙音	舌音		齒音		脣音
		舌頭音	舌面音 ¹⁷³⁾	正齒音	齒頭音	
1. 影母 〇	2. 見母 k	8. 端母 t	13. 照母 ㄓ	20. 莊母 ㄓ	25. 精母 ts	30. 幫母 p
	3. 溪母 k'	9. 透母 t'	14. 穿母 ㄔ'	21. 初母 ㄔ'	26. 清母 ts'	31. 滂母 p'
	4. 群母 g	10. 定母 d	15. 神母 ㄓ	22. 牀母 ㄓ	27. 從母 dz	32. 并母 b
	5. 疑母 ㄩ	11. 泥母 n	16. 日母 ㄣ			33. 明母 m
		12. 來母 l	17. 喻母 ㄩ			
	6. 曉母 x		18. 審母 ㄔ	23. 山母 ㄓ	28. 心母 s	
	7. 匣母 ㄩ		19. 禪母 z	24. 俟母 ㄓ	29. 邪母 z	

그러면 위와 같은 王力の 추정 상고음 체계를 중심으로 『詩經』 각 조사의 어음과 조사의 압운 특징을 각각 살펴보겠다.

1. 上古音 分析

앞 章에서는 조사의 어법역할을 중심으로 귀납하여 『詩經』 조사를 살펴보았다. 본 章에서는 앞에서 王力이 추정한 상고음을 근거로 하여, 상고시기 『詩經』 조사의 어음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각 조사의 어음 특징을 살피기 위해 구조조사,

172) 그러나 36자모에서 見溪群疑는 牙音, 影曉匣喻는 喉音으로 분류된다.

173) 王力은 이를 舌面音으로 재구하였으나,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상고 시기에 이러한 계통의 어음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며, 연구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王力 재구음의 실존 여부에 대한 고찰은 생략하고, 이는 후일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王力の 연구결과를 따라 이를 舌面音으로 기술한다.

어기조사, 보음조사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構造助詞

구조조사는 ‘斯’, ‘攸’, ‘所’, ‘者’, ‘之’ 등 5개로서 그 韻部와 聲母, 陰陽入 三聲은 다음과 같다.

	韻部	聲母	陰陽入 三聲
1. 之	之部	照母	陰聲
2. 者	魚部	照母	陰聲
3. 斯	支部	心母	陰聲
4. 所	魚部	山母	陰聲
5. 攸	幽部	喻母	陰聲

『詩經』의 구조조사는 많지 않아서, 聲母나 韻部 중에서 어떤 語音이 많이 나타나는지의 특징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陰陽入 三聲에서 陰聲韻만 나타나고 있다.

『詩經』에서 구조조사로 쓰이는 글자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는 『詩經』의 보음조사가 무수히 많은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들끼리는 어음적 공통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법 역할이 같은 구조조사끼리는 聲母나 韻部가 같거나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명사구를 이루는 ‘所’와 ‘者’는 같은 魚部로 疊韻이다. 이와 같은 예는 적지 않으며, 이것으로 보아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어음끼리는 같은 어법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語氣助詞

어기조사는 ‘矣’, ‘止’, ‘斯’, ‘其’, ‘兮’, ‘也’, ‘爾’, ‘焉’, ‘哉’, ‘者’, ‘乎’, ‘居’, ‘諸’,

‘猗’, ‘與’, ‘只’, ‘且’, ‘而’, ‘旃’, ‘有’, ‘是’, ‘之’, ‘則’, ‘若’, ‘然’, ‘如’, ‘于’ 등 27개이며 그 韻部와 聲母, 陰陽入 三聲은 다음과 같다.

	韻部	聲母	陰陽入三聲
1. 矣	之部	匣母	陰聲
2. 止	之部	照母	陰聲
3. 斯	支部	心母	陰聲
4. 其	之部	見母	陰聲
5. 兮	支部	匣母	陰聲
6. 也	歌部	喻母	陰聲
7. 爾	脂部	日母	陰聲
8. 焉	元部	影母	陽聲
9. 哉	之部	精母	陰聲
10. 者	魚部	照母	陰聲
11. 乎	魚部	匣母	陰聲
12. 居	魚部	見母	陰聲
13. 諸	魚部	照母	陰聲
14. 猗	歌部	影母	陰聲
15. 與	魚部	喻母	陰聲
16. 只	支部	照母	陰聲
17. 且	魚部	精母	陰聲
18. 旃	元部	照母	陽聲
19. 是	支部	禪母	陰聲
20. 有	之部	匣母	陰聲
21. 而	之部	日母	陰聲
22. 若	鐸部	日母	入聲

23. 然	元部	日母	陽聲
24. 如	魚部	日母	陰聲
25. 于	魚部	匣母	陰聲
26. 之	之部	照母	陰聲
27. 則	職部	精母	入聲

語氣助詞에서는 韻部를 보면 魚部가 8개, 之部가 7개로 많이 나타나고, 支部가 4개, 나머지는 한 두 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聲母 方面에서는 舌面音이 1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牙音이 7개로 많으며, 齒頭音이 4개, 喉音이 2개이다.

陰陽入 三聲에서는 陰聲韻이 22개로 대부분이며, 陽聲韻이 3개이고, 入聲韻은 2개이다.

여기조사는 聲母에서 舌音과 牙音이 많이 보이는데, 舌音에서도 舌面音이 53%, 牙音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舌面音과 牙音을 합하면 여기조사의 전체의 79%에 이르고 있다. 舌面音은 그 발음부위가 중간에 있으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발음이다. 牙音은 발음 부위가 뒤쪽으로, 이는 강하게 감정을 발산하기에 적합한 소리이며, 音律이 길게 늘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舌面音과 牙音이 많다는 것은 결국 發聲의 편리성과 감정의 발산과 관계있는 소리가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조사는 韻部の 경우 ‘之部’, ‘魚部’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之部’, ‘魚部’는 여기조사에서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 韻部들의 주요모음은 모두 /-a-/, /-ə-/로서 모두 開口度가 크거나, 혹은 큰 편에 속하는 모음들이다. 이러한 모음들은 開口度가 크고, 뚜렷하며 길게 늘이기가 쉬우므로 여러 가지 語氣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더 적합한 면이 있다.

여기 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入聲韻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조사의 韻部는 대부분 陰聲韻이며, 陽聲韻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입성운은 운미가 /-p/, /-t/, /-k/와 같이 폐쇄음으로 끝나는 韻을 말하는데 이는 보음 조사의 文頭에 입성운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능이 비슷한 몇몇 어기조사들끼리 어음의 유사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실사의 뒤에서 형용의 어기를 강조하는 ‘若’, ‘而’, ‘然’, ‘如’는 聲母가 모두 日母로 雙聲이 되고 있다.

3) 補音助詞

補音助詞는 『詩經』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亦’, ‘誕’, ‘逝’, ‘云’, ‘無’, ‘爰’, ‘不’, ‘維’, ‘居’, ‘侯’, ‘伊’, ‘適’, ‘式’, ‘越’, ‘載’, ‘抑’, ‘曰’, ‘思’, ‘噬’, ‘以’, ‘斯’, ‘夷’, ‘或’, ‘且’, ‘乎’, ‘攸’, ‘只’, ‘焉’, ‘哉’, ‘茲’, ‘忌’, ‘員’, ‘生’, ‘言’, ‘薄’, ‘聿’, ‘胥’, ‘期’, ‘其’ 등 39개이며 聲母와 韻部, 陰陽入 三聲은 다음과 같다.

	韻部	聲母	陰陽入三聲
1. 亦	鐸部	喻母	入聲
2. 誕	元部	定母	陽聲
3. 逝	月部	禪母	入聲
4. 云	文部	匣母	陽聲
5. 無	魚部	明母	陰聲
6. 爰	元部	匣母	陽聲
7. 不	之部	幫母	陰聲
8. 維	微部	喻母	陰聲
9. 侯	侯部	匣母	陰聲
10. 伊	脂部	影母	陰聲
11. 適	物部	定母	入聲
12. 式	職部	審母	入聲
13. 越	月部	匣母	入聲
14. 載	之部	精母	陰聲
15. 抑	質部	影母	入聲
16. 曰	月部	匣母	入聲
17. 思	之部	心母	陰聲

18. 噎	月部	禪母	入聲
19. 以	之部	喻母	陰聲
20. 斯	支部	心母	陰聲
21. 夷	脂部	喻母	陰聲
22. 或	職部	匣母	入聲
23. 且	魚部	精母	陰聲
24. 居	魚部	見母	陰聲
25. 乎	魚部	匣母	陰聲
26. 攸	幽部	喻母	陰聲
27. 只	支部	照母	陰聲
28. 焉	元部	影母	陽聲
29. 哉	之部	精母	陰聲
30. 忌	之部	群母	陰聲
31. 茲	之部	精母	陰聲
32. 員	文部	匣母	陽聲
33. 胥	魚部	心母	陰聲
34. 期	之部	見母	陰聲
35. 其	之部	見母	陰聲
36. 言	元部	疑母	陽聲
37. 薄	鐸部	并母	入聲
38. 聿	物部	喻母	入聲
39. 生	耕部	山母	陽聲

補音助詞에서는 聲母를 살펴보면 牙音 13개, 舌面音이 10개, 齒頭音 7개, 喉音이 3개, 脣音 3개, 舌頭音 2개, 正齒音이 1개로 나타났다.

韻部를 보면 之部 9개, 魚部 5개, 月部 4개, 元部가 3개이며, 나머지는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陰陽入 三聲은 陰聲韻이 21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入聲韻 11개, 陽聲韻 7개 순으로 나타났다.

보음조사는 순수하게 소리에만 의존하여 음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助詞이기 때문에 그 발음은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발성된다.

보음조사의 聲母를 살펴보면 전체 보음조사에서 舌面音이 23%, 牙音이 30%로 모두 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기조사의 성모 종류가 4개(설면음, 아음, 치두음, 후음)로 단순한데 비하여, 성모의 종류가 7개(설면음, 설두음, 아음, 치두음, 정치음, 후음, 순음)로 다양하다.

특히 文頭에 오는 조사인 경우 ‘亦’, ‘聿’, ‘維’, ‘適’, ‘攸’ 등의 글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글자의 어음은 모두 舌面音의 喻母에 속한다.

張仁明은 고대인들은 종종 말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소리를 내었는데 만약 들리는 소리를 기록해야 한다면 문자로서 이러한 소리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음조사의 ‘發聲詞’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⁷⁴⁾ 보음조사의 어음을 분석해 본 결과 그의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보음조사의 韻部를 살펴보면 之部와 魚部가 다른 운부보다 약간 많지만, 전체의 33%로 어기조사의 57%에 비해 더 낮으며, 어기조사에 비해 그 운부가 매우 다양한데 15종류 韻部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로서 보음조사는 어기조사보다 語音적인 면에서 좀 더 다양한 語音이 많음을 알 수 있다.

陰陽入 三聲에서의 특징은 보음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하여 入聲韻이 더 많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入聲韻은 특히 ‘亦’, ‘逝’, ‘聿’, ‘適’, ‘式’, ‘越’, ‘則’, ‘薄’, ‘抑’, ‘曰’과 같이 문장의 처음에 오는 조사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入聲이 문장의 가장 처음에 오게 되면 語音이 두드러지므로, 듣는 사람의 주목을 끄는 효과가 있다. 이는 다른 구조조사나 어기조사에 비해 보음조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語音 特徵

앞에서 『詩經』 조사의 상고음을 분석해 본 결과 세 종류 조사의 韻部에서는 대체로 之部, 魚部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聲母에서는 舌面音과 牙音이

174) 張仁明, 「語音是助詞的核心」, 『畢節師專學報』, 1994年, 第1期, 44쪽.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陰陽入 三聲은 세 종류에서 모두 陰聲韻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사 간의 어음적 특징을 운부와 성모 면에서 다시 분석해 보고, 또한 각 조사의 개별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위의 분석을 토대로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조사 전체의 어음 특징이나 조사 간 어음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조사의 기능 및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 聲母에서의 特徵

다음으로 聲母에서의 전체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發音部位		助詞 聲母	비율
喉音		影5	7%
牙音		見5, 溪0 群1, 疑1, 曉0, 匣13	25.9%
舌音	舌頭音	端0, 透0, 定2, 泥0, 來0	2.8%
	舌面音	照9, 穿0, 神0, 日5, 喻8, 審1, 禪3	36.6%
齒音	正齒音	莊0, 初0, 牀0, 山2, 俟0	2.5%
	齒頭音	精7, 清0, 從0, 心5, 邪0	16.9%
脣音		幫1, 滂0, 并1, 明1	3.8%

위의 표를 살펴보면 聲母는 舌面音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舌音은 그 발음부위가 중간에 있으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발음이다.

다음으로는 牙音이 많은데 발음 부위가 뒤쪽으로, 이는 강하게 감정을 발산하기에 적합한 소리이며, 音律이 길게 늘어지는 것과 관계있다. 舌面音은 牙音과 함께 전체 조사의 62.5%에 달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詩經』 조사에 대체로 舌音, 牙音이 많은 원인에는 보음조사의 소리 특징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牟玉華가 분석한 현대 中國民歌에 나타난 조사의 94.1%가 喉音과 舌音에 집중되어 있는데 喉音이 64.7%, 舌音이 29.4%라고 하였다.¹⁷⁵⁾ 이는 『詩經』과 현대민가의 조사 어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牟玉華의 상고음 기준이 王力의 초기 연구 결과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어음 분류에는 牙音이 없다. 그러나 『同源字典』에 근거한 王力의 후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牟玉華가 분석한 현대중국민가 助詞의 喉音은 影母를 제외하고 모두 牙音에 속한다.

결국 그 聲母의 명칭만 다를 뿐 『詩經』의 조사든 현대 민가의 조사든 모두 비슷한 語音¹⁷⁶⁾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韻部에서의 特徵

『詩經』의 구조조사, 어기조사, 보음조사의 上古音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먼저 韻部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ə	e	a	o	ô	u	
-○類	之17	支7	魚15	侯1	宵0	幽2	
-ng類	蒸0	耕1	陽0	東0		覺0	
-k類	職3	錫0	鐸3	屋0	沃0		
-i類	微1	脂3	歌2				
-t類	物2	質1	月4				
-n類	文2	眞0	元7				
-p類	緝0		盍0				
-m類	侵0		談0				
계	25	12	31	1	0	2	71

175) 牟玉華, 「『詩經』補字研究」, 『樂山師範學院學報』, 2004年, 第6期, 50쪽.

176) 즉, 見, 溪, 群, 疑, 曉, 匣 및 照, 穿, 神, 日, 喻, 審, 禪 계통이다.

위의 표에서 韻部는 之部와 魚部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전체의 79%에 해당하는데, 之部와 魚部の 주요모음은 /-a-/, /-ə-/이다.

/-a-/는 구강의 앞쪽에서 발음되는 모음으로 혀의 위치는 낮으며, /-ə-/는 구강의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모음으로 발음하기가 매우 쉽다.

牟玉華는 中國現代民歌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대 민가 조사의 주요모음 역시 /-a-/, /-ə-/에 집중된다고 하였다.¹⁷⁷⁾ 조사의 주요모음이 /-a-/, /-ə-/에 집중되는 것은 결국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쉽게 발음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음성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陰陽入 三聲을 보면 陰聲韻이 많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모음으로 끝나는 開音節이기 때문에 노래가사의 連音에 적합해서일 것이다.

3. 押韻 特徵

中國이나 外國 古代의 詩歌에는 모두 일정한 율격이 있으며 用韻은 시가의 율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詩經』 305편 중에서 國風이나 大雅, 小雅에는 모두 韻이 있다.¹⁷⁸⁾ 시가를 잘 이해하려면 그 격률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어떤 韻을 사용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詩經』의 조사와 韻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고찰하기 전에 먼저 韻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韻은 단지 주요모음(韻腹)과 韻尾(만약 韻尾가 있다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韻母와는 다른 개념이다. 韻部는 聲母를 제외한 운두, 운복, 운미를 모두 포괄하는데 다시 말해 韻은 韻腹 이하를 가리키고, 韻母는 韻頭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韻頭가 다른 檀/tán/, 干/gān/, 漣/lián/, 塵/chán/, 貍/huán/, 餐/cān/ 등의 글자는 서로 압운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압운되는 글자들을 같은 위치에 놓아 詩韻을 구성하게 되는데 詩韻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에 쓰이는 것이어서 韻脚이라고 부른다.

177) 牟玉華, 「『詩經』補字研究」, 『樂山師範學院學報』, 2004年, 第6期, 50쪽.

178) 그러나 頌篇 清廟, 時邁 등의 작품에는 韻이 없다.

王力은 『古代漢語』에서 『詩經』 6篇의 用韻을 예로 들며 어떤 곳이 用韻인지 아닌지, 또 어떤 형식으로 用韻이 되는지, 그러한 用韻의 격식이 전체 『詩經』의 韻例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詩句의 마지막 글자가 조사나 대사로 끝나는 경우인데 韻은 대체로 이러한 조사나 대사의 앞에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⁷⁹⁾ 이런 경우 대사인 경우에는 ‘之’가 많이 나타나는데 ‘之’가 일관되게 나타나기도 하며¹⁸⁰⁾ 같은 篇章에 ‘兮’, ‘猗’와 같은 두 종류의 조사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¹⁸¹⁾

그는 문장의 끝에 조사나 조사가 나타나는 것을 虛字¹⁸²⁾라 하고 이를 ‘虛字脚’이라 하였다. 王力은 『詩經韻讀』에서 총 14개의 虛字脚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代詞를 虛字로 귀속시켜서 ‘之’, ‘我’, ‘女’도 ‘虛字脚’에 귀속시켰다. 王力이 제시한 虛字脚을 살펴보면 위의 3개의 代詞를 제외하고 모두 조사에 해당된다.¹⁸³⁾

그는 文末에 虛字가 오는 경우 韻은 대체로 마지막 두 번째 자리에 오며 이를 ‘富韻’이라 하였는데 사실상 두 개의 韻脚을 구성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⁸⁴⁾

이와 같이 조사 앞의 글자가 압운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이 외에도 虛字 자체가 압운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助詞 앞의 글자가 押韻되는 경우, 즉 虛字脚이 되는 경우와 助詞가 직접 押韻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押韻例는 王力의 『詩經韻讀』과 向熹 『詩經詞典』의 韻例를 참고하였다.

179) 王 力, 『古代漢語』, 中華書局, 1962年, 534-537쪽.

180)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
參差荇菜 左右芼之 窈窕淑女 鐘鼓樂之 (周南·關雎) 王力, 위의 책, 535쪽.

181) 坎坎伐檀兮 寘之河之干兮 河水清且漣漪 (魏風·伐檀) 王力, 위의 책, 536쪽.

182) 여기서 王力이 말하는 虛字는 주로 압운자의 뒤에 나타나는 글자로서 품사로는 助詞와 대사를 가리킨다. 그는 고대 어법에서 代詞는 虛字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助詞에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므로 본고에서 압운관계에서 언급할 虛字는 助詞의 범위와 같다.

183) 王 力, 위의 책, 48-54쪽.

184) 王 力, 『王力文集』 제6권, 上海古籍出版社, 1980年, 47쪽.

1) 助詞 앞의 글자가 押韻되는 경우

조사가 文末에 올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에 속하는데 여기조사나 文末에 놓이는 보음조사인 경우이다. 이러한 조사에는 ‘兮’, ‘矣’, ‘也’, ‘止’, ‘思’, ‘忌’, ‘只’, ‘焉’, ‘哉’, ‘與’, ‘乎而’ 등이 있으며 한 개의 虛字脚인 경우나, 두 개의 虛字脚인 경우, 혹은 전체 章에 한 개 虛字脚인 경우 등이 있다.

(1) 한 개의 虛字脚이 있는 경우

한 개의 虛字脚이 있는 경우는 ‘兮’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矣’, ‘也’, ‘止’ 순으로 나타난다.

【兮字脚】

- ① 標有梅 其實七兮 求我庶士 迨其吉兮¹⁸⁵⁾ (召南·標有梅)
 ○ △ ○ △
- ② 螽斯羽 詵詵兮 宜爾子孫 振振兮 (周南·螽斯)
 △ △ △ △
- ③ 綠兮絲兮 女所治兮 我思古人 俾無訖兮 (邶風·綠衣)
 △ △ △ △
- ④ 于嗟闕兮 不我活兮 于嗟洵兮 不我信兮 (邶風·擊鼓)
 △ △ ○ ○

兮字脚이며, 예문 ①에서兮字脚인 ‘七’, ‘吉’은 質部이다. 예문 ②에서 ‘詵’, ‘振’은 文部이다. 예문 ③에서 ‘絲’, ‘治’, ‘訖’는 之部이다. 예문 ④에서 ‘闕’, ‘活’은 月部이고, ‘洵’, ‘信’은 眞部이다.

兮字脚은 『詩經』에 69차례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압운자 중에 36%가 입성운이다. 특히 이렇게 입성운이 나타날 때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입성운 중에서도 /-t/류 入聲(月部, 質部)이 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k/류 入聲(鐸部, 職部, 覺部, 沃部)이 32%가 나타난다.

185) ○, △는 서로 韻이 다음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梅’, ‘士’는 之部이며, ‘七’, ‘吉’은 質部이다.

【矣字脚】

- ① 陟彼_△岵矣 我馬_△瘠矣 我僕_△痡矣 云何_△吁矣 (周南·卷耳)
- ② 中谷有_△蕓 嘆其_△乾矣 有女_△叱離 嘒其_△嘆矣 (王風·中谷有蕓)
- ③ 我出我_△車 于彼_△牧矣 自天子_△所 謂我_△來矣 (小雅·出車)
- ④ 漸漸之_△石 維其_△高矣 山川_△悠遠 維其_△勞矣 (小雅·漸漸之石)

矣字脚이며, 예문 ①에서 ‘岵’, ‘瘠’, ‘痡’, ‘吁’는 魚部이다. 예문 ②에서 ‘乾’, ‘嘆’은 元部이다. 예문 ③에서 ‘牧’은 職部, ‘來’는 之部이다. ‘之’와 ‘職’은 通韻¹⁸⁶⁾이다. 예문 ④에서 ‘高’, ‘勞’은 宵部이다.

矣字脚은 『詩經』에 29차례가 나타나며 압운자 중에 37%가 入聲韻이다. 그러나 兮字脚처럼 入聲韻의 어떤 뚜렷한 특징이 없으며 /-k/류 入聲이 45%, /-t/류 入聲이 36%, /-p/류 入聲이 18%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也字脚】

- ① 何其_△處也 必有_△與也 何其_○久也 必有_○以也 (邶風·旄丘)
- ② 牆有_△茨 不可_△掃也 中_△蕓之言 不可_△道也 (鄘風·牆有茨)
- ③ 乃如_△之人也 懷_△昏姻也 大_△無信也 不知_△命也 (鄘風·蟋蟀)
- ④ 中_△蕓之言 不可_△讀也 所_△可讀也 言之_△辱也 (鄘風·牆有茨)

也字脚이며 예문 ①에서 ‘處’, ‘與’는 魚部, ‘久’, ‘以’는 之部이다. 예문 ②에서 ‘掃’, ‘道’는 幽部이다. 예문 ③에서 ‘人’, ‘姻’, ‘信’, ‘命’은 眞部이다. 예문 ④에서 ‘讀’, ‘讀’, ‘辱’은 屋部이다.

186) 주요모음이 동일한 陽聲韻, 陰聲韻, 入聲韻 간에 서로 압운되는 현상이다.

也字脚은 『詩經』에 17차례가 나타나며, 압운자 중 入聲韻은 세 차례 나타나는데, 모두 /-k/류 입성으로 屋部, 沃部, 錫部만 나타난다.

【止字脚】

- ① 采薇采薇 薇亦柔止 曰歸曰歸 心亦憂止 (小雅·采薇)
 ○ △ ○ △
- ② ……魯道有蕩 齊子由歸 既曰歸止 曷又懷止 (齊風·南山)
 △ △ △
- ③ ……日月陽止 女心傷止 征夫遑止……卉木萋止 女心悲止 征夫歸止 (小雅·杕杜)
 △ △ △ ○ ○ ○
- ④ 匪媒不得 既曰得止 曷又極止 (頌·閔予小子)
 △ △ △

止字脚이며 예문 ①에서 ‘薇’, ‘歸’는 微部, ‘柔’, ‘憂’는 幽部이다. 예문 ②에서 ‘歸’, ‘歸’, ‘懷’는 微部이다. 예문 ③에서 ‘陽’, ‘傷’, ‘遑’은 陽部이다. ‘萋’는 脂部, ‘悲’, ‘歸’는 微部이다. 脂부와 微부는 合韻¹⁸⁷⁾이다. 예문 ④에서 ‘得’, ‘得’, ‘極’은 職部이다.

止字脚은 『詩經』에 11차례가 나타나며, 압운자 중 入聲韻은 세 차례 나타나는데, 모두 /-k/류 입성으로 覺部, 職部, 鐸部가 나타난다.

【기타】

- ① 叔善射忌 又良御忌 抑磬控忌 抑縱送忌 (鄭風·大叔于田)
 △ △ ○ ○
- ② 母也天只 不諒人只 (鄘風·柏舟)
 △ △
- ③ 有苑者柳 不尙息焉 上帝甚蹈 無者暱焉 (小雅·苑柳)
 ○ △ ○ △
- ④ 懷哉 懷哉 曷月予還歸哉 (王風·揚之水)
 △ △

187) 合韻의 경우는 주요모음이 비슷한 경우, 주요모음이 비슷하지만 對轉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혹은 韻尾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脂부와 微부는 각각 /-ei/, /-ai/로 韻尾가 같은 合韻이다.

⑤ 猗與 那與 (頌·那)
 △ △

⑥ 俟我於著乎而 充耳以素乎而 尚之以瓊華乎而 (齊風·著)
 △ △ △

兮, 矣, 也, 止字脚 이외에도 ‘忌’, ‘只’, ‘焉’, ‘哉’, ‘與’, ‘乎而’ 등의 앞 글자가 押韻되는 경우도 있다. 예문 ①에서 ‘射’는 鐸部, ‘御’는 魚部이다. ‘魚’와 ‘鐸’은 通韻이다. ‘控’, ‘送’은 東部이다. 예문 ②에서 ‘天’, ‘人’은 眞部이다. 예문 ③에서 ‘息’, ‘嘒’은 職部이다. 예문 ④에서 ‘懷’, ‘歸’는 微部이다. 예문 ⑤에서 ‘猗’, ‘那’는 歌部이다. 예문 ⑥에서 ‘著’, ‘素’, ‘華’는 魚部이다.

(2) 두 개의 虛字脚이 있는 경우

① 漢之廣矣 不可泳思 江之永矣 不可方思 (周南·漢廣)
 △ △ △ △

② 旄丘之葛兮 何誕之節兮 叔兮伯兮 何多日也 (邶風·旄丘)
 △ △ △ △

③ 遵大路兮 摻執子之手兮 無我隤兮 不寔好也 (鄭風·遵大路)
 △ △ △ △

④ 坎坎伐檀兮 寘之河之干兮 河水清且漣漪 (魏風·伐檀)
 △ △ △

예문 ①에서 ‘廣’, ‘泳’, ‘永’, ‘方’은 陽部이며 陽部에 두 가지의 助詞 ‘矣’, ‘思’가 번갈아 나타난다. 예문 ②에서 ‘葛’은 月部이며, ‘節’과 ‘日’은 質部이다. ‘質’, ‘月’은 合韻¹⁸⁸⁾이다. 助詞 ‘兮’와 ‘也’가 함께 나타난다. 예문 ③에서 ‘手’, ‘隤’, ‘好’는 幽部이다. 幽部에 역시 ‘兮’, ‘也’가 함께 나타난다. 예문 ④에서 ‘檀’, ‘干’, ‘漣’은 元部이다. 元部에 ‘兮’, ‘漪’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 가지 助詞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한 가지 助詞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88) 質部, 月部는 韻部가 /-et/, /-at/으로 韻尾가 같은 合韻이다.

(3) 章189)에 한 개 虛字脚인 경우

① 嚶其鳴矣 求其友聲 相彼鳥矣 猶求友聲 (小雅·伐木)
 △ △ △ △

② 我孔熯矣 式禮莫愆 工祝致告 徂賚孝孫 (小雅·楚茨)
 △ △ △ △

③ 無易由言 無曰苟矣 莫捫朕舌 言不可逝矣 (大雅·抑)
 △ △ △ △

전체 章에 한 개의 虛字脚이 있는 경우로 이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矣字脚’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예문 ①의 ‘嚶其鳴矣’에서 ‘矣’ 앞의 ‘鳴’이 압운을 이룬다. ‘相彼鳥矣’에서 ‘鳥’는 압운이 아니다. ‘鳴’, ‘聲’, ‘聲’은 耕部이다. 예문 ②에서 ‘熯’, ‘愆’은 元部이며 ‘孫’은 文部이다. ‘寒’, ‘文’은 合韻이다.¹⁹⁰⁾ 예문 ③에서 ‘無曰苟矣’의 ‘苟’는 압운이 아니다. ‘舌’과 ‘逝’은 月部이다.

2) 助詞가 직접 押韻되는 경우

조사 앞의 글자가 押韻되는 경우만큼 많지는 않으나 조사가 직접 압운되는 경우이며 ‘乎’, ‘矣’, ‘且’, ‘哉’, ‘止’, ‘思’ 등이 있다.

① 宜爾室家 樂爾妻帑 是究是圖 亶其然乎 (小雅·常棣)
 △ △ △ △

② 徹我牆屋 田卒汙萊 曰予不戕 禮則然矣 (小雅·十月之交)
 △ △ △ △

③ 終南何有 有條有梅 君子至止 錦衣狐裘 顏如渥丹 其君也哉 (小雅·巧言)
 △ △ △ △ △

④ 我任我輦 我車我牛 我行既集 蓋云歸哉 (小雅·黍苗)
 △ △ △ △

189) ‘章’은 王力이 사용한 용어를 따른 것이다. 王力, 『詩經韻讀』(王力文集 第6卷), 上海古籍出版社, 1980年.

190) 元部, 文部는 韻部가 /-an/, /-ən/으로 韻尾가 같은 合韻이다.

⑤ 訪子落止 率時昭考 於乎悠哉 朕未有艾 (頌·訪落)
△ △

⑥ 敬之敬之 天維顯思 命不易哉 (頌·敬之)
△ △ △

⑦ 北風其涼 雨雪其雱 惠而好我 攜手同行 其虛其邪 既亟只且 (邶風·北風)
○ ○ ○ △ △

예문 ①에서 ‘家’, ‘帑’, ‘圖’, ‘乎’는 魚部이다. 조사 ‘乎’가 직접 압운되었다. 예문 ②에서 ‘萊’, ‘矣’는 之部이다. 조사 ‘矣’가 직접 압운되었다. 예문 ③에서 ‘有’, ‘梅’, ‘止’, ‘裘’, ‘哉’는 之部이다. 之韻에 조사 ‘止’와 ‘哉’가 각각 압운되었다. 예문 ④에서 ‘牛’, ‘哉’는 之部이다. 조사 ‘哉’가 압운되었다. 예문 ⑤에서 ‘止’, ‘考’는 之部이다. 조사 ‘止’가 압운되었다. 예문 ⑥에서 ‘之’, ‘思’, ‘哉’는 之部이다. 조사 ‘思’와 ‘哉’가 각각 압운되었다. 예문 ⑦에서 ‘涼’, ‘雱’, ‘行’은 陽部이며 ‘邪’, ‘且’는 魚部이다. 魚部에서 조사 ‘且’가 직접 압운되었다.

IV. 『詩經』 助詞의 發生

字形과 字音이 항시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듯이, 詞義 역시 시간 공간의 조건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 詞가 가리키고자하는 객관적인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귀납해 본다면 크게 두 부류를 넘지 않는데, 하나는 객관세계의 여러 실체 존재이며(인류의 인식과정에 있는 ‘鬼’·‘神’과 같은 허상의 실제 및 ‘時’·‘空’과 같은 명물관념도 포함한다) 그것을 통칭하여 ‘物’이라 하였다. 다른 하나는 각종물체의 관련성질, 상태, 행위 및 그들의 상호관계 등으로 그것을 통칭하여 ‘事’라고 하였다. 따라서 詞의 내용을 “物名”과 “事名”의 큰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소위 詞義의 변화란 동일한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시간, 공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상황을 말한다. 詞義의 변화는 크게 物名 내용의 변화, 事名 내용의 변화, 物名과 事名 간의 상호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¹⁹¹⁾

한자가 나타내는 詞義의 종류에는 本義, 引伸義, 假借義 등이 있는데 本義는 混合, 變易, 分化 등의 방법으로 변천되어 引伸義, 假借義 등을 가지게 된다.

混合이란 자형이 상이한 몇 개의 한자들이 본래 뜻이 같거나 유사해서 그 중 한 자로 합해지든가, 혹은 고대에는 구별되었던 의미가 지금은 상호 혼동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沐’, ‘沫’, ‘浴’, ‘澡’, ‘洗’ 등은 각각 머리, 얼굴, 몸, 손, 발 등을 씻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대상에 관계없이 심지어 사물을 씻는 일까지도 일률적으로 ‘洗’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의 混合이다.

變易이란 먼저 생긴 글자의 본 뜻이 변한 글자이다. 예를 들어 ‘亦’은 본래 사람의 ‘겨드랑이’를 본뜬 지사자인데 후에 ‘腋’이 생기게 되자, ‘亦’의 本義가 변하여 ‘또’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假借와 관련이 있다.

分化란, 혼합과 반대로 동일 字形을 가진 한자가 본 뜻 외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로 확대되는 詞義의 변천 과정을 말하는데 그 원인에는 대체로 引伸, 假借 등이 있다.

따라서 의미의 변화과정에서 變易과 分化는 引伸이나 假借와 관련이 된다.

191) 孫雍長, 『訓詁原理』, 語文出版社, 1997年, 283쪽.

引伸이란 『周易·繫辭上』의 ‘引而伸之 觸類而長之(이끌어 퍼서 종류에 따라 늘려나가다)’에서 따온 말로서, 어떤 詞義가 본 뜻으로부터 의미적 상관성을 매개로 다른 뜻으로 확대 발전한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인신되었다’는 것은 본의와 인신의 사이에 공유하는 의미 자질과 공유하지 않는 의미 자질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즉 본의와 인신의 또는 인신의와 인신의 사이에 어떤 의미자질을 공유함으로써 의미상 상관성을 맺지만, 한편으로는 공유하지 않는 의미 자질이 있음으로서 해서 의미상 차이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向’의 本義는 ‘북쪽을 향해 난 창’인데, 그 안에는 ‘북쪽’, ‘향하다’, ‘창’ 이라는 몇 개의 의미 자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북쪽’과 ‘창’ 두 가지의 의미 자질이 감소되고 ‘향하다’라는 의미 자질만이 증가하면서 ‘향하다’라는 인신의가 생성된 것이다.

假借는 『說文』에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가차는 본래 그 글자가 없어 소리를 빌어 의미(事)를 기탁한 것이다)’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본래의 문자가 없을 때 따로 새 문자를 만들지 않고音が 같거나 혹은 유사한 기존의 문자를 빌어쓰는 운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雅’의 本義는 ‘가마귀’를 칭한 자였는데 가차되어 이와는 무관한 雅俗의 ‘雅’ 즉 ‘바르다’¹⁹²⁾, ‘정통·규범’¹⁹³⁾의 뜻이 되었다.

『詩經』 조사의 發生은 詞義의 引伸, 假借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대체로 의미의 分化나 變易에 속한다.

李敦柱는 漢文의 이른바 虛詞는 대개가 假借에 의하여 본래의 뜻이 바뀐 대표적인 예¹⁹⁴⁾라고 하였는데, 虛詞는 대부분이 假借된 것이지, 모든 허사가 假借義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는 本義, 引伸義와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의 本義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本義란 그 글자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당시의 본래 의미이다. 본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字形을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자의 造字 원리상 자형은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 그것으로 지칭하고자 하는 개념을 그 속에 반영하게 마

192) 察納雅言 (바른 말을 살펴 받아들이다) 諸葛亮 「出師表」

193) 惡鄭聲之亂雅樂也 (어찌 정나라 음악이 정통 음악을 어지럽히겠는가?) 『論語』 陽貨

194)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1979年, 685쪽.

런이기 때문이다.¹⁹⁵⁾ 그러나 許愼은 갑골문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갑골문 字形을 통한 本義 분석이 불가능했고, 후대의 甲骨文 字形 분석 또한 그 本義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本義에 대한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

갑골문 本義에 대한 연구는 문자학 분야에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연구이고, 방대한 자료와 고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章에서 『詩經』 조사의 60개 字形의 本義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本章에서의 설명은 『漢字源流字典』¹⁹⁶⁾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물론 본 字典 역시 本義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漢字源流字典』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甲骨文, 金文을 두루 고찰하여 글자의 本義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의의 기준을 『漢字源流字典』에 두고자 한다.

本章의 연구 방법은 『說文』의 해석과 『漢字源流字典』의 해석이 같을 경우는 관계 없지만, 다를 경우에는 『漢字源流字典』의 本義를 기준으로 하고, 약간의 참고할 부분은 『形音義綜合大字典』¹⁹⁷⁾을 참고하고자 한다. 기술 방법은 60개 조사에 대한 本義 설명을 위해 『說文』의 해석을 처음에 두고 위의 연구 방법과 기준을 통해 本義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매 글자마다 『詩經』의 용례를 들어 그 本義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의 發生을 고찰하는 데 있어, 그 기준에 異見이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본 章에서의 연구 목적은 그 발생에 있어 실사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에 어떤 기제가 작용하여 조사가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助詞가 단지 假借義로만 발생한 것인지

195) 물론 그 자형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글자가 하나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고 가장 원시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자형에 반영되어 있는 의미는 그 글자가 그 자형을 가지고 쓰인 이래로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의미이므로 현재의 우리로서는 여전히 그것을 그 글자의 본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형의 분석이 본의 판별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 글자의 용례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 자형은 단지 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시 작용만 할 뿐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형에 구애되어 본의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19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97)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의미 방면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本章에서는 『詩經』 조사의 발생을 詞義와 관계된 경우, 語音과 관계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하나의 글자가 여러 조사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¹⁹⁸⁾에는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미와 관련된 경우의 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설명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생략할 것이다.¹⁹⁹⁾ 그러나 이는 바꾸어 말해, 하나의 글자가 조사의 성격에 따라 의미와 관계있기도 하고 관계없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詩經』 助詞를 詞義와 관계된 경우와 語音과 관계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引伸된 경우

이영주의 『漢字字義論』에 따르면 詞義에는 概念義²⁰⁰⁾ 외에 色彩義²⁰¹⁾, 語法義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는 이 모두에 대해 詞義의 인신 현상을 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이 중에 조사의 발생과 관련되는 인신 현상은 ‘語法義의 引伸’이라 본다. 그에 따르면 ‘어법의의 인신’은 주로 품사의 변화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觀’은 본의가 ‘자세히 보다’이고 인신되어 ‘觀望하다’의 의미로도 쓰였고, 다시 인신되어 ‘宮觀’을 지칭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개념의가 변화하면서 품사도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게 된 경우라고 하였다.²⁰²⁾

198) 예를 들어 ‘斯’는 세 종류(구조조사, 어기조사, 보음조사) 조사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199) 『詩經』의 조사로 사용된 글자는 60개이지만 전체 조사의 용법은 71개로, 같은 글자가 중복되어 여러 조사로 기능하기 때문에 서로 글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의미를 기준으로 기술하여 설명의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조사의 용례가 부족한 부분은 Ⅱ장과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200) 이영주는 개념의의 인신추세를 확대식, 축소식, 전이식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년, 79쪽.

201) 예를 들어 ‘朕’은 특별한 감정 색채를 가지지 않은 중성자이지만 축소식의 인신과정을 거쳐 황제만을 전칭하며 고유한 감정색채를 가지게 되었다.

202) 이영주, 위의 책, 104쪽.

그러나 이 역시 개념의가 변화하면서 어법의가 인신된 것으로 개념의를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語法義의 인신은 없다. 그는 實詞에 대하여 ‘語法義의 引伸’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虛詞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실사인 ‘其’, ‘斯’, ‘是’, ‘之’는 처음에는 명사를 지칭하는 대사였다. 그러나 점차 명사뿐 아니라 동사, 형용사를 지칭하게 되면서 그 개념의가 확대되었고, 확대된 개념의의 범위는 점차 모호해져 품사 역시 대사에서 조사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조사로는 ‘其’, ‘斯’, ‘是’, ‘之’, ‘于’, ‘來’, ‘有’, ‘而’, ‘若’, ‘如’, ‘然’ 등 11개가 있다. 『詩經』에서 조사로 쓰이는 용법은 이러한 글자들이 허사로 변화된 것이지만 개념의가 확대되어 실사 의미에서 인신된 경우이다. 따라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의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 뒤 실사의 語氣를 더 강화해 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조사들은 대부분 어기조사의 역할을 하는 조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기조사는 그 자체에도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조사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其’, ‘斯’, ‘之’, ‘是’는 代詞에서 인신된 경우이며, ‘而’, ‘若’, ‘如’, ‘然’은 ‘같다, 그러하다’의 의미로 형용사에서 인신된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本義를 기점으로 인신되기 때문에 본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본의가 인신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주요한 인신의가 본의를 대신하여 인신의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時’의 本義는 ‘계절’이지만 실제로는 인신의인 ‘때’를 중심으로 하여 의미가 인신되어 간다. 즉 ‘시대’, ‘기회’, ‘때때로’ 등은 모두 ‘때’의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本節에서 언급하는 실사들 역시 本義가 아닌 경우이며, 대부분 『詩經』 속에서 실제로 쓰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含意는 본의를 기준으로 할 때 인신이나 가차의 어떤 작용이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詩經』에 나타난 조사가 실사에서 인신된 경우는 엄밀히 말해 본의에서 직접적으로 인신된 것이 아니며, 引伸의 引伸, 혹은 假借의 引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本節에서 말하는 인신은 실사끼리의 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앞이나 뒤 실사의 어기를 강

화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이런 조사들은 실사에서 허화되어 간 것이지만, 완전히 실사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실사 의미를 가지고, 앞 뒤 다른 실사의 의미강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1) 代詞에서 引伸

代詞에서 인신된 경우는 ‘其’, ‘斯’, ‘之’, ‘是’가 있다. ‘其’, ‘之’는 聲母가 之母로 雙聲이다. 이것으로 볼 때, 引伸된 경우지만 語音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사들은 대체로 어음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其 】

箕, 籩也. 从竹; 其, 象形; 下其丌也. 『說文』箕部

箕는 곡식을 고르는 것이다. 竹을 따르고, 其은 키의 형상을 본떴다. 아랫부분의 丌은 키를 고정시키는 받침대이다

代詞 :

桑之未落 其葉沃若 『詩經』衛風·氓

뽕나무잎이 떨어지기 전엔 그 잎새가 싱싱하였네

語氣助詞 :

角弓其觶 束矢其搜 『詩經』魯頌·泮水

뿔 장식한 활은 구부정한데 화살은 다발로 묶여있네

『說文』에 本義는 곡식을 고르는 농구라 하였으며, 甲骨文의 字形도 ‘’로서 『說文』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金文은 ‘’로서 아래 부분에 받침대 ‘’가 가해져 있다. 예변된 후에는 각각 ‘其’와 ‘箕’로 쓰여 졌다.²⁰³⁾

그러나 本義와 관계없이 『詩經』에는 대사로 사용되었고, 이 대사에서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뒤의 실사어기를 강

203)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328쪽.

화해주고 있다.

【 斯 】

析也. 从斤其聲. 『詩』曰: “斧以斯之”. 『說文·斤部』

쫓개는 것이다. 斤을 따르고 其聲이다. 『詩經』에 이르기를 “도끼로 그것을 쫓간다”라 하였다

代詞:

申錫無疆 及爾斯所 『詩經』商魯·烈祖
거듭 끝없이 내리시어 이 곳까지 이르렀네

語氣助詞:

王赫斯怒 爰整其旅 『詩經』大雅·皇矣
임금은 분연히 성내시고 군사들을 동원하였네

本義는 ‘析(쫓개다)’이며²⁰⁴⁾ 『說文』에서는 『詩經』의 ‘斧以斯之’를 인용하여 그 本義를 설명하고 있다. 金文에만 ‘斯’가 보이는데 字形은 ‘𠄎’이며 ‘斤’을 따르고 ‘其’를 따르며 ‘其’는 또한 表聲을 겸하고 있다.²⁰⁵⁾

『詩經』에서 ‘斯’는 위의 예문처럼 本義가 사용된 예도 있으나 대부분 代詞로 사용되다가, 다시 술어 앞에서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뒤의 실사어기를 강화해주고 있다.

【 是 】

直也. 从日. 正.

바르고 곧은 것이다. 日과 正을 따른 회의자이다.

代詞:

萋兮斐兮 成是貝錦 『詩經』小雅·巷伯
얼룩덜룩 아름답게 이 조개무늬 비단을 짜네

204)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680쪽.

205)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642쪽.

語氣助詞：

周公東征 四國是遘 『詩經』國風·破斧

주공의 동쪽 정벌은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았으니

‘是’는 金文에 ‘’와 같은 모양으로 그 중의 짧은 세로 모양은 바르고 곧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本義는 ‘곧게 있다’는 의미이다.²⁰⁶⁾

『說文』의 本義와 관계없이 『詩經』에서는 代詞로 사용되고, 이 代詞에서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뒤의 실사어기를 강화해주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是’는 술어 앞에서 실사의 의미를 강화해 주고 있다. 唐·柳宗元の 『吊屈原文』에서도 역시 비슷한 용법이 나타나고 있다.²⁰⁷⁾

【 之 】

出也。象艸過中，枝莖益大，有所之。一者，地也。『說文·刀部』

자라서 나오는 것이다. 풀이 中의 단계를 거쳐 가지와 줄기가 점차 자라 나오는 모습이다. 一은 땅을 나타낸다.

代詞：

彼人之心 于何其臻 『詩經』小雅·菀柳

저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語氣助詞：

鶉之奔奔 鶉之疆疆 『詩經』鄘風·鶉之奔奔

메추리도 쌍쌍이 날고 까치도 짝지어 노는데

‘之’의 甲骨文은 ‘’이다. 甲骨文의 字形으로 본 本義는 설문과 다른데 甲骨文에서는 之를 따르고 一을 따른다. 止는 발(脚)의 모양이며 一은 땅(地)을 나타낸다. 이는 사람의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 따라서 ‘之’의 本義는 마땅히 ‘나아가다’의 의미이다.²⁰⁸⁾

20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451쪽.

207) 助詞：先生之不從世兮，惟道是就 (선생은 세속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로지 道를 따랐을 뿐이다)
唐·柳宗元 『吊屈原文』

208) 谷衍奎, 위의 책, 34쪽.

本義와 관계없이 『詩經』의 ‘之’는 代詞로 사용되었고 다시 어기조사²⁰⁹⁾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뒤의 실사어기를 강화해주고 있다.

2) 動詞에서 引伸

‘有’, ‘于’, ‘來’는 동사에서 인신된 경우이고 有, 于是 匣母로 雙聲이다.

【于】

於也. 象气之舒亏. 从亏, 从一. 一者, 其气平之也. ……今變隸作于 『說文·亏部』
於이다. 氣가 나와서 고르게 되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亏와 一을 따른다. 一은 氣가 고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오늘날 ‘于’로 變隸되었다.

動詞 :

我服既成 于三十里 『詩經』 南有嘉魚 六月
다 지은 옷을 입고 삼십 리 길을 갔네

語氣助詞 :

叔于田 乘乘馬 『詩經』 鄭風·叔于田
숙이 사냥을 가는데 네 필 말이 끄는 수레를 탔네

‘于’의 本義를 살펴보면, ‘于’의 甲骨文은 ‘𠄎’로 좌변은 입으로 부는 악기의 모양으로 최초에는 아마 간단한 竽(피리)의 모습과 같았을 것이다. 오른쪽의 구불구불한 모양은 악기의 소리가 구성지게 울리는 것이다. 이는 ‘竽’의 初文으로 보이는데 『說文』의 해석은 그 引伸義로서 本義는 피리 소리가 부드럽게 퍼지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²¹⁰⁾

‘于’는 갑골문에서부터 ‘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²¹¹⁾ 『詩經』시기에도 이어지

209) 물론 어기조사 외에 ‘之’의 구조조사 용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사의미와 관계된 경우는 어기조사 이므로 구조조사의 예는 생략하며, 구조조사의 예는 Ⅱ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210)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6쪽.

211) 郭錫良은 개사 ‘于’의 기원에 대하여 갑골문에서부터 동사 용법과 동시에 개사용법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1) 壬寅卜, 王于商. (왕이 商 땅에 갑니다) (합 33124)

다가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뒤의 실사어기를 강화해주고 있다.

『說文』에 ‘于’는 篆文이 ‘亏(亏)’이며 ‘亏, 於也’라 하였으며 段注에도 ‘亏’로 되어 있다. 段玉裁는 ‘于’와 ‘於’의 관계에 대해서 ‘於’는 ‘烏’의 古文이며, 孔子의 말을 인용하여 ‘烏’를 ‘亏呼’(감탄사)라고 하였다. 또한 ‘于’, ‘於’ 두 글자는 古今字²¹²⁾로, 대체로 『詩經』, 『書經』에는 ‘于’를 쓰는데, 『論語』에서는 ‘於’를 쓴다고 하였다.²¹³⁾ ²¹⁴⁾ 段玉裁가 ‘于’, ‘於’를 古今字라 하였지만 『詩經』에 ‘于’, ‘於’는

- (2) 辛卯卜, 王入商. (왕이 商 땅에 들어갑니다) (합 33125)
 (3) 口午卜, 在商貞: 今日于毫, 亡災? (오늘 훗 땅에 가면 재앙이 없을까요?) (합 36567)
 (4) 王勿使人于沚? 若 (왕이 사람을 시켜 沚 땅에 가지 말게 할까요? 그렇다) (합 5530)
 (5) 庚戌卜, 賓貞: 來甲寅侑于上甲, 五牛(돌아오는 甲寅일에 上甲에게 侑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 다섯 마리로 할까요?) (乙編 4747)

예문 (1)~(4)는 동사, (5)는 개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예문 (1), (2)에서 王于商은 왕이 商에 간다는 ‘往’의 의미이며 문장에서 다른 동사는 없다. ‘于商’과 ‘入商’의 구문은 같으며 따라서 ‘于’은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3)에서도 ‘于’ 앞에 다른 동사가 없으며 (4)은 兼語式 문장으로 역시 ‘于’ 앞에 다른 동사가 없다. 예문 (5)는 ‘于’ 뒤에 제사의 대상이 오는 경우로 개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郭錫良, 「介詞‘于’的起源和發展」, 『中國語文』, 1997년, 第2期.

본고에서는 郭錫良의 견해에 따라 ‘于’는 갑골문에서부터 동사 용법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개사 용법도 함께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詞義 변화의 기제에 맞고 ‘于’의 많은 용례로부터 보건대, 이 용법이 공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錢小云은 『詩經』에서 名+于+動의 ‘于’는 조사이며 『爾雅』를 인용하여 ‘于, 曰也’라 하였는데 고대에 ‘曰’은 ‘聿’로 읽혔으며 ‘聿, 于一聲之轉(聿, ‘于’는 같은 소리로 돌려 사용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따라서 그는 ‘黃鳥于飛’는 ‘黃鳥聿飛也’라 하였다. 錢小云, 「『詩經』助詞」, 『南京師大學報』, 1979年, 第1期, 71-72쪽.

錢小云의 견해에 따르면, ‘于’가 조사일 경우에는 字形과 관계 없이 그 字音과 관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용례 전부가 조사 용법은 아니며 일부 동사 용법이 있다고 보는데, 필자는 ‘于’字의 虛實詞 용법, 다시 말해 동사와 조사, 개사 용법이 『詩經』에 모두 共存하고 있다고 보며 조사와 개사는 모두 동사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212) 동일한 의미를 표시하지만 고금의 用字가 다른 한자를 일컫는 말이다. 古今字는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甲類는 古字와 今字의 의미가 동등한 것, 乙類는 그 의미가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갑류 고금자는 일대일의 관계로 今字의 탄생이 한자의 派生分化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즉 고금자가 同字異形에 속하는 것이므로 異體字의 한 부류이다. 을류 古今字는 今字의 생성이 한자의 발전에 나타나는 派生分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의 派生 分化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今字가 古字의 본의로부터 산생된 것 ② 今字가 古字의 인신의로부터 산생된 것 ③ 今字가 古字의 가차의로 인하여 산생된 것이다. 全廣鎭, 『중국문자훈고학사전』, 東文選, 1993年, 106쪽.

213) 於者, 古文烏也, 烏下云, 孔子曰, 烏亏呼也…… 于於二字在周時爲古今字. 故釋詁毛傳以今字釋古字也. 段玉裁, 『說文解字注』,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7年, 204쪽,

214)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개사 용법을 이르는 것인데 이러한 개사 ‘于’의 용법은 갑골시기부터 춘추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후대에 甲本에서 乙本으로 刻印할 때 각인자의 의도에 따라 글자가 混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於’는 『詩經』에서 대부분 嘆詞로 사용되고 있는데²¹⁵⁾ ‘于’의 일부 용법도 嘆詞로 사용되고 있다.

【來】

周所受瑞麥來麴. 一來二縫. 象芒束之形. 天所來也. 故爲行來之來. 『詩』曰: “詒我來麴.” 『說文·來部』

周땅에서 거두어 들였던 좋은 품질의 밀과 보리이다. 한 뿌리에 두 알의 보리 이삭이 달려 있으며, 보리 수염과 그 가시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보리는) 하늘이 내려 주신 것이므로, 왕래하다의 來(오다)字로 쓰인다. 『詩』에 “우리들에게 밀과 보리를 보내 주셨네.”라 하였다.

動詞 :

憂心孔疚 我行不來 『詩經』小雅·采薇

걱정하는 마음 매우 아픈데 나는 가고 돌아올 줄 모르네

語氣助詞 :

彼交匪敖 萬福來求 『詩經』小雅·桑扈

그 사귀이 겸손하니, 萬福을 구하네

『說文』에서 『詩經』의 ‘詒我來麴’을 인용하여 그 本義를 설명하였는데 그 本義는 보리의 까끄라기를 본 뜬 것이다.²¹⁶⁾

그러나 『詩經』에서 助詞의 ‘來’는 동사로 실사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동사 앞에 놓이면서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뒤의 실사어기를 강화해주고 있다. 즉, 뒤의 동사의 어기나 趨向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기까지 출현한 후 점차 줄어들어 전국 말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於’가 우세를 점하였고 魏晉 이후로는 일부 고정격식을 제외하고 개사 ‘于’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215) 『詩經』에서 ‘於’는 46차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雅>, <頌>에서 34차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감탄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조상의 공덕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많은 <雅>, <頌> 편의 성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259쪽.

【有】

不宜有也. 『春秋傳』: 日月有食之. 从月又聲. 『說文·有部』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春秋傳』에 “해와 달이 먹히는 때가 있다”고 하였다. 月
을 따르고 又聲이다.

動詞 :

匏有枯葉 濟有深涉 『詩經』 邶風·匏有苦葉
박에는 마른잎이 달려있고 제수에는 깊은 나루가 있네

語氣助詞 :

天監有周 昭假于下 『詩經』 大雅·蒸民
하늘은 주나라를 둘러보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시어

‘有’의 甲骨文은 ‘’인데, 소의 머리와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는 형상을 본
뜬 것이다. 本義는 소의 머리를 財富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혹은 ‘又’로 가
차되기도 하였다.

金文에서는 ‘’로 변하여 ‘又(手)’를 따르고 ‘肉’을 따르며, 손에 고기를 가지
고 있다는 의미의 회의자로 변하였다.²¹⁷⁾ 『甲骨文字典』에서도 고대에는 대개 가
축소로서 재물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였는데 즉 牛(소)로서 ‘있다’는 의미
를 나타냈다고 하였다.²¹⁸⁾ 따라서 ‘有’는 소의 머리 형상을 본뜬 상형자이며 본
의는 ‘(가지고) 있다’의 의미이다.

『詩經』에서는 이러한 本義의 동사로 많이 사용되다가,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뒤의 명사의 어기를 강화해주고 있
다.

3) 形容詞에서 引伸

형용사에서 인신된 경우는 ‘而’, ‘若’, ‘如’, ‘然’이 있으며, 모두 日母로 雙聲이
되고 있다.

217)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68쪽.

218)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年, 745쪽.

【然】

燒也. 从火, 狀聲. 『說文·火部』

불태우는 것이다. 火를 따르고 狀聲이다

形容詞 :

是究是圖 宣其然乎 『詩經』 小雅·常棣

그렇게 되도록 궁리하고 꾀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네

語氣助詞 :

南有嘉魚 烝然罩罩 『詩經』 小雅·南有嘉魚

남녘엔 좋은 고기들이 득실득실 팔딱이네

金文은 ‘然’이며 ‘火’를 따르고 ‘狀’을 따르며, 本義는 불로 개고기를 ‘태운다’는 뜻이며 ‘狀’은 또한 聲을 나타내고 있는 회의겸 형성자이다.²¹⁹⁾

『詩經』에서 ‘然’은 ‘그러하다’의 形容詞에서 형용사 뒤에 놓여 어기를 강화하는 어기조사로 활용되었다. 『詩經』에서 ‘然’은 어기조사가 되었는데, 烝然은 袁枚《譯註》에 ‘形容衆多之貌’라 하여 ‘물고기가 많은 모양’이라 하였다.

【而】

頰毛也. 象毛之形. 『周禮』曰: “作其鱗之而.” 『說文·而部』

얼굴 양쪽의 털 (구렛나루 수염)이다. 털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周禮』에 “비늘과 수염을 그렸네.”라고 하였다.

形容詞 :

胡然而天也 胡然而帝也 『詩經』 鄘風·君子偕老

어쩌면 그리 천신 같으며 어쩌면 그리 천제 같은가?

語氣助詞 :

未幾見兮 突而弁兮 『詩經』 齊風·甫田

얼마간 헤어졌다 만나니 갑자기 관 쓴 어른 되었네

‘而’의 甲骨文은 ‘而’이며, 턱 아래에 수염이 늘어진 모양으로 本義는 수염이

219)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717쪽.

다.220) 『詩經』에서는 ‘而’는 ‘~와 같다’는 실사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陳奐은 ‘古而, 如通用(고대에 而와 如는 통용되었다)’이라 하였다.221)

‘而’는 이러한 실사의미에서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형용사 뒤에 놓여 형용사의 어기를 강화해주고 있다.

【 若 】

擇菜也。从艸，右；右，手也。一曰：杜若，香艸。 『說文·艸部』

나물을 고르는 것이다. 艸와 右를 따른 회의자이다. 右는 손을 나타낸다. 또 다른 說에 若은 杜若으로 香草의 일종이라는 뜻이 있다.

形容詞：

若此無罪 淪胥以鋪 『詩經』小雅·雨無正

이 같이 죄 없는 사람들도 함께 괴로움을 당하네

語氣助詞：

桑之未落 其葉沃若 『詩經』衛風·氓

뽕나무잎이 시들기 전엔 그 잎새가 싱싱하였느니

甲骨文에서는 두 가지 類型的의 字形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으로 오른손으로 나물을 고르는 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으로, 꿇어 앉은 사람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가지런하게 빗어 내리는 형상이며 온화하고 순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金文에는 두 개의 字形이 모두 나타나는데 오른손으로 나물을 고르는 형상 ‘’은 甲骨文과 같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가지런하게 빗어 내리는 형상은 ‘’와 같이 다시 ‘口’변을 가하여 복종하며 승낙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222)

『詩經』에서는 ‘같다’의 실사 의미에서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형용사 뒤에 놓여 그 어기를 강화하는 어기조사로

220)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69쪽.

221) 陳 奐, 『詩毛氏傳疏』, 山東友誼書社, 影印本, 1992, 262쪽.

222) 谷衍奎, 위의 책, 330쪽.

활용되었다. ‘形+若’ 구조를 이루며 문장에서 술어가 되고 있다.

【如】

从隨也. 从女, 从口. 『說文·女部』

如是 따르는 것이다. 女와 口를 따른 회의자이다.

形容詞 :

如月之恆 如日之承 如南山之壽 『詩經』小雅·天保

달이 밝아지는 듯하며 해가 뜨는 듯하며 남산의 무궁함 같으며

語氣助詞 :

有美一人 婉如清揚 『詩經』鄭風·野有蔓草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는데 예쁘게 맑은 눈과 넓은 이마를 가졌네

‘如’의 甲骨文 字形은 ‘’이다. 이는 ‘女’와 ‘口’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會意字이다. 입(口)은 명령과, 지시와 요구를 표시하는데 고대에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보다 낮았기 때문에 여자는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며 ‘口’와 함께 명령에 복종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如’의 本義는 복종과 순종이다.²²³⁾

『詩經』에는 ‘같다’의 실사 의미에서 어기조사로 허화되었다. 그러나 실사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형용사 뒤에 놓여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부사어로 쓰이며 관형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王引之 역시 『釋詞』에서 ‘如, 猶然也. …… 如, 然 語互轉(如是 然과 같다. …… 如와 然은 서로 쓰는 말이다)’이라 하였다.²²⁴⁾

2. 假借된 경우

『詩經』의 조사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假借와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 분류하는 가차의 경우는 『詩經』의 실사의미나 本義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적 연관

223) 程孟輝, 『古代漢語字典』, 商務印書館, 2005年, 679쪽.

224)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65-66쪽.

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詩經』의 실사의미나 本義와 관련해 의미의 연관성을 가진 위의 조사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순수하게 가차된 경우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차는 語音과 관계있으므로 語音을 기준으로 가차된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詩經』의 조사는 어음이 비슷한 경우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사가 많다. 따라서 서로 雙聲과 疊韻이 되는 조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어음이 서로 겹치는 경우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사의 어음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다른 어음과 쌍성이나 첩운이 되지 않는 글자는 기타로 분류할 것이다.

가차된 경우는 의미적 상관이 없으나, 本義와 관계없음을 확인할 필요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雙聲이 되는 경우

聲母가 각각 匣母, 影母, 喻母, 禪母로 같은 경우이다.

(1) 匣母

聲母가 모두 匣母로 雙聲이 되는 조사는 ‘兮’, ‘云’, ‘侯’, ‘越’, ‘或’, ‘員’, ‘爰’, ‘曰’ 등이 있으며 ‘兮’는 어기조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補音助詞에 해당한다.

【兮】

語所稽也。从丂，八。象气越丂也。 『說文·兮部』

말이 잠시 머무르는 곳을 뜻한다. 丂를 따르고, 八을 따른다. 氣가 (막혀 있던 곳에서) 분산되며 퍼지는 것을 본 뜬 것이다.

語氣助詞：

于嗟闊兮 不我活兮 『詩經』 邶風·擊鼓

아아! 그런데 이별하여 우리 함께 못살게 되었나니!

‘兮’의 本義를 좀 더 보충하자면 甲骨文의 字形은 ‘’와 같다. 甲骨文 아래는

하나의 악기 형상이며, 위의 두 점은 악기를 불 때 퍼지는 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사자이다. 金文에는 ‘𠄎’와 같이 소리 부분이 사람(人)으로 변하였고, 篆文의 모양은 악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더욱 구부러져 있다. 따라서 本義는 ‘악기를 불 때 소리가 퍼지는 것’이다.

‘𠄎’는 『詩經』에서 진술, 휴지, 금지, 감탄 등의 문장을 강조하는 文末의 어기조사로 가차되었다.

【 云 】

山川气也。从雨，云。象雲回轉形。‘𠄎’古文省雨。‘𠄎’，亦古文雲。『說文·雲部』
‘雲’은 山河에서 솟아오르는 氣이다. 雨를 따르고, 云은 구름이 돌면서 움직이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 ‘云’은 ‘雲’자의 古文으로, ‘雲’자에서 ‘雨’가 없는 것이다. ‘𠄎’ 또한 ‘雲’자의 古文이다.

補音助詞：

人之云亡 邦國殄瘁 『詩經』大雅·瞻卬
어진 사람 없으니 온 나라가 고난에 허덕이네

‘云’의 甲骨文은 ‘𠄎’이고 金文은 ‘𠄎’이다. 이를 통해 本義를 살펴보면 하늘에 모이고 흩어지는 구름을 본뜬 것이다. 篆文은 ‘𠄎’으로 다시 ‘雨’를 가하여 ‘云’이 ‘雨’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다.²²⁵⁾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 侯 】

春饗所射侯也。从人；从厂，象張布；矢在其下。天子射熊虎豹，服猛也；諸侯射熊豕虎；大夫射麋，麋，惑也；士射鹿豕，爲田除害也。其祝曰：“毋若不寧侯，不朝于王所，故仇而射汝也。”『說文·矢部』

봄에 鄉飲酒禮를 거행하던 때 사용되는 천과녁이다. 人과 厂을 따르며 펼쳐서 설치한 과녁을 본뜬 것으로 矢는 과녁의 아래에 있다. 천자는 활을 쏠 때 곰, 호랑이, 표

225)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45쪽.

범 가죽으로 된 과녁을 사용하는데 이는 흥하고 사나운 것을 제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제후는 활을 쏠 때 곰, 멧돼지, 호랑이 가죽으로 된 과녁을 사용하고, 대부는 사슴 가죽으로 된 과녁을 사용하는데 麋는 迷惑하다는 의미이다. 선비는 활을 쏠 때 사슴과 멧돼지 가죽으로 된 과녁을 사용하는데 농사짓는 밭에 해를 제거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들은 화살을 쏘기 전에 “불안정한 제후를 바라지 않으며 천자의 거소에 조회하러 오지 않으면 이 화살을 가지고 너희들을 모두 죽이겠다.” 라고 祝文의 말을 한다.

補音助詞：

瞻彼中林 侯薪侯蒸 『詩經』小雅·正月
저 숲 속을 보니 굵은 나무 잔 나무가 무성하네

그 本義를 살펴보면 侯의 甲骨文은 ‘’이며, 이는 펼쳐져 있는 가죽 천으로 된 과녁의 형태를 본 뜬 것으로 상형자이다. 아래쪽에는 화살을 가하여 천에 활을 쏜다는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篆文은 ‘’이며 다시 사람(人)을 가하여 사람이 쏜다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예변된 후 해서는 ‘’나 ‘’로 쓰였으며 속체로 ‘’이다. 따라서 ‘’의 本義는 고대에 활쏘기 의식에 사용되었던 ‘가죽천으로 된 과녁’으로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활쏘기를 잘 하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았다.²²⁶⁾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 越 】

度也. 从走戍聲 『說文·走部』
건너가는 것이다. 走를 따르고 戍聲이다.

補音助詞：

穀旦于逝 越以鬲邁 『詩經』陳風·東門之枌
좋은 날에 놀러 여럿이 함께 가다가

‘越’은 甲骨文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金文에 보이는데 ‘越’의 金文 字形은 ‘’이

22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472쪽.

다. 이는 篆文 ‘𨔵’과 대체로 비슷한데 『說文』에 따르면 本義는 건너가는 것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의미로 ‘走’를 따른 것이다.²²⁷⁾

『形音義綜合大字典』에 따르면 ‘戔’은 鉞의 初文으로 본래 ‘斧’의 의미이며 임금의 위엄을 드러내는 兵器의 이름이라 하였는데 엄숙한 용모와 장중한 태도로 멀리에서 이르는 것이므로 ‘越’은 ‘넘어서 멀리가다’의 의미라 하였다.²²⁸⁾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특히 『書經』에도 조사 용법이 文頭에 많이 나타나는데²²⁹⁾ 『故訓匯纂』에서는 孫星衍의 『今古文注疏』를 인용하여 ‘越, 同粵’라 하였다.²³⁰⁾ 즉 ‘越’과 ‘粵’은 같은 용법의 助詞임을 알 수 있다.

【爰】

引也, 从爰从于, 籀文以爲車轅字. 『說文·受部』

끌어 당기는 것이다. 爰를 따르고 于를 따른다. 籀文은 수레 끌채의 ‘轅’을 뜻한다.

補音助詞：

爰有寒泉 在浚之下 『詩經』邶風·凱風

맑은 샘물이 준고을 아랫녘에 흐르네

‘爰’의 本義를 살펴보면 甲骨文은 ‘𠄎’이며 회의자로 甲骨文에서 위의 손은 방향이나 줄을 잡고 있으며 아래 있는 사람에게 손으로 그것을 잡게 하여 천천히 끌어올리는 형상이다. 그 중의 丿은 끌어 올리는 방향이며 따라서 그 本義는 ‘끌어당긴다’는 의미이다. ‘爰’이 조사로 사용되자 義符 ‘扌’를 가하여 ‘援’으로서 그 本義를 나타내었다.²³¹⁾

『詩經』에서 ‘爰’은 文頭나 文中에서 음절을 조절하는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227)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678쪽.

228)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1784쪽.

229) 助詞：不昏作勞, 不服田畝, 越其罔有黍稷 (힘써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밭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그黍稷을 둠이 없게 될 것이라) 『書·盤庚』

助詞：越我一二邦以脩, 我西土惟時怙冒 (이에 우리 한두 나라들도 그것을 본떠 다스렸으며 우리 서쪽 땅은 이분을 의지하고 떠받들게 되어) 『書·康誥』

230) 宗福邦·陳世饒·蕭海波 主編, 『故訓匯纂』, 商務印書館, 2003年, 2204쪽.

231) 谷衍奎, 위의 책, 479쪽.

【員】

物數. 从貝, 口聲. 『說文·員部』

사물의 수량이다. 貝를 따르고 口聲이다.

補音助詞：

縞衣綦巾 聊樂我員 『詩經』鄭風·出其東門

흰 옷에 파란 수건 쓴 여자만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네.

‘員’의 甲骨文은 ‘𠄎’이며 金文은 ‘𠄎’이다. 이는 상형자로 ‘鼎’의 모양을 본 뜬 것으로 윗부분의 ○는 ‘鼎’의 입구가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다. 金文은 甲骨文과 비교해, 약간의 변형이 있으며 篆文에 와서는 ‘員’으로 아래 부분이 생략되어 점차 ‘貝’로 와변되어 갔다. 이는 고문자의 ‘鼎’과 ‘貝’의 字形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결국 ‘員’의 本義는 둥근 鼎의 입구를 본 뜬 ‘둥근 모양’이다. 그러나 ‘員’은 인신된 의미로 專用되고 여기에 다시 口부를 가하여 ‘둥글다’의 의미를 나타내어 圓으로 본래 의미를 표기하였는데 즉 ‘員’은 ‘圓’의 初文이라 하였다.²³²⁾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末에 놓이는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는데 『詩經』이외에 『書經』에도 助詞 용법으로 사용되었다.²³³⁾ 孔穎達은 ‘云, 員, 古今字, 助句辭也(云, 員은 古今字이며 문장을 돕는 語辭이다)’라 하였고²³⁴⁾ 朱熹는 ‘員, 與云同, 語詞也(員은 云과 같으며 語詞이다)’라 하였다.²³⁵⁾ 즉 ‘云’, ‘員’은 같은 助詞의 용법을 갖는 조사임을 알 수 있다.

【曰】

詞也. 从口, 乙聲. 亦象口气出也. 『說文·曰部』

조사이다. 口를 따르고 乙聲이다. 입에서 기운이 뿜어 나오는 것을 본 뜬 것이다.

補音助詞：

天方艱難 曰喪厥國 『詩經』大雅·抑

232)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274쪽.

233) 助詞：日月逾邁, 若弗員來 (세월은 흐르고 다시 돌아오지 않네) 『書·秦誓』

234)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731쪽.

235)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64쪽.

하늘은 지금 어려움을 내리시고 계시니 나라를 잃을 지경이 되었네

‘曰’은 『說文』에 ‘詞²³⁶也’라 하였는데 篆文 ‘曰’을 보면 입의 가운데에서 위쪽으로 기운이 나오는 것을 상형한 것이다. ‘曰’의 甲骨文 字形은 ‘曰’이며 짧은 가로 줄은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기운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曰의 본의는 ‘말하다’이며, 허신의 설명은 조사를 이르는 것으로 이는 本義 ‘말하다’에서 인신된 의미라 할 수 있다.²³⁷⁾

『詩經』의 助詞 ‘曰’은 文頭 혹은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2) 影母

聲母가 모두 影母로 雙聲이 되는 조사는 ‘抑’, ‘伊’, ‘猗’ 등이 있으며 ‘抑’, ‘伊’는 공통적으로 보음조사로 사용되며, ‘猗’는 어기조사이다.

【 抑 】

按也。从反印。“𢇛”，俗從手。『說文·印部』

억누르는 것이다. “印”자를 뒤바뀌 나타낸 것이다. “𢇛”은 ‘印’의 속자로, 手를 따른다.

補音助詞：

抑釋捫忌 抑鬯弓忌 『詩經』鄭風·大叔于田

236) ‘詞’에 대해서 段玉裁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意內而言外也。有是意而有是言。亦謂之曰。亦謂之云。云曰雙聲也。釋詁粵，于，爰曰也。此謂詩書古文多有以曰爲爰者。故粵，于，爰，曰四字可互訓。以雙聲疊韻相假借也。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안에 있어서 말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때 ‘말하다’는 의미를 曰이라고도 하고 云이라고도 한다. 云과 曰은 聲母가 같다. 『爾雅·釋詁』에 ‘粵，于，爰은 말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詩』, 『書』의 古文에서 대부분 曰을 爰으로 썼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粵，于，爰，曰 네 자는 互訓될 수 있다. 聲母가 같은 글자나 韻部가 같은 글자로 서로 가차한 것이다) 段玉裁, 『說文解字注』,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7年, 202쪽.

段玉裁가 ‘말하다’의 의미로 호훈될 수 있다고 한 粵，于，爰，曰의 네 글자 중에서 于，爰，曰은 모두 『詩經』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于，爰，曰은 서로 비슷한 어음끼리 가차된 助詞라고 볼 수 있다.

237)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59쪽.

화살통 뚜껑을 풀고 활을 활집에 넣으시네

‘抑’은 『說文』에서 ‘冎’이며 ‘抑’은 ‘冎’의 俗字이다. 甲骨文은 ‘’, ‘’와 같다.

甲骨文에서 보면 위 부분은 ‘爪’이며 아래 부분은 ‘冎(꿇어 앉은 사람)’으로 회의자이며 ‘손으로 사람을 눌러 꿇어앉힌다’는 의미이다. ‘冎’(抑)은 “印”과 좌우가 바뀐 글자인데, ‘印’은 설문에 ‘위정자가 가지는 印章’이라 하였다. ‘印’은 후에 이러한 인신의로 전용되어 쓰였고, 누르다는 의미는 ‘冎’로서 나타내거나 혹은 ‘印’을 기본으로 하여 의부 ‘扌’를 더하여 ‘抑(右旁 은 印의 訛變이다)’으로 나타내었다.²³⁸⁾

‘抑’은 本義와 관계없이 『詩經』에서 文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 伊 】

殷聖人阿衡, 尹治天下者. 从人从尹. 殷 왕조의 성인인 阿衡이다. 정확하게 천하의 사람들을 다스렸다. 人을 따르고, 尹을 따른다. 『說文·人部』

補音助詞 :

有皇上帝 伊誰云憎 『詩經』小雅·節彼南山

위대한 하느님은 누구를 미워하시는 건가?

‘伊’의 本義는 『說文』의 내용과 조금 다른데 ‘伊’의 甲骨文 字形은 ‘’이다. 이는 회의자로, ‘人’을 따르고, ‘尹’을 따르는데 ‘尹’은 손에 침을 쥔 형상으로 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의미한다.²³⁹⁾

唐治澤은 字形과 語音, 詞義면에서 ‘伊’는 ‘殷’, ‘医’와 비슷하며 ‘殷’은 ‘医’의 初文²⁴⁰⁾이며 ‘医’는 ‘殷’의 后起字로 그 字形은 ‘’, ‘’이라고 하였다. 다만

238)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35쪽.

239) 谷衍奎, 위의 책, 199쪽.

240) 正字라고도 하며, 어떤 詞義의 뜻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한자를 말한다. 즉 단어의 本義를 표시하는 글자를 일러 初文이라고 한다. 全廣鎮, 『중국문자훈고학사전』, 東文選, 1993年, 100쪽.

‘殷’, ‘醫’의 초문은 배 부분에 침을 놓는 형상이나, ‘𤝵’은 침을 잡고 사람의 등에 침을 놓는 형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는 殷代 사람들이 穴 자리를 아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穴에 침을 놓아 여러 질병을 다스렸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다.²⁴¹⁾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 猗 】

犛犬也. 从犬奇聲. 『說文·犬部』

거세한 개이다. 犬을 따르고 奇聲이다.

語氣助詞 :

坎坎伐檀兮 寘之河之干兮 河水清且漣猗 『詩經』 魏風·伐檀

랑랑 박달나무 베어, 황하가에 놓고 보니, 황하물만 맑게 물놀이 치고 있네

『形音義綜合大字典』에 따르면 ‘猗’의 갑골문은 없고 金文은 篆文과 대략 비슷하다. 篆文은 ‘犬’을 따르고 奇聲이다. 本義는 개의 생식기관을 자르는 것이다.²⁴²⁾

『辭海』를 살펴보면 ‘猗, 通兮, 語調詞’라 하였는데 『書·秦誓』에 ‘如有一介臣 斷斷猗無他技 (한 신하가 있는데 그는 한결 같이 정성스럽기만 하고 다른 재주는 없다)’고 하였는데 ‘斷斷猗無他技’에 대해 『書經』疏에 ‘猗者足句之辭, 不爲義也, 大學引此作兮, 猗是兮之類(猗는 문장을 채우는 허사이며 뜻을 이루지 못한다. 『大學』에서 이를 인용하였는데 ‘兮’라 하였다. 猗는兮와 같은類이다)’라 하였다.²⁴³⁾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여기 조사로 가차되었다.

241) 唐治澤, 『甲骨文字趣釋』, 重慶出版社, 2002年, 108쪽.

242)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962쪽.

243) 熊鈍生 主編, 『辭海』, 臺灣中華書局, 1986年, 2940쪽.

(3) 喩母

聲母가 모두 喩母로 雙聲이 되는 조사는 ‘聿’, ‘攸’, ‘亦’, ‘維’, ‘適’, ‘夷’, ‘也’ 등이 있으며 ‘也’는 어기조사, ‘攸’는 구조조사, ‘聿’, ‘攸’, ‘亦’, ‘維’, ‘適’, ‘夷’는 모두 보음조사이다.

【 聿 】

所以書也. 楚謂之聿, 吳謂之不律, 燕謂之弗. 从聿一聲. 『說文·聿部』
쓰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초(楚)지방에서는 ‘聿’이라 하고 오(吳)지방에서는 ‘不律’이라 하고 연(燕)지방에서는 ‘弗’이라 한다. 聿을 따르고 一을 따른다.

補音助詞 :

借曰未知 亦聿既老 『詩經』 大雅·抑
아는 것은 없다 해도 나이는 많이 먹었다네

甲骨文에는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형상을 본 뜬 글자로 상형자이다. 本義는 붓(글을 쓰는 도구)이다.²⁴⁴⁾

‘聿’은 本義와 관계없이, 文中, 文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이러한 용법은 『舊唐書』에서도 보이는데²⁴⁵⁾ 이 책은 중국 당나라 왕조의 정사(正史)를 기술한 책으로 10세기에 중국 後晉의 유구(劉昫) 등이 편찬한 책이다. ‘聿’은 의미가 없으며 해석하지 않는 조사이다. 이러한 조사용법은 『詩經』 시기부터 이미 나타났으며 그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攸 】

行水也. 从攴从人, 水省. 『說文·支部』
흐르는 물이다. 攴을 따르고 人을 따른다. 水의 省形이다.

構造助詞 :

王在靈囿 麀鹿攸伏 『詩經』 大雅·靈臺

244)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229쪽.

245) 助詞 : 朕自臨御寰區, 荐延多士; 常思聿求賢哲, 共治雍熙 (나는 나라를 다스리면서부터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항상 지혜롭고자 하였으며 함께 국가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舊唐書·房瑄傳』

임금님께서 영대 정원에 계시는데, 암사슴 수사슴이 엎드려 있는 곳이니

補音助詞：

黍稷薿薿 攸介攸止 烝我髦士 『詩經』小雅·甫田

메기장 차기장 무성하여, 머물러 쉬면서 훌륭한 농부들 만나네

‘攸’의 甲骨文 字形을 보면 ‘𠄎’인데 회의자로, ‘支(관리하다)’와 ‘人’을 따른다. 이로서 ‘손질하다’의 의미가 되었다. 金文은 ‘𠄎’로 다시 의미인 ‘水’를 가하여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며 깨끗이 하다’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說文』에서 말하는 의미는 本義에서 인신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고대인들은 春秋佳日에 흐르는 물에서 몸을 씻으며 액운을 떨쳐냈는데 이렇게 목욕재계하며 몸을 정갈히 하는 풍습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오늘날 소수민족들의 澣水節과 비슷할 것이다.²⁴⁶⁾ 本義는 사람이 ‘깨끗이 씻으며 정갈히 하다’의 의미이다.

『詩經』에 助詞 ‘攸’는 本義와 관계없이 조사로 가차되었는데 주로 동사 앞에 놓여 명사구를 이루는 구조조사와 음절을 조절하는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詩經』에서 구조조사의 ‘攸’는 ‘所’의 용법과 비슷하다. 이러한 용법은 『左傳』에도 남아 있는데 『左傳·襄公四年』에 ‘~한 바’로 해석되거나 문장에 따라 ‘~한 곳’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²⁴⁷⁾

【 亦 】

人之臂亦也. 从大, 象兩亦之形. 『說文·亦部』

사람의 겨드랑이이다. 大를 따르고 팔 아래 있는 두 겨드랑이 모양을 본뜬 것이다.

補音助詞：

亦既見止 亦既覯止 我心則降 『詩經』 召南·草蟲

뵈게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이 마음 놓이련만

‘亦’의 甲骨文은 ‘𠄎’이며 이를 통해 ‘亦’의 本義를 살펴보면 ‘大’를 따르고 겨드

24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282쪽.

247) 助詞：民有寢廟, 獸有茂草, 各有攸處, 德用不擾 (백성들은 집과 묘당이 있고, 짐승들은 무성한 초목들이 있어, 각자 거처할 곳이 있으니 서로 침범하여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左傳·襄公四年』

량이 밑에 두 개의 점을 가하였는데 이는 指事字로서 ‘겨드랑이’를 가리킨다.²⁴⁸⁾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음절을 조절하는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는데 주로 文頭에 나타난다.

【 維 】

車蓋維也. 从糸隹聲. 『說文·糸部』

수레의 덮개를 묶는 밧줄이다. 糸를 따르고, 隹聲이다.

補音助詞 :

維鵠有韶 維鳩居之 『詩經』 召南·鵠巢

까치집이 있는데 구육새가 살고있네

‘維’의 本義는 수레의 덮개를 묶는 밧줄이며,²⁴⁹⁾ 甲骨文, 金文에는 이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形音義綜合大字典』에 따르면 陶文에 처음 ‘𠄎’의 字形으로 나타나며 『說文』에는 ‘糸’를 따르고 ‘隹聲’이라 하였다.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어 사용되었다. 『史記·太史公自序』에도 비슷한 조사의 용법이 나타난다.²⁵⁰⁾

【 遁 】

回避也. 从辵彡聲. 『說文·辵部』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辵을 따르고 彡聲이다.

補音助詞 :

文王有聲 遁駿有聲 遁求厥寧 遁觀厥成 『詩經』 大雅·文王有聲

문왕을 기리는 소리 있어 그 소리 크기도 하여라.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여 그 이루심을 보게 되었으니

甲骨文, 金文에는 ‘遁’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本義는 알 수 없으나 『

248)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214쪽.

249) 谷衍奎, 위의 책, 673쪽.

250) 助詞 : 維昔黃帝, 法天則地, 四聖遵序, 各成法度 (옛날에 황제가 하늘을 법하고 땅을 본받았고, 四聖이 차례로 이어서 각각 법도를 이루었다) 『史記·太史公自序』

『說文』에 따르면 ‘適’의 篆文은 ‘適’인데 『說文』에서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詩經』(小雅·小旻)에 ‘謀猶回適 何日斯沮(일을 꾀함이 간사하니 언제나 천벌은 그칠 건가?)’의 구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回適’은 ‘邪僻(간사하고 괴팍하다)’의 의미로 『說文』의 의미에 해당된다.

그러나 『詩經』에서 助詞의 ‘適’은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에 오는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朱熹는 ‘適, 義未詳, 疑與聿同, 發語辭(‘適’의 뜻은 未詳인데, 의심컨대 ‘聿’과 같은 듯하니 發語辭이다)’라고 하였다.²⁵¹⁾ 楊樹達도 ‘適’을 ‘語首助詞, 無義(문두조사로 뜻이 없다)’라 하며 (大雅·文王有聲)의 예문만 들고 있다.²⁵²⁾

【 夷 】

平也. 从大从弓. 東方之人也. 『說文·大部』

평평한 것이다. 大를 따르고 弓을 따fms다. 이는 또한 동쪽 여러 부족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補音助詞：

罪罟不收 靡有夷瘳 『詩經』大雅·瞻卬

죄의 그물 거두지 않아 어려움 빠져나올 틈이 없도다

‘夷’의 甲骨文은 ‘𠄎’이며, 이는 甲骨文 ‘尸’와 같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본 뜬 것이다. 허신은 이들을 ‘東方之人也’라 하였는데, 동방인은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하며 지금까지도 山東에 이러한 풍속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金文에는 ‘𠄎’로 빌려 나타내었는데 이는 甲骨文 ‘𠄎’, ‘𠄎’(줄이 달려 있는 활)의 變體이다. 이는 篆文 ‘夷’로 예변 후 해서로 ‘夷’가 되었다. 그러나 ‘夷’의 본래 字形은 ‘尸’이며, ‘尸’는 고대에 죽은 사람의 神靈을 대신해 무릎을 꿇어 제사를 지내던 사람으로 대부분 나이가 어리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

따라서 ‘夷’의 本義는 ‘尸’로 ‘무릎을 꿇은 사람’이며 ‘東方의 사람’이라 한 것은 인신된 의미이다.²⁵³⁾

251)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20쪽.

252) 楊樹達, 『詞詮』,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392쪽.

『詩經』에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는데 이와 같은 助詞 용법은 『孟子·盡心下』에서도 보이며²⁵⁴⁾, 楊樹達은 이를 無義의 ‘語首助詞(文頭助詞)’라 하였다.²⁵⁵⁾

【也】

女陰也. 象形. 『說文·入部』
女性の陰部이다. 상형자이다.

語氣助詞：

我心匪石 不可轉也 我心匪席 不可卷也 『詩經』 邶風·柏舟
내마음 돌이 아니니 굴릴 수도 없고, 내 마음 돛자리 아니니 말 수도 없네

甲骨文에 ‘也’는 字形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金文과 篆文을 통해 ‘也’의 本義를 살펴보면, 金文은 ‘𠄎’이며, 篆文 ‘𠄎’인데, 두 개의 字形은 비슷하며 金文은 꼬리를 구불구불하게 끌며 움직이는 뱀을 본 뜬 것으로 상형자이다.²⁵⁶⁾

『形音義綜合大字典』을 살펴보면, 고대에 ‘它’, ‘也’ 두 글자는 통용되었으며 ‘它’는 즉 ‘蛇’라 하였다.²⁵⁷⁾ 따라서 ‘也’의 本義는 『說文』과 다르며 이는 ‘뱀(蛇)’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也’는 『詩經』에 어기 조사로 가차되었으며 고대에 자주 조사 ‘邪’와 통용되었는데, 판단을 강조하는 어기 조사로서 명사 술어문의 끝에 놓이거나 감탄, 의문을 강조하는 어기로서 文末에 자주 사용되었다. 『詩經』의 어기 조사 ‘也’는 『詩經』 이후에도 어기 조사로 사용되고 있으며²⁵⁸⁾ 그 용법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활

253)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17쪽.

254) 助詞 : 其志嘯嗶然曰 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 그 뜻은 크게 이르기를 “옛 사람이여, 옛 사람이여!” 평소에 그 행실을 살펴봄에 그들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이다. 『孟子·盡心下』

255) 楊樹達, 『詞詮』,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309쪽.

256) 谷衍奎, 위의 책, 37쪽.

257)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29쪽.

258) 助詞 : 天下, 非一人之天下也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呂氏春秋·歸公』

助詞 : 雖有君命, 何其速也 (비록 임금의 명령이 있어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左傳·僖公二十四年』

助詞 : 君謂皇上何如人也? (당신은 皇上이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清·梁啓超 『譚嗣同』

발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禪母

‘逝’, ‘噬’이 있으며 서로 禪母로 雙聲일 뿐 아니라 韻部도 서로 같은 月部로 완전한 동음관계이다. 모두 보음조사로 사용되었다.

【 逝 】

往也. 从辵折聲. 讀若誓. 『說文·辵部』
가는 것이다. 辵을 따르고 折聲이다. 讀音이 誓와 같다.

補音助詞：

乃如之人兮 逝不古處 『詩經』 邶風·日月
우리집 님은 옛날처럼 위해 주지 않네요

甲骨文, 金文에는 이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說文』의 本義는 ‘가다’이다.

『說文解字今釋』에 『方言』을 인용하여 ‘逝, 徂, 適, 往也. 逝, 秦晉語也. 徂 齊語也. 適, 宋魯語也(逝, 徂, 適은 ‘가다’의 의미이다. 逝는 秦國과 晉國의 말이요, 徂는 齊國의 말이며, 適은 宋國과 魯國의 말이다)’라 하였다.²⁵⁹⁾ 이로서 각 지방의 방언에 따라 글자를 달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詩經』에도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에 놓여 음절을 조절하는 보음조사로 사용되었다. 朱熹 역시 『集傳』에 ‘逝, 發語辭’라 하였다.²⁶⁰⁾

【 噬 】

啗也; 喙也. 从口筮聲. 『說文·口部』
삼켜서 먹는 것이다; 숨을 몰아 쉬는 것이다.²⁶¹⁾ 口를 따르고 筮聲이다

259)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出版社, 1997年, 243쪽.

260) 朱熹, 『詩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07年, 21쪽.

261) 『廣雅 釋詁』, 息也(숨쉬는 것이다), 王念孫疏證: 喙爲喘息之息(喙은 숨쉬다의 息이다)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出版社, 1997年, 183쪽, 재인용.

補音助詞：

彼君子兮，噬肯適我 『詩經』唐風·有杕之杜
저 군자님이여 기꺼이 내게로 와 주셨으면

‘噬’는 甲骨文과 金文이 없으며 篆文은 ‘’이다. 그러나 ‘筮’는 金文에 보이는데 그 字形은 ‘’로서 竹과 巫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筮는 점을 치는 데에 쓰는 대가지로 이것을 사용해 길흉을 점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說文』에서 ‘口’를 의미부로 따르고 ‘筮’를 성부로 취한 것으로 보아 ‘먹다’의 의미는 ‘口’와 관련이 있으며 ‘筮’는 소리부에 해당된다. ‘噬’의 助詞 용법은 『詩經』에만 보이는데 모두 2차례 나타나며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에 놓이는 보음조사로 쓰였다.

여기서의 ‘噬’에 대해서는 朱熹는 ‘發語詞也’라 하였고²⁶²⁾ 王引之는 ‘發聲也’라 하였는데 王引之는 ‘逝’와 ‘噬’는 같다고 하였다.²⁶³⁾

劉淇도 ‘逝,噬音皆近是, 故得通爲發語之聲, 不爲義也 (逝와噬는 음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發語의 소리로 통하며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²⁶⁴⁾ 이 역시 ‘逝’와 ‘噬’를 단지 語音이 같은 조사로 본 것이다.

‘逝’와 ‘噬’는 서로 雙聲일 뿐 아니라 韻部도 서로 같은 月部로 완전한 동음관계이다. 따라서 이 역시 語音관계로 생겨난 조사이며, 이는 『詩經』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2) 疊韻이 되는 경우

疊韻이 되는 경우는 韻部가 魚部, 之部, 職部, 元部로 같은 경우를 살펴보았다.

(1) 魚部

魚部로서 첩운이 되는 글자는 ‘乎’, ‘所’, ‘無’, ‘居’, ‘者’, ‘諸’, ‘與’, ‘且’, ‘胥’ 등

262)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83쪽.

263) 王引之, 『經傳釋詞』,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95쪽.

264) 劉淇, 『助字辨略』, 中華書局, 1954年, 204쪽.

이 있다. ‘所’, ‘者’는 구조조사로 사용되고, ‘乎’, ‘無’, ‘居’, ‘且’, ‘胥’는 모두 보음조사로 사용되며, ‘乎’, ‘與’, ‘且’, ‘居’, ‘者’, ‘諸’는 어기조사로 사용된다.

【 乎 】

語之餘也. 从兮, 象聲上越揚之形也. 『說文·兮部』

말의 남은 소리이다. 兮를 따르고 (‘ノ’은) 소리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점점 퍼지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語氣助詞 :

女曰觀乎 士曰既且 『詩經』 鄭風·溱洧

여자가 ‘가 볼까요?’하니 남자 대답하기를 ‘벌써 갔다 왔는걸.’

補音助詞 :

小大近喪 人尙乎由行 『詩經』 大雅·蕩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모두 거의 망해가고 있거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행동하네

‘乎’의 甲骨文 字形은 ‘𠄎’로 그 字形이 ‘兮(𠄎)’와 비슷하다. 아래쪽은 악기의 일종이며 위쪽은 악기를 불 때 나오는 소리를 형상화한 것인데 다만 소리의 기운이 兮보다 점이 하나 많을 뿐이다. 본의는 ‘악기 소리의 餘音이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說文』의 ‘語之餘也’는 甲骨文의 本義에서 引伸된 의미이다.²⁶⁵⁾

‘乎’는 『詩經』에서 의문, 감탄 등의 어기조사와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乎’의 조사 용법은 현대한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几乎没有(거의 없다)”, “斷乎不可(단연코 안된다)”, “确乎如此(확실히 그렇다)” 등이다.

【 所 】

伐木聲也. 从斤戶聲. 『詩』曰:“伐木所所” 『說文·斤部』

所는 도끼로 나무를 베는 소리이다. 斤을 따르고 戶聲이다. 『詩經』에는 “나무를 베니 所所 울리네”라 하였다.

265)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29쪽.

構造助詞：

行歸于周 萬民所望 『詩經』小雅·都人士
주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만백성의 바라는 바로다

『詩經』助詞‘所’는 金文에서부터 나타나는데 金文은 ‘𠄎’이며 篆文은 ‘𠄎’이다. 이는 形聲字이며, 金文과 篆文에서 모두 ‘斤(도끼)’을 따르고 戶聲이다. 그 本義는 도끼로 나무를 베는 소리이다.²⁶⁶⁾

『詩經』에서는 동사 앞에 놓여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로 가차되었다.

【 無 】

亡也. 从亡無聲. 『說文·亡部』
없다는 것이다. 亡을 따르고 無聲이다.

補音助詞：

如彼泉流 無淪胥以亡 『詩經』大雅·抑
저 흐르는 샘물처럼 모두 함께 망하는 것인가

‘無’는 甲骨文 ‘𠄎’이다. 이는 사람이 손에 舞具를 들고 움직이며 춤추는 모습을 본 뜬 것이다. 따라서 本義는 ‘춤추다’이다.²⁶⁷⁾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 居 】

蹲也. 从尸古者, 居从古. 𠄎. 俗居从足. 『說文·口部』 箕踞

居는 쭈그리고 앉는 것이다. 尸와 古를 따르며, 쭈그려 앉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습관이다. 踞는 居의 俗字이고, 足을 따른다.

語氣助詞：

日居月諸 胡迭而微 『詩經』北風·柏舟
해야 달아 어째서 번갈아 이지러지느냐

26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373쪽.

267) 谷衍奎, 위의 책, 44쪽.

補音助詞：

擇有車馬 以居徂向 『詩經』小雅·十月之交
수레와 말 있는 자들을 골라 향 땅으로 갔네

‘居’의 本義는 ‘쭈그러 앉다’이다.²⁶⁸⁾ 『禮記·郊特牲』²⁶⁹⁾鄭玄注에 ‘居, 讀爲姬, 語之助也(‘居’는 ‘姬’로 읽어야 하니 말을 돕는 것이다)’라 하였고 또한 그는 『禮記·檀弓上』에서 ‘居, 讀爲姬姓之姬, 齊魯之間語助也(居를 姬姓의 姬로 읽는 것은 제나라, 노나라 간의 어조사이다)’라고 하였다.²⁷⁰⁾ 이로 보아 ‘居’는 춘추전국시대에 ‘姬’와 같은 발음이 있으며 이러한 助詞의 사용에 그 지역만의 방언적 요소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故訓匯纂』에서는 『字詁·無字之音』을 인용하여 ‘何其, 何居 皆發問之助語詞(何其, 何居는 모두 의문의 어기조사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의문을 만드는 것은 의문 대사 ‘何’이며 ‘其’, ‘居’는 ‘何’의 뒤에서 음절을 모으고, 그 어기를 더 강화하고 있다. ‘何其’, ‘曷其’, ‘誰其’ 등 ‘의문사+其’의 형태는 『詩經』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²⁷¹⁾ 裴學海는 ‘居, 猶其也 居與其皆有基音, 可通用(居는 其와 같다. 居와 其는 모두 基音이 있어서 通用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어기조사와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 者 】

別事詞也. 从白𠂔聲. 𠂔, 古文旅字. 『說文·白部』

의미(事)를 구별하는 詞이다. 白을 따르고 𠂔聲이다. ‘𠂔’은 古文의 ‘旅’이다.

構造助詞：

東方之月兮 彼姝者子 『詩經』齊風·東方之日
동녘의 달 같은 저 아름다운 여인

268)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409쪽.

269) 助詞：二日伐鼓, 何居? (요즘사람들은 (3일의 재계기간 중에) 2일째에는 북을 치는 사람조차 있으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禮記·郊特牲』

270) 宗福邦·陳世饒·蕭海波 主編, 『故訓匯纂』, 商務印書館, 2003年, 620쪽, 재인용.

271) 何其久也, 必有以也 (어째서 그렇게 오래 걸릴까?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겠지) (邶風·旄丘)
悠悠蒼天 曷其有所 (아득한 푸른 하늘이여 언제면 한곳에 안착할까) (唐風·鶉羽)
誰其尸之 有齊季女 (누가 이것을 주관하나 제나라 임금 막내딸이지) (召南·采蘋)

語氣助詞：

今者不樂 逝者其耄 『詩經』秦風·車鄰

지금 즐기지 못하면 세월은 흘러 덧없이 늙을 걸

‘者’의 本義를 살펴보면 甲骨文 字形은 ‘’인데, 위에 있는 것은 땀나무이며 밑에 있는 것은 불이다. 조그만 점은 불꽃을 상징하며 땀나무를 태우는 의미로 ‘燃燒(불태우다)’의 뜻이다. 『說文』의 의미는 假借義이며 本義는 당연히 ‘燃燒’의 의미이다.²⁷²⁾

‘者’는 『詩經』에서 수식어와 중심어 사이에 ‘之’와 같은 구조조사로 사용되거나, 休止를 강조하는 文末의 어기조사로 사용되었다.

【 諸 】

辯也. 从言者聲. 『說文·言部』

말을 많이 해 옳고 그름을 설명한다. 말을 따르고 者聲이다.

語氣助詞：

日居月諸 照臨下土 『詩經』邶風·日月

태양이여, 달이여 땅을 비추고 있구나

甲骨文 ‘者’()를 살펴보면, 위쪽은 세워진 땀감이며 아래쪽은 불(火)로 本義는 燃燒의 의미이다. 篆文은 그 字形이 ‘’로서 ‘言’符를 가하여 ‘別事詞’의 의미를 더 두드러지게 하였다.²⁷³⁾ ‘諸’는 ‘者’에서 파생된 分化字이다.

『詩經』에서 ‘諸’는 ‘啊’, ‘乎’처럼 감탄을 강조하는 文末의 어기조사로 사용되었다.

【 與 】

黨與也. 从舛, 从与. 『說文·舛部』

같은 편에 더붙다. 舛과 与를 따fms다.

272)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326쪽.

273) 谷衍奎, 위의 책, 601쪽.

語氣助詞：

猗與那與 『詩經』 頌·那

아아 성대하구나!

‘與’의 本義는 金文 ‘’으로 분석해 볼 때 두 손이 서로 끌어당기는 형상으로 손을 잡고 친교를 맺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후에 두 손이 끌어당기는 의미는 분명치 않고 舁(네 손이 함께 드는 모습)에 口를 가한 ‘’ 모양이 되어 손을 잡고 말을 하며 친교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²⁷⁴⁾

『詩經』의 ‘與’는 本義와 관계없이 감탄을 나타내는 文末의 어기조사로 가차되었다.

【 且 】

薦也。从几，足有二橫，一其下地也。『說文·且部』

물체를 받치는 器具이다. 几를 따르고, (안석) 발 사이에 두 개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고, 一은 器具 아래의 땅을 나타낸다.

語氣助詞：

不見子都 乃見狂且 『詩經』 鄭風·山有扶蘇

만나기 전에는 잘생겼다 하더니 만나 보니 못난 녀석이네.

補音助詞：

揚且之皙也 胡然而天也 『詩經』 鄘風·君子偕老

넓은 이마는 깨끗하고 희니, 어찌 그렇게 천신 같은가

甲骨文에서 ‘且’는 그 字形이 ‘’, ‘’이며 ‘且’의 本義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谷衍奎는 이것이 수컷의 생식기관을 본뜬 상형자이며 이는 원시 시대의 생식 숭배를 보여준 것으로 인류는 생식으로 번창함을 이르는 것이라 하였다. 혹은 또示를 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제물(祭物)을 차려 놓은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이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뜻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고대에 조상에게 제사를

274)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21쪽.

지낼 때 제수품을 놓던 예기(俎)로 인신되었고 다시 조상(祖)으로 인신되었다고 하였다.²⁷⁵⁾

『甲骨文字典』에서는 고대에 고기를 ‘俎’에 놓아 제사를 지냈는데, 조상을 ‘且’라 하였으며 祖는 後起字라 하였다.²⁷⁶⁾

한편 唐治澤은 ‘且’는 神主의 위패라 하였다.²⁷⁷⁾ ‘且’의 本義에 대한 견해는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且’의 本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詩經』에서 ‘且’는 本義와 관계없이 어기조사와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胥】

蟹醢也。从肉疋聲。 『說文·肉部』

게장이다. 肉을 따르고 疋聲이다.

補音助詞：

君子樂胥，受天之祜 『詩經』小雅·桑扈

군자가 즐거워하시네, 하늘의 복을 받으리로다

甲骨文에 ‘胥’는 보이지 않으며 金文에 보이는데 그 字形은 ‘𠂔’이며, 윗부분은 다리(足)의 형상이다. 許慎의 견해대로 본의는 게의 살로 만든 장(醬)이며,²⁷⁸⁾ 따라서 ‘肉’을 따르는데 許慎은 ‘疋’를 聲部에 속한다고 하여, 형성자로 보았다. 그러나 『形音義綜合大字典』에서는 ‘疋’은 다리를 뜻하며, 게는 八足으로 장을 만들 때 껍질과 다리를 먼저 제거하므로 ‘疋’은 소리뿐 아니라 의미도 겸하는 겸성 회의라 하였다.²⁷⁹⁾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위의 예문과 비슷하게 文選 班固 『東都賦』에서도 ‘於皇樂胥’²⁸⁰⁾라 하였는데 『故訓匯纂』에서는 여기에서

275)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14쪽.

276)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年, 1490쪽.

277) 唐治澤, 『甲骨文字趣釋』, 重慶出版社, 2002年, 250쪽.

278) 谷衍奎, 위의 책, 513쪽.

279)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1065쪽.

280) 助詞：於皇樂胥(아아, 임금은 즐거워하네) 『文選』班固 『東都賦』

‘胥’를 助語라 하였다.²⁸¹⁾

이것으로 볼 때 『詩經』의 ‘君子樂胥’ 구절과 매우 비슷하며 조사 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之部

韻部가 之部로 疊韻이 되는 조사는 ‘矣’, ‘思’, ‘止’, ‘哉’, ‘期’, ‘不’, ‘載’, ‘以’, ‘忌’, ‘茲’ 등이 있다. 어기조사에는 ‘止’, ‘哉’, ‘矣’가 있으며, 보음조사는 ‘思’, ‘哉’, ‘不’, ‘載’, ‘以’, ‘忌’, ‘茲’, ‘期’ 등이 있다.

【矣】

語已詞也. 从矢已聲. 『說文·矢部』

말이 그친 것을 표시하는 허사이다. 矢를 따르고 已聲이다.

語氣助詞：

升彼虛矣 以望楚矣 『詩經』 鄘風·定之方中

저쪽 큰 언덕에 올라 초구를 바라보네

甲骨文, 金文에는 ‘矣’가 보이지 않는다. 『說文』에서 ‘矣’는 회의겸 형성자로 篆文 ‘矣’²⁸²⁾은 矢를 따르고 已를 따른다. 本義는 화살의 끝이 땅에 정지해 있다는 의미이며 已는 聲部이기도 하다.²⁸²⁾

『詩經』에서 조사 ‘矣’는 어기조사로 가차되어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는데 진술, 의문, 휴지 등의 문장에 나타나고 있다.

【思】

睿也. 从心叴聲. 『說文·思部』

생각이 깊이 통하여 분명한 것이다. 心을 따르고 叴聲이다.

281) 宗福邦·陳世饒·蕭海波 主編, 『故訓匯纂』, 商務印書館, 2003年, 1856쪽.

282)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319쪽.

語氣助詞：

漢之廣矣 不可泳思 『詩經』國風·漢廣
한수는 넓어서 헤엄쳐 갈 수 없고

補音助詞：

兕觥其觶 旨酒思柔 『詩經』小雅·桑扈
뿔잔은 곱어 있고, 맛있는 술은 부드럽네

‘思’는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으며 金文에 나타나는데 그 字形은 ‘’이다. 篆文은 ‘’로 金文과 비슷하며 ‘心’을 따르고 ‘囟’을 따르며 ‘囟’은 또한 表聲의 역할을 하는 冪성 회의자이다. ‘囟’은 주로 인식을 하는 기관이며 마음(心)과 머리(囟)가 합쳐져 ‘睿’의 의미가 되었으며 본의는 생각함에 있어 ‘깊이 통하여 이치에 밝은 것’을 의미한다.²⁸³⁾

『詩經』에서는 『說文』의 本義와 관계없이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 止 】

下基也。象艸木出有址，故以止爲足 『說文·止部』

아래 부분의 기초이다. 초목이 자라면서 뿌리와 줄기에 토대가 생기는 것을 본떴다. 그러므로 ‘止’로 발을 나타낸 것이다.

語氣助詞：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詩經』大雅·文王
덕이 많은 문왕이여, 아아 끊임없이 공경하셨네

『說文』의 本義를 보충하면 甲骨文은 ‘’와 같이 발의 윤곽을 본뜬 상형자이다. 『說文』의 해석은 대체로 本義와 비슷하나 이는 인신된 의미이며 本義는 사람의 발로서 ‘趾’의 初文이다.²⁸⁴⁾

『詩經』에서 대체로 확정, 진술, 의문, 감탄을 강조하는 어기조사로 가차되었는데 『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도 文末에 연용된 어기조사로 나타나고 있다.²⁸⁵⁾

283)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458쪽.

284) 谷衍奎, 위의 책, 57쪽.

【 哉 】

言之間也. 从口戠聲. 『說文·口部』

말을 하는 사이에 쉬는 것이다. 口를 따르고 戠聲이다.

語氣助詞：

作邑于豊 文王烝哉 『詩經』大雅·文王有聲

풍땅에 도읍을 만드셨으니 문왕이여 훌륭하시도다

補音助詞：

陳錫哉周 侯文王孫子 『詩經』大雅·文王

주나라에 많은 복을 펼치시어 문왕의 자손까지 누리게 하네

甲骨文에는 ‘哉’가 보이지 않으며 金文에 나타나는데 그 字形은 ‘戠’, ‘戠’으로, 아래에 口(口)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口(口)이 있는 字形은 조사로 가차되며 후에 생겨난 字形인 듯하다. 따라서 초기의 字形은 戠로 생각되며 그 甲骨文 字形은 ‘戠’이고 從戈, 才聲이다.²⁸⁶⁾

이는 무기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뜻한다.²⁸⁷⁾ 따라서 그 本義는 ‘상처를 입히다’이다. 그러나 여기에 口(口)를 가하여 조사로 사용되었는데 『說文』의 해석은 그 假借義라 할 수 있다.

『詩經』의 助詞 ‘哉’는 본의와 관계 없이 어기조사,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書·舜典』에도 ‘哉’의 어기조사 용법이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²⁸⁸⁾ 『詩經』의 ‘陳錫哉周’를 『左傳·昭公十年』에서는 『詩經』을 인용하여 ‘『詩』云, 陳錫載周’라 하였는데, 이로서 고대에 ‘哉’는 ‘載’와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期 】

會也. 从月其聲 『說文·月部』

285) 助詞：病應見於大表, 不出千里, 決者至衆, 不可曲止也. (병은 응당 체표로 드러나니, 환자가 천 리 바깥에 있지 않으면 확진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많아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史記·扁鵲倉公列傳』

28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62쪽.

287)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出版社, 1997年, 191쪽.

288) 助詞：帝曰, 兪, 汝往哉! (舜이 말씀하시기를 “좋다, 너는 가라!”) 『書·舜典』

만날 약속을 하는 것이다. 月을 따르고, 其聲이다.

語氣助詞：

有頰者弁 實維何期 『詩經』小雅·頰弁
점잖은 관은 무엇하러 썼는가?

‘期’는 甲骨文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金文에 보이는데 字形은 ‘’로 日을 따르고 其聲으로 형성자이다. 그러나 篆文에 이르러 그 字形이 ‘’로 바뀌었는데 이는 月을 따르고 其聲이다. 본의는 만나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²⁸⁹⁾

段注에서는 ‘月猶時也(月은 時와 같다)’²⁹⁰⁾고 하였는데 『形音義綜合大字典』에서는 달이 차고 이지러짐을 보고 약속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月’을 따른 것이라 하였다.²⁹¹⁾

‘期’는 『詩經』에 한 차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期’는 기약의 의미가 아니라 文末의 어음조사로 사용되었다.

【不】

鳥飛上翔不下來也。从一，一猶天也。象形。『說文·不部』

새가 하늘로 날아올라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一을 따른다. 一은 하늘과 같다. 상형자이다.

補音助詞：

不戢不難 受福不那 『詩經』小雅·桑扈
화목하고 공경하니 받으시는 복도 많으시네

‘不’의 甲骨文 字形은 ‘’이고 金文은 ‘’이다. ‘不’의 本義는 본래 꽃받침이 뒤집어진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며²⁹²⁾ 이는 『說文』의 해석과는 다르다.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289)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680쪽.

290) 段玉裁, 『說文解字注』,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7年, 314쪽.

291)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687쪽.

292) 谷衍奎, 위의 책, 49쪽.

『楚辭·招魂』²⁹³의 ‘不’에 대하여 『楚辭·招魂』王逸注에 ‘不奇, 奇也’라 한 것으로 보아²⁹⁴ 『楚辭』에서도 ‘不’은 실사의미가 없는 助詞 용법임을 알 수 있다.

【 載 】

乘也. 从車戠聲 『說文·車部』
탈것에 타는 것이다. 車를 따르고 戠聲이다.

補音助詞：
載馳載驅 周爰咨謀 『詩經』小雅·皇皇者華
달리고 달리면서도 두루 묻고 꺾으며 가네

‘載’의 甲骨文은 ‘𨋖’이고, 金文은 ‘𨋖’이다. ‘車’를 따르고 ‘戠’聲이다. 『說文』에 따르면 ‘載’는 그 本義가 ‘탈 것에 타다’인데 더 나아가 사람이 ‘車’에 타고 물건을 싣는다는 의미이다.²⁹⁵

『詩經』의 助詞 ‘載’는 ‘載馳載驅’처럼 本義와 관계없이 文頭,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어 음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詩經』의 일부 조사는 처음에 語音의 형식으로 쓰여졌다가 그 쓰임이 굳어지면서 일정한 어법의미를 가지게 된다.

후대 문헌에서도 ‘載’의 이러한 용법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陶淵明 『歸去來兮辭』²⁹⁶에서도 ‘載~載~’형식이 나타나는데 ‘載’는 대부분 병렬 술어 앞에 쓰여, 앞 문장과의 순접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동작이나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표시한다.

【 以 】

以→(呂, ‘ㄹ’) 用也. 从反巳. 賈侍中說：巳, 意巳實也. 象形 『說文·巳部』
사용하는 것이다. 巳를 거꾸로 나타낸 것이다. 賈侍中은 이르기를 呂(以)는 薏苡(을

293) 助詞：被文服織, 麗而不奇些 (문채나는 비단옷 고운 차림 아름답고도 기이한 모습이다) 『楚辭·招魂』

294) 徐中舒 主編,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5年, 5쪽, 재인용.

295)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527쪽.

296) 乃瞻衡宇 載欣載奔, 僮僕歡迎, 稚子候門 (이윽고 내 집이 눈에 들어와 기뻐하며 뛰어가노니, 심부름하는 아이는 반갑게 맞이하고 어린 것은 문 앞에서 기다리는도다) 晉·陶淵明 『歸去來兮辭』

무)의 열매이며 과실의 형상을 본뜬 것이라고 하였다.

補音助詞：

于以采芣 于澗之中 于以用之 公侯之宮 『詩經』召南·采芣
산골짜기 시냇가에서 다복쑥 뜯어 임금님의 묘당에 그것을 쓰네

‘以’는 『說文』에서 字形이 ‘冂’이며 ‘用也’라 하였는데 說文의 내용과 달리 ‘以’의 本義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徐中舒의 『甲骨文字典』에서 ‘以’는 ‘𠄎’, ‘𠄏’ 등의 형태로서 耕地에서 사용되는 農具를 본뜬 것이며 ‘耜(보습)’을 상형한 글자로 ‘耜’의 初文이라 하였다. 또한 오른쪽에 ‘人(사람)’을 加하여 사람이 농기구를 사용하는 형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卜辭에서는 ‘用也’, ‘及也’, ‘祭名’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²⁹⁷⁾ 따라서 徐中舒에 의하면 ‘以’의 本義는 ‘耜’이며 ‘用’은 引伸義이다.

한편 郭錫良은 裘錫圭, 李亞農 등의 견해에 동의하며 甲骨文의 字形은 사람이 물건을 들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그 本義는 ‘들다, 가지다’라고 하였다.²⁹⁸⁾

‘以’의 本義는 이렇듯 학자마다 달라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甲骨文에 쓰인 ‘以’의 많은 이체자를 살펴보면 편방에 ‘人’이 가해진 字形이 많지 않은 점으로 보아 최초의 字形은 주위에서 흔히 보는 農具를 형상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시적인 書法에 따라 字形이 최초로 탄생했을 때의 本義는 대부분 형상화가 쉬운 物名이다. 예를 들어 ‘歲’는 원래 도끼의 형상을 본뜬 것이며 本義는 ‘戊’이지만 卜辭에서는 가차되어 제사 이름으로 쓰였고 또 가차되어 ‘해(年歲)’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來’ 역시 ‘보리 까끄라기’의 형태를 본뜬 것이나 卜辭에서 그 本義는 이미 사용하지 않으며 ‘往來’의 來로 가차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訓詁原理』에 따르면 인신되는 物名, 事名은 상호간에 전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어떤 물체를 지칭하는

297)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年, 1592-1593쪽.

298) 郭錫良, 「介詞‘以’의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1998年, 第1期, 1쪽.

것에서 그 물체를 사용하는 동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²⁹⁹⁾

따라서 이러한 字形과 詞義의 관계로 비추어 볼 때 ‘以’의 本義는 農具 ‘耜’이며 『說文』의 ‘用也’는 그 引伸義라 할 수 있다.

『詩經』에서 ‘以’가 단독으로 쓰일 때 이러한 실사의미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 대부분 개사, 연사 등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詩經』 조사 ‘以’는 대부분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于以’, ‘越以’, ‘維以’ 등 다른 助詞와 연용해서, 음절을 고르는 보음조사로 가차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 忌 】

憎惡也. 从心己聲 『說文·心部』
미워하는 것이다. 心을 따르고, 己聲이다.

補音助詞 :

叔善射忌 又良御忌 抑磬控忌 抑縱送忌 『詩經』 鄭風·大叔于田
叔은 활 잘 쏘시고 말 잘 타신다더니, 말을 달렸다 멈췄다, 활을 쏘다 새를 쫓았다 하시네.

‘忌’는 金文의 字形이 ‘𠄎’이며 篆文의 字形은 ‘𠄎’로 字形이 서로 비슷하다.

『形音義綜合大字典』에 따르면 小篆의 本義는 ‘憎惡하다’이며 마음에 원한이 생겨 그것을 싫어하고 꺼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心을 따른 것인데, 己는 자신(我)을 뜻하며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로, ‘忌’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나은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⁰⁰⁾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末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 茲 】

艸木多益. 从艸, 茲省聲. 『說文·艸部』

초목이 무성한 것이다. 艸를 따르고, 茲는 聲部의 일부가 생략된 것이다.

299) 예를 들어 ‘矛’를 ‘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창으로 물건을 찌르기 때문에 ‘鋌’이라 한 것이다. 孫雍長, 『訓詁原理』, 語文出版社, 1997年, 289쪽.

300)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485쪽.

補音助詞：

昭茲來許 繩其祖武 『詩經』大雅·下武

이렇게 앞으로 밝히시어 조상들의 발자취를 이으시니

‘茲’에 대한 정확한 本義를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茲’의 本義에 대한 설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篆文의 ‘茲’는 회의자이며 두 개의 亥자가 좌우로 조합되어 합쳐져서 ‘검다’의 의미로, 흐르는 물에 더러운 실을 씻어서 물이 더 검어지고 혼탁해진다는 의미라 하였고 후에 위의 부분이 이어져서 ‘茲’가 되었다는 설이다.³⁰¹⁾ 다른 하나는 ‘茲’에서 ‘𠄎’는 形部이고, ‘絲’에서 생략된 아랫부분이 聲部라는 견해이다.

이렇듯 여러 견해가 있어 ‘茲’의 本義를 정의내리기 쉽지 않지만 字形으로 볼 때 茲의 甲骨文은 ‘𠄎’³⁰¹⁾, 이고 金文은 ‘𠄎’³⁰²⁾인데 이는 ‘𠄎’의 重文이며 따라서 고대에 ‘茲’와 통한다고 하였다.³⁰²⁾

『古代漢語字典』을 살펴보면 ‘𠄎’는 ‘가는 실’을 본뜬 것인데³⁰³⁾, 『說文解字今釋』에서 ‘茲’는 두 개의 실타래가 나란히 놓여진 것을 본뜬 것이며 응당 ‘絲’의 初文이라 하였다. 또한 卜辭에서는 近指의 지시대사나 地名으로 가차되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³⁰⁴⁾ ‘𠄎’가 ‘茲’가 된 것은 篆文 ‘𠄎’³⁰⁵⁾의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許慎의 설명은 그 本義라 할 수 없으며 이는 ‘두 개의 실타래가 놓여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茲’의 本義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 만큼 좀 더 많은 자료와 고증을 통한 연구가 더 보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茲’는 『詩經』에 本義와 관계없이 文中에 놓이는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는데 『集傳』에 ‘茲, 哉聲相近, 古皆通用也(茲와 哉는 소리가 서로 비슷한데, 옛날에는 아마 通用된 것으로 보인다)’³⁰⁵⁾라 한 것으로 보아 ‘哉’와 같은 역할을 하는 助詞로 보인다.

301)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495쪽.

302)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1471쪽.

303) 程孟輝, 『古代漢語字典』, 商務印書館, 2005年, 935쪽.

304)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出版社, 1997年, 122쪽.

305) 朱熹, 『詩集傳』, 鳳凰出版社, 2007年, 219쪽.

또한 예문 『書經·立政』에도 ‘茲’와 ‘哉’가 같은 문장에 놓여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모두 文末에 놓여 어기를 돕는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³⁰⁶⁾

(3) 職部

聲母가 職部로 雙聲이 되는 글자는 ‘式’, ‘或’이 있다. ‘式’, ‘或’은 모두 보음조 사이다.

【式】

法也. 从工, 弋聲. 『說文·工部』

법식이다. 工을 따르고 弋聲이다.

補音助詞 :

君子有酒 嘉賓式燕以樂 『詩經』 小雅·南有嘉魚

군자에게 술이 있으니, 좋은 손님 맞아 잔치하고 즐기네

甲骨文, 金文에 ‘式’자가 없으나 篆文은 ‘𠄎’이다. 따라서 정확한 本義는 알 수 없으나 『說文』에 따르면 ‘式’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規矩(곱자와 그림쇠)로 ‘법도’나 ‘표준’을 나타낸다.

『詩經』의 助詞 ‘式’은 文頭와 文中에 음절을 조절하는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이러한 『詩經』의 助詞 용법은 『書經』에도 나타나는데 『書·盤庚』에서 ‘式敷民德, 永肩一心 (백성들에게 덕을 펴서 길이 한마음에 맡기도록 하라)’이라고 하였다.

‘式’에 대해서 楊樹達은 語首助詞³⁰⁷⁾, 劉淇는 ‘發聲也, 猶爰也’³⁰⁸⁾라고 하였는데, 비록 용어는 다르지만 이들은 ‘式’을 모두 의미가 없는 조사로 본 점은 같다.

306) 助詞 : 周公曰嗚呼, 休茲, 知恤鮮哉 (주공이 말하기를, “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근심할 줄 아는 이는 드물 것입니다) 『書經·立政』

307) 楊樹達, 『詞詮』,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200쪽.

308) 劉淇, 『助字辨略』, 中華書局, 1954年, 274쪽.

【 或 】

邦也. 从口从戈, 以守一. 一, 地也. ‘塹’ 或又从土. 『說文·戈部』

나라이다. ‘口’을 따르고 ‘戈’를 따른다. 이로서 ‘一’을 지키는 것이다. ‘一’은 지역을 나타낸다. ‘域’은 ‘或’에 또 ‘土’를 따른 것이다.

補音助詞 :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 『詩經』小雅·天保

소나무 잣나무가 무성하듯이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네

‘或’의 甲骨文은 ‘𠄎’이다. 이는 『說文』의 내용처럼 창으로서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의 회의자이다. 金文은 ‘𠄎’으로 ‘一’을 가하여 범위의 경계를 더 분명히 하였다. 예변된 후에는 楷書化되어 ‘或’이 되고, 다시 ‘土’를 가하여 ‘域’이 되면서 ‘地域’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³⁰⁹⁾

湯可敬은 徐灝의 『段注傳』을 인용하여 ‘邦’은 나라를 이르며 영토의 경계는 ‘域’이라 하는데 고대에는 ‘或’자로서만 이것들을 가리켰으나, 후에 口을 가하여 ‘國’이 되고 ‘土’를 가하여 ‘域(지경)’이 되어 두 개의 글자, 두 개의 의미가 된 것이라 하였다.³¹⁰⁾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中의 보음조사로 가차되어 이중부정문에 한 차례 나타난다.

(4) 元部

‘旃’, ‘誕’, ‘言’, ‘焉’ 등이 있다. ‘旃’, ‘焉’은 어기조사이며 ‘誕’, ‘言’, ‘焉’은 보음조사로 쓰였다.

【 旃 】

旗曲柄也. 所以旃表士衆. 从旃丹聲. 『周禮』曰: “通帛爲旃.” 『說文·旃部』

자루가 구부러진 깃발이다. 병사들에게 그 신분을 보여주는 깃발이다 旃를 따르고 丹聲이다. 『周禮』에 이르기를 “전체가 붉은색인 비단으로 깃발을 만든다”고 하였다.

309)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335쪽.

310)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出版社, 1997年, 1804쪽.

語氣助詞：

舍旃舍旃 苟亦無然 『詩經』唐風·采芣

그 말 버려두소, 그 말 버려두소 또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說文』에 따르면 ‘旃’은 ‘旛’과 같으며 자루가 구부러진 붉은 기(旗)를 뜻한다. 唐治澤은 甲骨文에서 부수 ‘𠂔’, ‘𠂔’이 있는 글자는 모두 기, 깃발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³¹¹⁾

『詩經』에서는 ‘旃’은 代詞로도 쓰였으나 ‘舍旃舍旃’³¹²⁾처럼 일종의 兼詞로도 사용되었는데 ‘旃’은 ‘之焉’의 合音字이며³¹³⁾ ‘之’는 대사이고 ‘焉’은 어기조사이다.

이러한 『詩經』에서의 ‘代詞+助詞’의 兼詞 용법은 『漢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³¹⁴⁾ 劉淇는 『助字辨略』에서 顧炎武의 『日知錄』을 인용하여 ‘之焉爲旃(之焉은旃이다)’이라고 하였다.³¹⁵⁾

【 誕 】

詞誕也. 从言延聲. 『說文·言部』

말이 허황된 것이다. 言을 따르고 延聲이다.

補音助詞：

誕彌厥月 先生如達 『詩經』大雅·生民

산달이 차서, 마치 양처럼 첫 아이 쉽게 낳으시니³¹⁶⁾

谷衍奎는 ‘誕’의 本義는 ‘터무니없는 허황한 말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³¹⁷⁾

311) 唐治澤, 『甲骨文字趣釋』, 重慶出版社, 2002年, 146쪽.

312) 楊伯峻은 이 구절을 ‘不管他罷, 不管他罷’로 해석하였다.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年, 333쪽.

313) 旃은 之焉의 合音字이다. 따라서 ‘之’로도 혼성되고 ‘焉’으로도 혼성된다(旃者, 之焉之合聲, 故旃訓爲之, 又訓爲焉) 王念孫, 『廣雅疏証』, 卷五下.

314) 兼詞(之焉) : 舉茲以旃, 不亦寶乎 (이 사람을 천거하여 그를 등용하면 또한 나라의 보물이 아니겠는가) 『漢書·王貢兩龔傳』

315) 劉淇, 『助字辨略』, 中華書局, 1954年, 74쪽.

316) 達은 작은 羊이니, 羊새끼는 쉽게 태어나므로 지체되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朱熹, 『詩集傳』,

징조를 나타내는 새로 흙으로 보금자리를 짓는데 戊己 날은 피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새로 모두 상형자이다. 焉 또한 이러한 類이다.

語氣助詞：

我心憂傷 惄焉如擣 『詩經』小雅·小弁

내 마음의 시름이여! 생각할수록 방망이로 치는 듯하네

語氣助詞：

嗟行之人 胡不比焉 『詩經』唐風·杕杜

아아, 길가는 사람들은 어찌서 도와주지를 앓나

補音助詞：

誰俯予美 心焉忉忉 『詩經』陳風·防有鵲巢

누가 나의 님을 속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說文』에서 ‘焉’의 本義는 黃色의 새를 본 뜬 字로서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으며 金文에 나타나는데 그 字形은 ‘𪔐’이며 머리 부분에 뿔 같은 깃털이 있는 새의 모양을 상형한 字이다.³²²⁾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文中의 보음조사와 文末의 어기조사로 가차되었다.

向熹는 陳奐의 『傳疏』를 인용하여 ‘言’, ‘焉’, ‘然’ 세 글자는 모두 ‘語詞’라 하였다. ‘言’, ‘焉’, ‘然’은 聲部가 모두 元部로 雙聲이 되고 있는데 특히 ‘言’과 ‘焉’은 서로 語音과 관련이 있는 어기조사이다.

3) 기타

‘薄’, ‘則’, ‘只’, ‘爾’, ‘生’ 등이 있는데, 기능이 비슷한 조사가 있으나, 그러한 조사와 쌍성, 첩운관계가 되지 않는 경우, 혹은 쌍성, 첩운관계는 되지만 조사의 기능이 전혀 다른 경우는 이들을 기타로 두었다.

322)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614쪽.

【薄】

林薄也. 一曰蠶薄. 从艸溥聲. 『說文·艸部』

草木이 밀집되어 뻑뻑한 것이다. 一說에 養蠶하는 用具라 하였다. 艸를 따르고 溥聲이다.

補音助詞：

薄伐玁狁 至于大原 文武吉甫 萬邦爲憲 『詩經』小雅·六月

힘운 오랑캐 쳐부수어 대원땅에 이르니 글 잘 하고도 용감한 장수 길보는 온 나라의 모범일세

‘薄’의 本義는 나무가 밀집되어 뻑뻑한 곳이다.³²³⁾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보음조사로 가차되었다.

『漢書·衛青傳』에서도 조사로 사용되었는데 동사 앞에 놓이며 보통 주어가 없다.³²⁴⁾ 이는 『小雅·六月』의 예문과 매우 비슷하며, 사실상 이 구문은 『詩經』의 ‘薄伐玁狁 至于大原’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則】

等畫物也. 从刀, 从貝. 貝, 古之物貨也. 物건을 일정한 등급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刀와 貝를 따른 회의자이다. 貝는 고대 화폐이다. 『說文·刀部』

語氣助詞：

匪鷄則鳴 蒼蠅之聲 『詩經』齊風·鷄鳴

닭의 울음이 아니라 쉬파리 소리가 아니요?

‘則’은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으며, 金文에는 ‘𠄎’으로 ‘刀’와 ‘鼎’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漢字源流字典』에 따르면 이는 규범에 따라 솔의 고기를 칼로 자른다는 의미³²⁵⁾라 하였다.

『形音義綜合大字典』에는 ‘鼎’이란 음식을 나누는 그릇이라고 하였는데, 고대에

323)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825쪽.

324) 助詞：薄伐玁狁, 至于太原 (힘운 오랑캐를 물리치고 太原까지 이르렀네) 『漢書·衛青傳』

325) 谷衍奎, 위의 책, 189쪽.

‘鼎’과 ‘貝’는 字形이 비슷하여 篆文에 이르러 점차 ‘鼎’이 ‘貝’로 訛變되었다고 하였다. ‘貝’는 고대에 5개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귀천을 구별지어 혼란을 없애고 이로서 규범, 법칙을 세웠는데, 따라서 설문의 本義는 차등적으로 구분한다는 뜻이며 이를 규율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³²⁶⁾

本義에 대한 분석은 字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떠한 재물을 규범에 따라 일정하게 구분한다는 의미는 상통하고 있다.

『詩經』에서는 本義와 관계없이 가차되어 文中의 어기조사로 사용되었다.

【 只 】

語已詞也. 从口, 象气下引之形狀. 『說文·只部』

語氣의 休止를 나타내는 허사이다. 口를 따르며, (八은) 氣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을 본떴다.

語氣助詞 :

母也天只 不諒人只 『詩經』 鄘風·柏舟

어머님은 하늘 같으신 분! 저를 몰라 주시나이까!

補音助詞 :

樂只君子 萬壽無期 『詩經』 小雅·南山有臺

즐거울사 우리 님은 만수무강하실 걸세

오늘날의 간화자 ‘只’의 本義는 두 개의 來源이 있다. 하나는 篆文의 ‘只’이며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는다.³²⁷⁾ 『說文』에서는 입(口)을 따르며 語氣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예변되어 ‘只’로 바뀌었다.

또 다른 하나는 甲骨文 ‘𠄎’인데 이는 회의자이며 ‘手’와 ‘鳥’를 따른다. 이는 손에 잡은 한 마리의 새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本義는 한 마리의 새이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글자로 예변된 후 각각 ‘只’와 ‘隻’으로 쓰였으며, 지금은 간화되어 ‘隻’도 ‘只’로 표시한다.³²⁸⁾ 이는 소리가 유사해서 글자를 같이 쓴 것으

326)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年, 147쪽.

327) 字形의 本義가 甲骨文이나 金文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의 편의상 『說文』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그 해석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로 보이는데, 조사 ‘只’는 篆文 ‘只’와 관계있으며 이는 말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詩經』에서는 감탄의 어기조사로서 文末에 놓이거나 보음조사로 文頭, 文中에 사용되었다.

【爾】

麗爾, 猶靡麗也. 从門从尗, 其孔尗, 尗聲. 此與爽同意. 『說文·尗部』
밝다, 밝고 성긴 모양이다. 門을 따르고 尗을 따른다, 구멍이 밝은 모양이다. 尗聲이다. 이것은 爽과 같은 의미이다.

語氣助詞：

噫嘻成王 既昭假爾 『詩經』 頌·噫嘻
아아, 성왕님이어, 신이 밝게 강림하셨네

‘爾’의 甲骨文 字形은 ‘𠄎’이고 金文은 ‘𠄎’이다. 甲骨文을 통해서 살펴본 ‘爾’의 本義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漢字源流字典』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谷衍奎는 그 本義에 대해 누에가 실을 뿜어 누에고치를 만드는 형상이며 위쪽은 누에의 머리이며 아랫부분은 그것에서 만들어진 고치라 하였다.³²⁹⁾

『詩經』의 助詞 ‘爾’는 本義와 관계없이 ‘矣’와 비슷한 어기 조사로 가차되었는데 『公羊傳』에도 어기조사로서 文末에 놓여 진술의 어기를 강화하고 있다.³³⁰⁾

【生】

進也. 象艸木生出土上. 『說文·生部』

자라나는 것이다. 초목이 땅 위로 자라나오는 형상이다.

328)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年, 119쪽.

329) 谷衍奎, 위의 책, 131쪽.

330) 助詞：君若用臣之謀，則今日取郭而明日取虞爾，君何憂焉？(당신이 만약 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괘나라를 가질 수 있을 것이요, 내일은 노나라를 取할 수 있을진대 무엇을 근심하는가?) 『公羊傳·僖公二年』

補音助詞：

壽考且寧 以保我後生 (頌·殷武)

오래도록 수하시고 안녕하시어 우리 자손을 보호하시네.

‘生’의 甲骨文은 ‘’이며 아래 부분은 땅을 나타내고 윗부분은 草木이 자라는 모양이다. 그 本義는 草木이 땅에서 나와 자라는 것이다.

『詩經』에서 조사 ‘生’의 용법은 단 세 차례 나타나는데 本義와 어떤 관계도 없으며 『詩經』에서는 文末에서 보음조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詩經』에서 조사 ‘生’은 모두 압운자인데, 예를 들어 頌·殷武에서 ‘生’은 앞 구절의 ‘聲’, ‘靈’, ‘寧’과 함께 모두 耕部에 속하며³³¹⁾ 압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生’은 압운을 위해 文末에 놓인 보음조사로 보인다.

『詩經』의 용례만 보면 ‘生’을 명사 뒤에만 붙는 접미사로 볼 수도 있겠으나 『詩經』 이후에 부사, 형용사 뒤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³³²⁾ 이는 애초에 口語를 반영하는 조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楚辭·九辯』에도 ‘友生’이 보이는데 역시 『詩經』과 같은 운문에서 같은 용법이 나타나고 있다.³³³⁾ 『詩經』은 대량의 민간의 가요를 포함하고 있고 당시의 언어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楚辭』 역시 초나라의 민가형식을 이용해 만든 詩歌로 초나라 당시의 구어에 매우 근접해 있다. 다시 말해 『詩經』과 『楚辭』의 구어와 서면어는 비교적 통일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口語와 書面語는 의식적으로 점차 엄격히 분리되어 갔고 위의 예문처럼 당대이후의 詩歌와 通俗文學에서 ‘生’이 점차 허사로 나타났다. ‘生’은 『詩經』 시기에는 명사 뒤에만 나타났지만 唐代 이후에는 형용사, 부사 뒤에도 나타나면

331) 赫赫厥聲 濯濯厥靈 壽考且寧 以保我後生 (頌·殷武)

332) 助詞：借問別來太瘦生，總爲從前作詩苦 (그사이 어찌 이다지 말랐는가 물으니, 오로지 매일 시 짓는 괴로움 탓이라네) 李白·『戲贈社甫』

助詞：況我看見你不喜理这烦剧的事，怎生是好？(하물며 당신도 이 번거로운 일을 거들떠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儒林外史』·七回

助詞：師云，什么生事？(선생이 이르기를 무슨 일인가? 하였다) 『祖堂集』，卷八，云居和尚

333) 助詞：廓落兮羈旅而無友生，惆悵兮而私自憐 (쓸쓸하구나, 벗 없는 나그네 신세여, 서글픈 마음 스스로 달래 보누나) 『楚辭·九辯』

서 더 다양하게 쓰였다. 『古今漢語詞典』에 ‘生’은 부사 접미사³³⁴⁾라 하였지만 ‘生’은 『詩經』시기에는 명사 뒤에 나타났고, 특히 당대 이후에는 형용사 뒤에도 쓰이고 있으므로 ‘生’을 부사 접미사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당시의 구어 형식을 반영한 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34) 楊自翔·楚永安·李達仁 主編, 『古今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年, 1277쪽.

V. 結論

『詩經』은 운문의 체제로서 그 어떤 작품들보다 많은 조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詩經』에 나타나는 조사의 글자는 총 60개이며 모두 2,493차례 나타난다. 그 중 國風에 나타난 조사는 46개이며 1,124번 사용되었고, 雅에 나타난 조사 역시 46개이며 1,170번 출현하였다. 頌에는 27개 조사가 나타났고 모두 199번 사용되었다. 頌에 나타난 조사가 적은 이유는 어떤 체제상의 특징보다는 가장 크게는 작품수와 관계있다고 보는데 國風의 작품 수가 160편, 雅가 105편, 頌이 40편인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詩經』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조사는 ‘之’인데, 495번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兮’가 353번 사용되었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조사는 ‘或’, ‘越’, ‘茲’, ‘期’, ‘員’, ‘爾’로 각각 1번씩 사용되었다.

『詩經』 조사의 發生과 관계되는 것은 크게 소리와 의미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의미와 관계 되는 경우는, 『詩經』 속에서 각각 代詞, 動詞, 形容詞로부터 인신된 경우인데, 여기서의 인신은 조사에 어느 정도의 실사의미가 남아 있어서 앞이나 뒤의 다른 실사 어기를 강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조사로는 ‘其’, ‘斯’, ‘是’, ‘之’, ‘于’, ‘來’, ‘有’, ‘而’, ‘若’, ‘如’, ‘然’ 등 11개가 있다. 예를 들어 실사의 ‘其’, ‘斯’, ‘是’, ‘之’는 처음에는 명사를 지칭하는 代詞에서 비롯되었지만, 점차 명사뿐 아니라 동사, 형용사를 지칭하게 되면서 그 지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확대된 지칭의 범위는 점차 모호해져 품사 역시 대사에서 조사로 변화되었다.

조사의 글자는 총 60개이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조사로 사용된 경우의 수를 합하면 71개인데, 71개 조사에서 이렇게 인신된 조사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60개 조사는 실사의미와 어떤 관련이 없이, 어음과 관계되어 가차된 조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신된 조사의 경우에도 기능이 비슷한 조사끼리 雙聲이나 疊韻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나머지 60개의 조사들은 본의나 인신의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語音의 영향을 받은 조사들이다.

『詩經』 조사의 어음 방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聲母면에서 먼저 살

해보면 聲母는 舌面音과 牙音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助詞 語音의 62.5%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도 舌面音이 더 많은데 이 어음들은 그 발음부위가 구강의 중간에 있으며 편하게 할 수 있는 발음이다. 牙音은 발음 부위가 뒤쪽으로 이는 강하게 감정을 발산하기에 적합한 소리이며, 音律이 길게 늘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 외에 齒頭音이 19.2%로 나타나며, 나머지 聲母는 약간씩 분포하고 있다.

韻部면에서 韻部는 주요모음으로 /-a-/, /-ə-/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이는 전체의 79%에 해당한다. /-a-/는 구강의 앞쪽에서 혀의 위치는 낮게 발음되며, /-ə-/는 구강의 중간에 위치하는 모음으로 발음하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助詞의 주요모음이 /-a-/, /-ə-/에 집중되는 것은 결국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쉽게 발음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음성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陰陽入 三聲을 보면 음성운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모음으로 끝나는 開音節이기 때문에, 노래가사의 連音에 적합해서일 것이다.

시경 조사와 압운의 관계를 보면, 조사 자체가 압운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사 앞의 글자가 압운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兮字脚이 『詩經』에 69차례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압운자 중에 36%가 입성운이다. 특히 이렇게 입성운이 나타날 때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兮字脚의 경우 입성운 중에서도 /-t/류 入聲(月部, 質部)이 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k/類 入聲(鐸部, 職部, 覺部, 沃部)이 32%가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출현 빈도가 많은 虛字脚은 ‘矣’, ‘也’, ‘止’인데, 也字脚과 止字脚의 압운자 중 入聲韻은 모두 /-k/類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본고에서는 『詩經』에 나타난 助詞의 종류를 構造助詞, 語氣助詞, 補音助詞로 구분하였는데, 字形은 60개이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조사로 사용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모두 71개이다.

『詩經』 조사를 그 용법에 따라 構造助詞, 語氣助詞, 補音助詞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조사 : ‘斯’, ‘攸’, ‘所’, ‘者’, ‘之’ 등 5개이며 수식구, 명사구 등 句의 구성에서 어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어기 조사 : ‘矣’, ‘止’, ‘斯’, ‘其’, ‘兮’, ‘也’, ‘爾’, ‘焉’, ‘哉’, ‘者’, ‘乎’, ‘居’, ‘諸’, ‘猗’, ‘只’, ‘且’, ‘而’, ‘旃’, ‘有’, ‘是’, ‘之’, ‘則’, ‘若’, ‘然’, ‘如’, ‘于’, ‘來’ 등

27개이며 文末, 文中, 文頭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보음조사 : ‘亦’, ‘誕’, ‘逝’, ‘云’, ‘無’, ‘爰’, ‘不’, ‘維’, ‘居’, ‘侯’, ‘伊’, ‘適’, ‘式’, ‘越’, ‘載’, ‘抑’, ‘曰’, ‘思’, ‘噬’, ‘以’, ‘斯’, ‘夷’, ‘或’, ‘且’, ‘乎’, ‘攸’, ‘只’, ‘焉’, ‘哉’, ‘茲’, ‘忌’, ‘員’, ‘生’, ‘言’, ‘薄’, ‘聿’, ‘胥’, ‘其’, ‘期’ 등 39개이며 文頭, 文中, 文末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조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글자가 다른 조사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들끼리는 어음적 공통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법 역할이 같은 구조조사끼리는 聲母나 韻部가 같거나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명사구를 이루는 ‘所’와 ‘者’는 같은 魚部로 疊韻이 되는데,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어음끼리는 같은 어법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기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성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어와 관계된 경우와 전체 문장의 어기에 관계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단어의 어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文中이나 文頭に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들은 조사로 활용되기 이전의 실사 의미와 관계된 것들이 많으며, 다른 실사의 앞이나 뒤에 놓여 그 실사 의미를 강화하는데, 文頭보다 文中에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문장 전체의 어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文末에 놓이며 일정한 어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맥이나 어조를 통해 이미 주어진 어기를 강화하거나, 어기조사가 가지는 고유의 어기색채를 더하기도 한다.

어기조사의 어음적 특징을 살펴보면 疊韻이 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으며, 韻部는 之部, 魚部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之部和 魚部に 속하는 韻部는 57%에 이르고 있다. 이 韻部들의 주요모음은 모두 /-a-/, /-ə-/로서 모두 開口度가 크거나, 혹은 큰 편에 속하는 모음들이다. 이러한 모음들은 開口度가 크고, 뚜렷하며 길게 늘이기가 쉬우므로 여러 가지 語氣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더 적합한 면이 있다.

또한 어기 조사는 入聲韻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보음조사의 文頭に 입성운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어기조사 역시 기능이 비슷한 조사들끼리 어음의 유사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如’, ‘若’, ‘而’, ‘然’의 聲母는 모두 日母에 속하며, 술어 앞의 어기조사 ‘于’와 ‘言’은 각각 匣母, 疑母로 모두 牙音 계열이다.

보음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음조사는 다른 조사와 비하여 그 글자가 가장 많으며, 그러한 만큼 語音의 종류도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보음조사는 雙聲과 疊韻이 되는 경우가 골고루 나타나며 다른 조사에 비하여 入聲韻이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이러한 入聲韻이 있는 조사는 ‘亦’, ‘逝’, ‘適’, ‘式’, ‘越’, ‘抑’, ‘曰’ 과 같이 文頭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入聲이 문장의 가장 처음에 오게 되면 語音이 두드러지므로, 듣는 사람의 주목을 끄는 효과가 있다.

또한 文末에 보음조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앞의 글자가 압운이 되지만, 보음조사가 文末에 한 번 나타날 때는 모두 압운자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文末의 보음조사 ‘生’, ‘期’, ‘胥’, ‘思’, ‘員’ 등은 각각 耕部, 之部, 魚部, 之部, 文部로 모두 압운자에 속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詩經』 조사에 대한 분류와 귀속, 조사 語音의 성격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馬氏文通』 이래 이어져 온 漢語 품사 분류 체계에 대한 다양한 異見들이 있을 수 있고, 상고 시기 재구음 역시 학자들마다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詩經』은 經典이기 이전에 노래로 불리던 詩歌였다. 이러한 詩歌에는 實詞로 쓰이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 허사로 쓰였던 무수한 글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글자들은 어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어떠한 글자도 빌려쓸 수 있었다. 그러나 글자를 통하여 『詩經』을 읽는 讀者의 입장에서 이는 『詩經』의 이해를 더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詩經』에 있어 이렇게 많은 조사들이 존재한다는 것, 특히 소리를 그대로 기록한 보음조사가 제일 많이 출현한 것, 실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음절을 나타내는 조사나 어기와 관계되는 조사로서 4言句를 구성한 것 등 『詩經』의 조사 체계를 이해한다면 이는 『詩經』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함

【書冊類】

-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1.
- 孔穎達,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中文出版社, 影印本.
- 金學主, 『詩經』, 明文堂, 2002.
-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華夏出版社, 2003.
- 郭錫良, 『古代漢語』, 北京, 商務印書館, 2009.
- 屈萬里, 『詩經詮釋』, 聯經, 聯經出版事業公司, 1972.
- 盧以緯, 『助語辭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8.
- 段玉裁, 『說文解字注』,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7.
- 唐治澤, 『甲骨文字趣釋』, 重慶, 重慶出版社, 2002.
- 董同龢 譯, 『高本漢詩經注釋』, 中華叢書, 1960.
-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
- 馬瑞辰, 『毛詩傳箋通釋』, 北京, 中華書局, 1989.
- 裘學海, 『古書虛字集釋』, 北京, 中華書局, 1982.
- 徐中舒 主編, 『漢語大字典』, 武漢, 湖北辭書, 四川辭書出版社, 1992.
- ,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 孫雍長, 『訓詁原理』, 語文出版社, 1997.
- 楊伯峻 ·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2001.
- 楊伯峻, 『古漢語虛詞』, 北京, 中華書局, 2000.
- 楊樹達, 『詞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 『高等國文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楊自翔 · 楚永安 · 李達仁 主編, 『古今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염정삼, 『설문해자주』 부수지역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王 力,『中國現代語法』,商務印書館,1985.
- ,『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1980.
- ,『中國言語學史』,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6.
- ,『古代漢語』,北京,中華書局,1962.
- ,『中國語法理論』,山東教育出版社,1985.
- ,『詩經韻讀』(王力文集 第6卷),上海古籍出版社,1980.
- ,『同源字典』,北京,商務印書館,1982.
- 王先謙,『詩三家義集疏』,北京,中華書局,1987.
- 王引之,『經傳釋詞』,南京,江蘇古籍出版社,2000.
- 廖振佑,『古代漢語特殊語法』,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2001.
- 熊鈍生 主編,『辭海』,臺灣中華書局,1986.
- 劉 淇,『助字辨略』,北京,中華書局,1954.
- 劉 復,『中國文法通論』,商務印書館,影印本,1936.
- 游汝杰,『漢語方言學教程』,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4.
- 李敦柱,『漢字學總論』,博英社,1979.
- 李 圃,『甲骨文文字學』,學林文庫,1994.
- 이영주,『漢字字義論』,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2.
- 李珍華,周長楫,『漢字古今音表』,北京,中華書局出版,1999.
- 袁仁林,『虛字說』,北京,中華書局,1989.
- 全廣鎮 編譯,『中國文字訓詁學辭典』,東文選,1993.
- 程孟輝,『古代漢語字典』,商務印書館,2005.
- 鄭張尚芳,『上古音系』,上海教育出版社,2003.
- 宗福邦 · 陳世饒 · 蕭海波 主編,『故訓匯纂』,商務印書館,2003.
- 朱德熙,『語法講義』,商務印書館,1982.
- 周秉鈞,『古代漢語綱要』,湖南教育出版社,1981.
- 周振鶴 · 游汝杰,『方言與中國文化』,臺北,南天書局,1979.
- 朱 熹,『詩集傳』,南京,鳳凰出版社,2007.
- 陳煒湛,『甲骨文導論』,學古房,2002.
- 陳 奐,『詩毛氏傳疏』,山東友誼書社,1992.

- 湯可敬,『說文解字今釋』,長沙,岳麓書社出版社,1997.
- 何樂士,『古代漢語虛詞詞典』,北京,語文出版社,2006.
- 何 容,『中國文法論』,商務印書館,1985.
- 向 熹,『詩經古今音手冊』,天津,南開大學出版社,1988.
- ,『詩經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7.
- 韓 嬰,『韓詩外傳集釋』,北京,中華書局,1980.
- 韓崢嶸,『詩經譯注』,吉林文史出版社,1995.
- 華 鐸,『詩經詮譯』,大象出版社,1997.
- 黃六平,洪淳孝·韓學重 譯,『漢文文法綱要』,서울,미리내,1994.
- 黃六平,『漢語文言語法綱要』,華正書局,1981.
- 허 벽,『中國古代語法』,서울,신아사,1997.
- ,『中國語法學史』,서울,延世大學校出版部,1999.
- 胡安順,『音韻學通論』,北京,中華書局,2003.

【論文類】

- 葛根貴,「『詩經』的‘其’」,『江西師院學報』,1982,第2期.
- 姜宝琦,「從『詩經』用例談‘之’作狀語」,『昆明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1995,第3期.
- 姜 曉,「淺議『詩經』虛詞‘言’」,『海南大學學報』,2003,第3期.
- 高 林,「論『詩經』中的襯字」,『佳木斯師專學報』,1994,第2期.
- 郭錫良,「先秦語氣詞新探(一)」,『古漢語研究』,1988,第1期.
- ,「介詞‘于’的起源和發展」,『中國語文』,1997,第2期.
- ,「介詞‘以’的起源和發展」,『古漢語研究』,1998年, 제1期.
- ,「漢語介詞于起源于漢藏語設商榷」,『中國語文』,2005,第4期.
- 裘燮君,「『詩經』語氣詞功能探析」,『河池師專學報』,2003,第3期.
- ,「正確評估詩經中語氣詞的歷史真實性」,『河池師專學報』,2004,第1期.
- ,「『詩經』足句語氣詞的語氣功能」,『徐州師範大學學報』,1999,第3期.
- 김은주,「先秦詩歌의 助詞 研究」,全南大學教 博士學位論文,1998.

- _____, 「先秦詩歌 句中語氣助詞 研究」, 『中國人文科學』, 1996, 第15期.
- 김종배, 「‘兮’字 研究」, 『淸州大學校論文輯』, 1980, 第13期.
- 段德森, 「談古漢語語氣助詞的轉化」, 『云夢學刊』, 1996, 第3期.
- 段茂升, 「『詩』·七月‘于耜, 于貉, 于茅’之‘于」, 『西南師範大學文學院』, 2005, 第2期.
- 羅慶云, 「『詩經』的介詞‘以」, 『武漢大學學報』, 2005, 第2期.
- 羅國強, 「『詩經』‘乎’字用法辨析」,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01, 第2期.
- 羅慶云, 「『詩經』的介詞‘以」, 『武漢大學學報』, 2005, 第2期.
- 駱鍾煉 · 馬貝加, 「『詩經』代詞‘其’和話題的關係」, 『語法研究』 2007, 第1期.
- 呂 志, 「『詩經』介詞‘以’考察」, 『三峽大學學報』, 2002, 第2期.
- 梅祖麟, 「介詞‘于’在甲骨文和漢藏語里的起源」, 『中國語文』, 2004, 第4期.
- 麥宇紅, 「『詩經』‘而’用法考」, 『湖南科技學院學報』, 2005, 第6期.
- 牟玉華, 「『詩經』補字研究」, 『樂山師範學院學報』, 2004, 第6期.
- 毛毓松, 「論『詩經』句中的‘其」」, 『廣西師範大學學報』, 1994, 第1期.
- 方有國, 「『詩經』虛詞‘式’辨釋」, 『語言研究』, 2003, 第3期.
- _____, 「『詩經』虛詞‘止’妄議」, 『西南師範大學學報』, 1999, 第5期.
- _____, 「『詩經』‘斯’字研究」, 『西南大學學報』, 2009, 第2期.
- 潘麗君, 「『詩經』中‘言’字辨」, 『牡丹江師範學院學報』, 2000, 第4期.
- 董蓮池, 「先秦漢語幾種形式下的‘而’字語法性質研究」, 『中文自學指導』, 2009, 第1期.
- 付義琴, 「淺議『詩經』中的‘斯」」, 『西華師範學院學報』, 2004, 第2期.
- 謝翌梅, 「漢語襯字再論」, 『韶關學院學報』, 2007, 第7期.
- 徐 娜, 「『詩經』中‘思’之考察」, 『烏魯木齊成人教育學院學報』, 2005, 第2期.
- 時 兵, 「也論介詞‘于’的起源和發展」, 『中國語文』, 2003, 第4期.
- 蕭海波, 「『詩經』‘之’字用法初探」, 『武漢大學學報』, 1982, 第4期.
- 宋會鵠, 「『詩經』中以字用法分析」, 『韶關學院學報』, 2009, 第2期.
- 안기섭, 「古代漢語 實詞類 품사 분류의 非文法성에 관하여」, 中國人文學會, 2009, 第43輯
- _____, 「古代漢語 助詞 ‘之’의 機能에 관한 新論」, 中國人文學會, 2008, 第40輯.
- 양만기, 「甲骨文 介詞 研究」, 全南大學教 博士學位論文, 2005.
- 楊文霞, 「『詩經』中‘斯’字的用法考析」, 『寶鷄文理學院學報』, 2005, 第3期.

- 梁占先, 「『詩經』語助詞分析」, 『水盤水師專學報』, 2001, 第3期.
- 楊合鳴, 「『詩經』‘薄言’解」, 『辭書研究』, 2001, 第4期.
- 王 杰, 「談古漢語的‘所’字構造」, 『東北林業大學學報』, 1987, 第5期.
- 王秀玲, 「『詩經』‘而’字研究」, 『西華師範學院學報』, 2003, 第5期.
- 汪業全, 「『詩經』中‘維’字再考察」, 『華南理工大學學報』, 2004, 第2期.
- 王 珏, 「『詩經』中的‘以’字考察」, 『語文知識』, 2008, 第1期.
- 王重陽, 「『詩經』‘不’字的語詞用法」, 『池州師專學報』, 1995, 第3期.
- 王 顯, 「『詩經』中跟重言作用相當的有字式、其字式、斯字式、思字式」, 『言語研究』, 1959, 第4期.
- 熊 焰, 「先秦韻文‘其’字代詞虛用說」, 『古漢語研究』, 1997, 第2期.
- 劉美娟, 「『詩經』虛詞‘于’和‘於’用法初探」, 『麗水師範專科學校學報』, 2001, 第4期.
- 李 麗, 「淺談虛詞訓釋術語的發展演變」, 『語文學刊』, 2007, 第5期.
- 李先耕, 「『詩經』中的‘兮’字」, 『求是學刊』, 1984, 第2期.
- 李春艷, 「淺談『詩經』‘薄’字注釋的共通性」, 『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 第3期.
- 임수진, 「『詩經』代詞‘其’의 虛化에 대한 小考」, 『中國人文科學』, 2008, 第38輯.
- _____, 「『詩經』補音助詞‘言’의 품사전환에 관한 小考」, 『中國語文學』, 2009, 第54號.
- 張祥友, 「也說『詩經』中的‘言’字」, 『宜春學院學報』, 2006, 第5期.
- 張玉金, 「論西周漢語中有無真正的第三人稱代詞」, 『古漢語研究』, 2006, 第1期.
- _____, 「甲骨文金文中‘其’字意義的研究」, 『殷都學刊』, 2001, 第1期.
- 張引立, 「『詩經』中的補音助詞研究」, 『語文研究』, 1999, 第3期.
- 張仁明, 「語音是助詞的核心」, 『畢節師專學報』, 1994, 第1期.
- _____, 「『詩經』中的補音助詞研究」, 『畢節師專學報』, 1995, 第4期.
- 錢小云, 「『詩經』助詞」, 『南京師大學報』, 1979, 第1期.
- 鄭相泓, 「『詩經』‘風’의 시가발생학적 양상 연구」, 『中國文學研究』, 第22輯.
- 陳年高, 「『詩經』‘于’v之‘于’非詞頭說」, 『古漢語研究』, 2009, 第1期.
- 陳 湘, 「『詩經』‘是’字用法考」, 『廣西教育學院學報』, 1994, 第4期.
- 陳雪梅, 「『詩經』中‘于’字的辨析」,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01, 第30卷.
- 陳志明, 「古漢語虛詞研究史述略」, 『山西師大學報』, 1994, 第2期.
- 陳 燦, 「『詩經』中的‘止’字」, 『古漢語研究』, 2004, 第1期.

- 周崇謙, 「『詩經』中‘于’、‘於’的讀音和詞性」, 『張家口職業技術學院學報』, 1999, 第3期.
- , 「『詩經』‘其’字 類釋」, 『張家口大學學報』, 1995, 第2, 3期.
- 周賽紅 · 喻華, 「『詩經』‘所’字考」, 『湘潭師範學院學報』, 2002, 第4期.
- 천기철, 「『詩經』의 接辭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
- 肖賢彬, 「『詩經』若干帶‘有’、‘其’字疑難句子的釋義」, 『廣東社會科學』, 2006, 第4期.
- 湯 斌, 「『詩經』中‘止’字的本義, 引伸義, 假借義」, 『蘭州大學學報』, 1982, 第1期.
- 夏永聲, 「『詩經』的虛字‘言’不是動詞詞頭」, 『韶關學院學報』, 2002, 第8期.
- 向 熹, 「論『詩經』言語的性質」, 『中國韻文學刊』, 1998, 第1期.
- 胡 適, 「詩三百篇言字解」, 『胡適文存』, 亞東圖書館, 影印本, 1928.
- 胡憲麗, 「論『詩經』國風中‘其’字的用法」, 『池州師專學報』, 2005, 第6期.

A Study on Postpositions in *the Book of Songs*

Su-Jin Im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hn)

〈Abstract〉

The Book of Songs, one of the oldest books of odes in China, contains not only folk songs that had been sung for nearly 500 years from 3,000 to 2,500 years ago but also poems and songs enjoyed by the gentry and the eulogy used at religious services in praise of gods.

The Book of Songs is a collection of poems and songs of the populace rather than a sacred book. Therefore, it is a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ood and feelings of poetic words through the usage of expletives as to grasp the meaning of content words.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usage, sounds and origins of postpositional expletives. The usage and functions of postpositions are investigated through examples, and sound characteristics of each expletive are also explored. With regard to the origins of postpositions, the focus is on what mechanism acted on change in word meanings from content words to expletives.

In terms of the usage, we can classify postpositions appearing in *the Book of*

Songs into structural postpositions, base postpositions, and supporting postpositions. Structural postpositions are relatively small in number compared to the others. As those that perform the same function share common features of sounds, structural postpositions that play the same grammatical role have the same syllable onset or rhyme, or show similar features.

Base postposi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related to words and the other to the whole sentence. The postpositions that affect the base of a word appear mostly in the initial or medial position of the sentence. Most of them are associated with the meaning of content words before used as postpositions. They serve to intensify the meaning of content words before or after which they are placed, and appear in the sentence-medial position more often than in the sentence-initial position. On the other hand, base postposi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base of a whole sentence tend to be placed in the sentence-final position. They represent certain bases, strengthen the meaning of a given base through a context or tone, or add the color peculiar to the base postposition.

Supporting postpositions exist in greater number and have more entering tones than other postpositions. Among them are ‘亦(yeok)’, ‘逝(sheo)’, ‘遙(hyeul)’, ‘式(shik)’, ‘越(wol)’, ‘抑(eak)’ and ‘曰(wal)’, which appear sentence-initially. Entering tones serve to attract attention from listeners since sounds become prominent in the sentence-initial position.

We examine the common sound features of postpositions used in *the Book of Songs*. In terms of the initial consonants, sounds of the dorsal consonants are predominant in number, followed by velar sounds. They account for 61.1% of all the sounds of postpositions.

As rhymes, /-a-/ and /-ə-/ appear most frequently, making up 79% of all. /a/ is pronounced in the front of the mouth with the tongue lowered. /-ə-/ is produced in the middle of the mouth, so it is easy to pronounce. Accordingly, the predominance of the two vowels as the rhyme is attributable to a natural phonetic choice that intends to express feelings effectively and pronounce more easily.

Among *yin*, *yang* and *entering* tones, *yin* tones occupy the most, which is probably because they form open syllables ending with a vowel, thus suitable for liaison in song lyrics.

From the postpositions in *the Book of Songs*, it is showed that some postpositions serve as the rhymes themselves, but in most cases, the letter before the postposition becomes the rhyme. Meanwhile, supporting postpositions can rhyme themselves when they are in the sentence final position.

The origins of postpositions in *the Book of Songs* involve their sounds and meanings. The meaning of a postposition can stem from those of pronouns, verbs and adjectives, which means that the postposition contains in itself the meaning of a content word and intensifies the meaning of another base before or after it. The following eleven postpositions are classified into this category: ‘其(*gi*)’, ‘斯(*sa*)’, ‘是(*si*)’, ‘之(*ji*)’, ‘于(*wu*)’, ‘來(*lae*)’, ‘有(*yu*)’, ‘而(*yi*)’, ‘若(*yak*)’, ‘如(*yeo*)’, ‘然(*yeon*)’.

Among the total of 71 postpositions examined, the remaining 60 postposition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11 expletives, borrowed their sounds without any bearing on the meaning of content words. They occupy 85% of all the postpositions, which implies that the majority of the postpositions in *the Book of Songs* relate to word sounds.

【附錄】

『詩經』 조사 기타 용례

* 전체 용례는 총 2,493번 나타나며, 여기에는 일부만 기재한다.

1. 居

四方有羨 我獨居憂 온 세상이 즐거워하거늘 내 홀로 근심하네 (小雅·月之交)
擇有車馬 以居徂向 수레와 말 있는 자들을 골라 향 땅으로 갔네 (小雅·十月之交)
日居月諸 出自東方 해와 달은 동녘에서 뜨고 있는데 (邶風·日月)

2. 其

壹者之來 云何其吁 한번 오면 될 것을 어찌서 근심하게 하는가? (小雅·何人斯)
無競維人 四方其訓之 비길 데 없이 착한 사람이면 온 세상이 그를 교훈으로 삼고
(大雅·抑)
誰謂荼苦 其甘如濟 누가 씹바귀를 쓰다 했나요. 나에게겐 냉이만큼 달아요 (邶風·谷風)

3. 忌

叔善射忌 又良御忌 숙은 활 잘 쏘시고 말 잘 타신다더니 (鄭風·大叔于田)
叔馬慢忌 叔發罕忌 숙의 말은 느러지고 숙의 활쏘기가 뜸해지더니 (鄭風·大叔于田)
抑釋搆忌 抑鬯弓忌 화살통 뚜껑을 풀고 활을 활집에 넣으시네. (鄭風·大叔于田)

4. 期

有頰者弁 實維何期 짐작은 관은 무엇하러 썼는가? (小雅·頰弁)

5. 來

是用作歌 將母來諗 노래를 지어 보니 어머님이 그림기만 하네. (小雅·四牡)
征伐玁狁 蠻荊來威 험윤 오랑캐도 정벌하시더니 형 땅의 오랑캐도 굴복시키셨네
(小雅·采芣)

匪棘其欲 適迨來孝 욕심대로 급히 이루지 않으시고 신왕의 뜻을 좇아 효도 다 하셨으니
(大雅·文王有聲)

6. 無

如彼流泉 無淪胥以敗 샘물이 흘러서 빠지고 서로 패망에 이르는 것과 같네
(小雅·小旻)

如彼泉流 無淪胥以亡 저 흐르는 샘물처럼 모두 함께 망하지 말기를
(大雅·抑)

7. 薄

薄言震之 莫不震疊 한번 진동시키니 떨며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없고
(頌·時邁)

思樂泮水 薄采其芹 즐거운 반궁의 물에서 미나리를 캐네
(頌·泮水)

薄伐玁狁 以奏膚公 험운 오랑캐를 쳐부수어 큰 공을 이루리라
(小雅·六月)

8. 不

徒御不驚 大庖不盈 步卒과 車御가 경계하니, 큰 푸주간이 가득 차네
(小雅·車攻)

不戢不難 受福不那 그치고 삼가니, 많은 복을 받네
(小雅·桑扈)

矢詩不多 維以遂歌 賢臣이 바친 詩가 정말 많으니, 마침내 노래로 부르네
(大雅·卷阿)

9. 斯

我日斯邁 而月斯征 나는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네
(小雅·小宛)

十月滌場 朋酒斯饗 시월엔 타작마당 치우는데 두어 통 술 마련하여 동네분들 술대접하
고
(邠風·七月)

哀我人斯 亦孔之將 우리 백성 아끼시는 마음 너무도 위대하시네
(邠風·破斧)

10. 思

翩翩者騅 烝然來思 필필 나는 집비둘기가 떼지어 날아왔네
(小雅·南有嘉魚)

神之格思 不可度思 신의 내림하심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大雅·抑)

既載清酤 賚我思成 맑은 술 차려 놓으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頌·烈祖)

11. 逝

乃如之人兮 逝不古處 그 사람은 옛날처럼 대해 주지 않네
(邶風·日月)

誰能執熱 逝不以濯 누가 뜨거운 물건 쥐면서 물에 씻지 않겠는가? (大雅·桑柔)

12. 胥

籩豆有且 侯氏燕胥 음식 그릇 많이 벌였으니 제후께서 기뻐 즐기네 (大雅·韓奕)

君子樂胥 受天之祜 君子가 즐기시니 하늘의 복을 받으리라 (小雅·桑扈)

君子樂胥 萬邦之屏 군자가 즐기시니 만방의 울타리 되시네 (小雅·桑扈)

13. 噬

彼君子兮 噬肯適我 저 어진 군자님 내게로 와 주었으면 (唐風·有杕之杜)

彼君子兮 噬肯來遊 저 어진 군자님 놀러 와 주었으면 (唐風·有杕之杜)

14. 所

獸之所同 麇鹿麇麇 짐승 모이는 곳에 가니 암사슴 수사슴이 수두룩 (小雅·吉日)

我瞻四方 蹙蹙靡所騁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음 움츠러들어 달려갈 곳도 없네
(小雅·節彼南山)

譬彼舟流 不知所屆 마치 물에 뜬 배가 어디로 가 닿을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
(小雅·小弁)

15. 生

雖有兄弟 不如友生 형제가 있다 해도 벗만 못하게 되는 거지 (小雅·常棣)

矧伊人矣 不求友生 하물며 사람이 친구를 찾지 않겠는가? (小雅·伐木)

壽考且寧 以保我後生 오래도록 수하시고 안녕하시어 우리 후손들을 보호하시네
(頌·殷武)

16. 是

維葉莫莫 是刈是穫 잎새 더부룩한데 잘라다가 썰내어 (周南·葛覃)

象服是宜 子之不淑 제복은 마땅히 어울리는데 그대는 정숙하지 못하네 (鄘風·君子偕老)

宛其死矣 他人是保 만약 그대가 죽어 버리면 딴사람이 모두 차지하리 (唐風·山有樞)

17. 式

我有旨酒 嘉賓式燕以敖 내게 맛있는 술 있어 좋은 손님 잔치하며 즐기시네. (小雅·鹿鳴)

兄及弟矣 式相好矣 형과 아우들은 사이 좋게 지내며 서로 탓하는 일 없네 (小雅·斯干)

式夷式已 無小人殆 평탄히 다스리며 잘못을 그쳐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지 마오
(小雅·節彼南山)

18. 也

斯言之玷 不可爲也 말의 험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네. (大雅·抑)
不我以 其後也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뒤에는 후회하게 되리라 (召南·江有汜)
我心匪石 不可轉也 내 마음 돌이 아니니 굴릴 수도 없고 (邶風·柏舟)

19. 若

桑之未落 其葉沃若 뽕나무잎이 시들기 전엔 그 잎새가 싱싱하였느니 (衛風·氓)
抑若揚兮 美目揚兮 화살을 위아래로 겨누는 데 아름다운 눈에 넓은 이마 (齊風·猗嗟)
我馬維駱 六轡沃若 내 말은 갈기 검은 흰말, 여섯 줄 고삐는 윤기가 나네.
(鹿鳴·皇皇者華)

20. 抑

抑磬控忌 抑縱送忌 말을 달렸다 멈췄다 활을 쏘다 새를 쫓았다 하시네.
(鄭風·大叔于田)
抑釋搆忌 抑鬯弓忌 화살통 뚜껑을 풀고 활을 활집에 넣으시네. (鄭風·大叔于田)

21. 言

言念君子 溫其如玉 님을 생각할수록 옥처럼 온유하셔라 (秦風·小戎)
翹翹錯薪 言刈其楚 뻥뻥하게 우거진 잡목 속에서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周南·漢廣)
寤言不寐 願言則懷 깨며는 다시 잠 안오고 생각하면 슬퍼지네 (邶風·終風)

22. 焉

人無兄弟 胡不依焉 나는 형제도 없거늘 어찌서 도와 주지를 않나 (唐風·杕杜)
誰俯予美 心焉惕惕 누가 나의 님을 속여 내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陳風·防有鵲巢)
有苑者柳 不尙息焉 무성한 버드나무 밑에서 쉬기 바라지 않는가? (桑扈·菀柳)

23. 如

叔兮伯兮 褻如充耳 위나라 대부들은 꼭 귀를 막고 있는가! (邶風·旄丘)

有美一人 婉如清揚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는데 예쁜 맑은 눈과 넓은 이마를 가졌네. (鄭風·野有蔓草)

24. 與

猗與漆沮 潛有多魚 아아, 칠저수엔 물속에 고기가 많네. (頌·潛)

猗與 那與 置我鞀鼓 아아 많기도 해라, 자루 달린 북 큰 북 벌여놓았네 (頌·那)

25. 亦

其飛戾天 亦集爰止 새매가 하늘에 빙빙 돌다간 나무에 앉아 쉬네 (小雅·采芣)

亦既見止 亦既覯止 뵈게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召南·草蟲)

人之爲言 苟亦無信 남의 말은 진실로 믿지를 마소 (唐風·采芣)

26. 然

終風且霾 惠然肯來 바람 불며 흠비 날리듯 하니 다소곳이 찾아오겠는가 (邶風·終風)

不康禋祀 居然生子 편안히 제사 지내시니 의연히 아들을 낳으셨네 (大雅·生民)

好人提提 宛然左辟 좋은 님은 점잖아 공손히 왼편으로 비켜 다니며 (魏風·葛屨)

27. 曰

曰爲改歲 入此室處 해가 바뀌려 하고 있으니 방으로 들어와 평히 쉬기를 (邠風·七月)

曰歸曰歸 歲亦莫止 돌아가세 돌아가세, 이 해도 다 저물어 가네. (小雅·采薇)

莫敢不來王 曰商是常 모두 천자로 섬기어 상나라만을 받들었네 (頌·殷武)

28. 于

于以用之 公侯之事 연못가 물가에서 다복쭉 뜯어 임금님의 제사에 그것을 쓰네 (召南·采芣)

君子于役 不知其期 우리 님은 역사에 가서 돌아올 날 속절없네. (王風·君子于役)

燕燕于飛 差池其羽 제비들은 펄펄 앞서거니 뒤서거니 (邶風·燕燕)

29. 云

道之云遠 曷云能來 길은 먼데 언제면 오시게 되오 (邶風·雄雉)

赫赫炎炎 云我無所 메마르고 뜨겁고 해서 내 몸 둘 곳이 없습니다. (大雅·雲漢)

人之云亡 心之憂矣 어진 사람이 없으니 마음은 시름에 잠기네 (大雅·瞻卬)

30. 爰

爰有寒泉 在浚之下 맑은 샘물이 준고을 아랫녘에 흐르네 (邶風·凱風)

爰采唐矣 沫之鄉矣 새삼을 캐러 매고을로 갔었네 (鄘風·桑中)

遵彼微行 爰求柔桑 오솔길 따라 부드러운 뽕잎 따러 간다네. (邠風·七月)

31. 員

綯衣綦巾 聊樂我員 흰 옷에 파란 수건 쓴 여자만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네 (鄭風·出其東門)

32. 越

穀旦于逝 越以鬲邁 좋은 날에 놀러 여럿이 함께 가다가 (陳風·東門之枌)

33. 維

實維阿衡 實左右商王 바로 아형 이윤이 그 분이여 상나라 임금님을 보좌하신 거라네 (頌·長發)

維女荊楚 居國南鄉 그대들 초나라는 남쪽 나라를 차지하고 있네 (頌·殷武)

維葉萋萋 黃鳥于飛 잎새는 무성하고 곤줄매기 날아다니다가 (周南·葛覃)

34. 有

有鳥高飛 亦傳于天 새가 높이 하늘에 닿을듯 날고 있네 (小雅·菀柳)

有豕白蹄 烝涉波矣 흰 발의 멧돼지가 물을 건너고 (小雅·漸漸之石)

於萬斯年 不遐有佐 아아 만년토록 어찌 도움이 없으시랴 (大雅·下武)

35. 攸

鳥鼠攸去 君子攸芋 새와 쥐가 멀리 가서 군자가 여기 살게 됐네 (小雅·斯干)

豈弟君子 福祿攸降 짐작으신 군자님께 복록이 내려지네 (大雅·旱麓)

朋友攸攝 攝以威儀 조제자들의 도움도 위엄과 예의를 갖추었네 (大雅·既醉)

36. 聿

借曰未知 亦聿既耄 아는 거는 없다해도 나이는 많이 먹었다네 (大雅·抑)

蟋蟀在堂 歲聿其莫 귀뚜라미 집에드니 이 해도 저무는 구나 (唐風·蟋蟀)

無念爾祖 聿修厥德 조상 일을 잊지 말고 항상 덕을 닦기 바라네. (大雅·文王)

37. 猗

河水清且漣猗 황하물만 맑게 물놀이 치고있네 (魏風·伐檀)

河水清且直猗 황하물만 맑고 평평히 흐르네 (魏風·伐檀)

38. 矣

心之憂矣 其誰知之 마음의 시름을 그 누가 알아주리 (魏風·園有桃)

彼作矣 文王康之 태왕께서 일으키신 것을 문왕께서 편안히 하셨네 (頌·天作)

我僕痛矣 云何吁矣 내 하인조차 발명났으니 어떻게 하면 그대를 바라볼까나 (周南·卷耳)

39. 伊

不遠伊邇 薄送我畿 당신은 멀리 나오기는커녕 나를 문안에서 내 보냈지요 (邶風·谷風)

維士與女 伊其相謔 남자와 여자는 희희덕거리며 장난치고 (鄭風·溱洧)

不可畏也 伊可懷也 고향은 두렵기는커녕 그림기만 하였거니. (邠風·東山)

40. 而

俟我於庭乎而 充耳以青乎而 나를 뜰에서 기다리셨는데 귀막이는 파란 실끈에다 (齊風·著)

舒而脫脫兮 無感我帨兮 가만가만 천천히 내 행주치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召南·野有死麋)

未幾見兮 突而弁兮 얼마간 헤어졌다 만나도 갑자기 관쓴 어른 되었던라던데 (齊風·甫田)

41. 以

于以四方 克定厥家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그의 나라를 안정시키시니 (頌·桓)

于以用之 公侯之事 어디다 담을까 둥근 바구니 모난 바구니에 담지 (召南·采芣)

于以采蘋 南澗之濱 개구리밥 뜯으러 남녘 산골 시냇가로 가세 (召南·采芣)

42. 爾

噫嘻成王 既昭假爾 아아, 성왕님이여, 신이 밝게 강림하셨네 (頌·噫嘻)

43. 夷

蠹賊蠹疾 靡有夷屆 해충이 곡식을 해치듯 끊임없으며 (大雅·瞻卬)

罪罟不收 靡有夷瘳 죄그물 거두지 않아 어려움 사라지지 않네 (大雅·瞻卬)

44. 者

不知我者 謂我士也驕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게 당신은 교만하다면서 (魏風·園有桃)

十畝之間兮 桑者閑閑兮 십묘 넓이의 땅이지만 뽕따는 이들이 유유히 지내는 곳이니 (魏風·十畝之間)

今者不樂 逝者其耄 지금 즐기지 못하면 세월은 흘러 덧없이 늙을 걸 (秦風·車鄰)

45. 茲

昭茲來許 繩其祖武 앞으로 밝히시어 조상들의 발자취 이으시면 (大雅·下武)

46. 哉

顏如渥丹 其君也哉 얼굴은 붉은 물 들인듯하니 정말 우리 임금일세 (秦風·終南)

哀哉不能言 匪舌是出 슬프다 말못함이어! 혀로 다 말하지 못하니 (小雅·雨無正)

作邑于豐 文王烝哉 풍땅에 도읍을 만드셨으니 문왕이어 훌륭한하시도다 (大雅·文王有聲)

47. 載

睇見完黃鳥 載好其音 아름다운 피꼬리가 고운 소리로 지저귀네 (邶風·凱風)

載見辟王 曰求厥章 천자님을 처음으로 뵈고 그 분의 법도를 구하네 (頌·載見)

載芟載柞 其耕澤澤 풀은 베고 나무를 뽑고 필씩 필씩 땅을 갈아엎네 (頌·載芟)

48. 旃

上慎旃哉 猶來無止 부디 조심하였다가 우물쭈물 말고 돌아 오너라 (魏風·陟岵)

上慎旃哉 猶來無死 부디 조심하였다가 죽지 말고 돌아 오너라 (魏風·陟岵)

舍旃舍旃 苟亦無然 말을 들어도 흘러 버리고 또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唐風·采芣)

49. 諸

日居月諸 下土是冒 해야 달아 땅을 덮어 주고 있구나 (邶風·日月)

日居月諸 出自東方 해야 달아 동녘에서 뜨고 있구나 (邶風·日月)

日居月諸 胡迭而微 해야 달아 어찌서 번갈아 이지러지느냐 (邶風·柏舟)

50. 則

匪鷄則鳴 蒼蠅之聲 닭의 울음이 아니라 쉬파리 소리가 아니요? (齊風·鷄鳴)

匪東方則明 月出之光 동녘이 밝은 것이 아니라, 달빛이 비치는 것 아니요?
(齊風·鷄明)

瑣瑣姻亞 則無臚仕 잔다란 인척들까지 두터이 쓰지 마오 (小雅·節彼南山)

51. 之

漁網之設 鴻則離之 고기 그물을 쳤는데 큰 기러기가 걸렸네 (邶風·新臺)

鶉之奔奔 鵲之疆疆 메추리도 쌍쌍이 날고 까치도 짝지어 노는데 (鄘風·鶉之奔奔)

考槃在澗 碩人之寬 산골짜기 시냇가에 움막을 지으니 어진이의 마음은 넓네
(衛風·考槃)

52. 只

右招我由房 其樂只且 오른손으로 나를 방으로 부르니 정말 즐겁네 (王風·君子陽陽)

樂只君子 邦家之基 즐거울사 우리 님은 나라의 터전일세 (小雅·南山有臺)

樂只君子 福履綏之 즐거울사 우리 님은 복록에 편안하네 (周南·樛木)

53. 止

亦既見止 亦既覯止 뵈게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召南·草蟲)

既曰歸止 曷又懷止 이미 시집가 버린 것을 어찌서 또 그리워하는가 (齊風·南山)

齊子歸止 其從如雲 제나라 임금딸이 시집을 가니, 따라가는 이 구름같네 (齊風·敝笱)

54. 且

且悠悠昊天 曰父母且 아득히 높은 하늘이여! 하늘은 부모라 하였거늘 (小雅·巧言)

其虛其邪 既亟只且 어이 우물쭈물하라! 빨리 떠나야지 (邶風·北風)

揚且之皙也 胡然而天也 넓은 이마는 깨끗하고 희구나 어찌 그렇게 천신 같은가
(鄘風·君子偕老)

55. 誕

無然歆羨 誕先登于岸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이며, 무엇보다 송사를 공평히 처리하라
(大雅·皇矣)

誕彌厥月 先生如達 산달이 차서, 마치 양처럼 첫 아이 쉽게 낳으시니 (大雅·生民)

誕寘之隘巷 牛羊腓字之 아기를 좁은 골목에 버렸으나 소와 양이 감싸주고 비호하였으며
(大雅·生民)

56. 兮

嗟兮嗟兮 其之展也 곱고 흰 것은 그의 흰 예복이요 (鄘風·君子偕老)

于嗟鳩兮 無食桑甚 아아 비둘기야 오디는 따먹지 마라. (衛風·氓)

容兮遂兮 垂帶悸兮 흔들흔들 느슨히 늘어진 띠만이 드리워져 있네 (衛風·芄蘭)

57. 乎

女曰觀乎 士曰既且 여자가 ‘가 볼까요?’하니 남자 대답이 ‘벌써 갔다 왔는걸’
(鄭風·溱洧)

俟我於庭乎而 充耳以青乎而 나를 뜰에서 기다리셨는데 귀막이는 파란 실끈에다
(齊風·著)

是究是圖 亶其然乎 그렇게 되도록 궁리하고 피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네
(小雅·常棣)

58. 或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 소나무 잣나무가 무성하듯이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네 (小雅·天保)

59. 侯

侯誰在矣 張仲孝友 벗 중에는 누가 있노? 효도와 우애에 뛰어난 장중이 있네
(小雅·六月)

瞻彼中林 侯薪侯蒸 저 숲 속을 보니 굵은 나무 잔 나무가 무성하네
(小雅·節彼南山)

上帝既命 侯于周服 하나님께서 명을 새로 내리시어 주나라에 복종케 되었네
(大雅·文王)

60. 適

文王有聲 適駿有聲 문왕 기리는 소리 있으니 그 소리 크기도 하네 (大雅·文王有聲)

適求厥寧 適觀厥成 세상의 안녕 추구하여 그 이루신 것을 보게 되었으니
(大雅·文王有聲)

匪棘其欲 適迫來孝 욕심대로 급히 이루지 않으시고 선왕 뜻 좇아 효도 다하셨으니
(大雅·文王有聲)